

MAXIM

KOREA

SAYURI's LOVE RECIPE

사유리 짜응의 아찔한 키친 판타지
코믹 화보 준비했다가 미처 예상 못한
여신포스에 멘붕 온 MAXIM 편집부

불꽃남자 이야기

자신을 하얗게 불사른 다섯 남자

READY TO WAR

WANT TO SURVIVE?

아놔 이 돼지 빨갱이 새끼가, 흥 어딴어

GOD IS UNFAIR

서울대 얼짱 지주연

<연예가중계>의 미녀 리포터
말했잖아, 신은 불공평하다고

GIRL FRIEND TUNING

AA컵 여친을 C컵녀로 만드는 마사지
(어서 남친에게 MAXIM 4월호를 사 줘!)

2013년 4월호
정가 5,900원



23 NBA SPECIAL FACTS

ABOUT THIS SEASON

유래없이 거칠고 황당한 올시즌 NBA
그 쓸쓸한 재미의 23가지 비밀

Tony Parker's Tip

NBA 톱 포인트 가드이자 에바 롱고리아의 전 남편
토니 파커가 MAXIM 스튜디오에 불려왔다.
농구는 됐고, 옷 잘 입는 법이나 좀 알려줘.

Q: 다음 중 사유리가 만우절에 한 거짓말을 하나 고르시오

- 나는 리쌍의 개리 오빠가 좋아요
- 폰 영상 보고 나도 내가 또라이라 생각했어
- 나 AV배우였고 아오이 소라보다 유명했어
- 동료 남자 스태프에게 아동 보낸 적 있어
- 나를 MAXIM 표지 모델로 섭외한다길래, 사기꾼인줄 알았어
- 나 사실 중국인일 수도 있어
- 일본에서 대당일 때 지롤라모 판체타가 교수였어. 지롤라모 맨날...

*지롤라모 판체타:
남성지 (LEON)의 발행인 겸 표지 모델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APRIL



MARVEL © MARVEL

18th



FLY YOUR OWN FLAG™



Contents

APRIL / 2013



114

사유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그녀! 엉뚱한 발상과 주체할 수 없는 유머감각의 소유자 사유리가 드디어 MAXIM 표지에 등장했다. 이렇게 예쁜 걸 그동안 왜 숨겼대?



OPEN YOUR LIFE



DRIVE YOUR LIFE
4월 특별 시승 이벤트!

500C

최고 80km/h까지 주행 중에도 자유롭게 여담을 수 있는 소프트탑, 탑을 열었을 때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스타일리시 아이콘, 피아트 500C 지금 시승에 참여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4월의 유혹이 당신을 찾습니다

The Exclusive Openess at Anytime - Fiat 500C



LIFE ADDICTION

fiat.co.kr | fiat korea | FIAT 앱을 받아보세요 | 080-365-0500

Contents



144

Who's That Girl?

〈연예가중계〉를 보다가 인간한 여자
탤런트들 무안하게 만드는 초절정 미모의
리포터를 발견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서울대 얼짱' 지주연이었다!

Letters

14 우리 독자들이 편의점에서
MAXIM 담배 보고 감동한 사연

Circus Maximus

- 18 미국 MAXIMI이 선정한 2013년 '이웃집 이쁜이'
- 20 황당 꽃뱀 총 망라! 꽃뱀 유형 완벽 분석!
- 22 아직도 장기 사러 중국 가니? 사지 말고 키워 봐.
- 24 독자 눈썰미 테스트: 이 코는 어떤 미녀의 코?
- 28 누들러가 제안하는 라면 사리 대체품 BEST 4

How To

- 30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면접 필승 비급 대공개
- 32 불붙으면 절로 나는 신기한 연(년 아니다) 만들기
- 35 이것이 상부상조! AA컵 여친, C컵녀 만드는 마사지
- 36 숙취 해소용 햄버거 만드는 법

Drink

- 38 예쁜 여자가 좋아하는 밀맥주 블루 문

History

- 40 공을 세우면 가터벨트를 훈장으로 준다?
굽시니스트의 본격 교양 만화에서 확인하라!

Sex

- 42 숙박비 제로! 침실 탈출! 아웃도어 섹스 팁

Comment

- 46 약역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황정민
- 48 에디터가 추천하는 요즘 뜨는 팟캐스트 TOP 3
- 50 병신 같지만 멋지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

24 Hours to Live

- 52 〈스타 트렉〉의 캡틴 윌리엄 사트너의 최후

Fight

- 54 UFC 최초의 여성 챔피언 론다 로우지(게다가 미녀)
- 56 국내 최고의 MMA 대회 로프FC, 이번엔 서울이다!
- 58 불꽃 남자 특집! 하얗게 불사른 다섯 파이터 이야기

Icon

- 64 UV의 뮤지는 그냥 옷기만 한 형이 아니었다.

올가 쿠릴렌코

- 68 우크라이나 출신 미녀 배우와 2년 만에 뜨거운 재회

Style

- 74 NBA에서 가장 못 잘 입는 포인트 가드의 스타일 팁
- 78 완벽한 간절기 패션을 완성하는 남자의 아이템 42가지

Sport

- 88 축구 평점, 믿을 만해?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알고 봐.

Miss MAXIM

- 90 역대급 사이즈의 가슴! 역대급 수위(0)의 인터뷰!

BMW Motorrad
Korea

The new BMW
C 600 Sport and
C 650 GT



The Ultimate
Riding Machine



거부할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히다.

미래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핸들링, 놀라운 퍼포먼스의 새로운 맥시 스쿠터 BMW C 600 Sport와 BMW C 650 GT의 탄생에 세상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동급 성능에서 비교할 수 없는 60마력의 파워풀한 엔진과 혁신적인 수납 시스템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Urban Mobility를 완벽히 재해석 합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도심속의 질주, 거부할 수 없는 자유를 즐기십시오. 새로운 모던 무브먼트를 만나십시오. www.bmwmotorrad.co.kr

**THE NEW C 600 SPORT AND C 650 GT
MAXI-SCOOTER FROM BMW MOTORRAD.
WELCOME TO MODERN MOVEMENT.**

90 YEARS OF BMW MOTORRAD.



BMW Motorrad 공식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BMW Motorrad 공식 홈페이지 www.bmwmotorrad.co.kr

서울 강남 (02) 3453-9990 영등포 (02) 2633-9997 한남동 (02) 2279-7322 분당 1577-2690 인천 (032) 261-9784 대전 (042) 672-1101 광주 (062) 527-7807 전주 (063) 245-5077 대구 (053) 954-6161 부산 (051) 757-9995 창원 (055) 244-9997
*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Motorrad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64



Stuff

- 96 이달의 토이: 여자 꼬시기 좋은 만우절 장난감
- 97 MAXIM이 지른 물건#7: LG 헬스케어 공기청정기
- 98 게이밍 기어의 두 명가, 레이저 vs. 로지텍 대격돌!

Game

- 103 이달의 캐릭터: <진 삼국무쌍7>의 신비로운 글래머 장춘화
- 104 게임 속 미녀의 성형 의혹 파헤치기
- 106 여친과 함께 하기 좋은 게임 6종 (여친 대신 사유리가 함께 했다. 아따, 이맛에 에디터 하제!)

MAXIM Report #8 떡튀순 三國志

110 분석의 대명사 떡튀순. 그 바닥에서 고추장 좀 묻힌다는 대표 프랜차이즈 3곳을 비교했다. 에디터의 혀를 녹인 곳은 어디?

2012/13 NBA 완벽 분석

124 가장 거칠고, 황당하고, 화끈한 시즌을 맞은 올 시즌 NBA의 23가지 인기 비결

Let's Plant a Tree!

130 남자는 자고로 심는 걸 잘해야 사랑받는다. 미녀 조교가 알려주는 나무 심기에 관한 모든 것!

형들에게 물어봐

138 우주인 침략 말곤 안 겪어본 시련이 없는 홍석천과 리마리오, 두 형님이 여자 꼬시는 법부터 돈 버는 방법까지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천금같은 27가지 지름길을 알려준다.

Military

150 진운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From MAXIM Portugal

159 포르투갈 편집부에서 보내온 길이 남을 레전드급 청순 미녀의 화보

Party

166 뺑 안치고 세계에서 가장 음악 잘 듣는 DJ 형들이 존나 믹싱하던 레드 볼 Thre3Style 파티 현장

Unpicked!

175 편집부가 눈물을 머금고 폐기한 8컷

138



130

124



78





SWISS + MADE



ESSENTIAL GEAR.

Navy SEAL Steel Colormark Series No. 3152: 44mm, stainless steel case, screw down crown & case back,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stainless steel bracelet, an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노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리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모멘토) 02-772-3181 / 잠실점 1층(모멘토) 02-2143-1920 / 대전점 1층(모멘토) 042-601-2109 / 대구점 1층(모멘토)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모멘토) 051-678-4039 / 울산점 1층(모멘토)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모멘토) 02-6965-2637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 1층(모멘토) 031-822-2929 / 충청점 1층(모멘토) 043-909-4148 [AK백화점] 원주점 1층(모멘토) 오픈예정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 02-3424-1210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기(노블워치) 02-745-8780 / 동대문 두산타워 5층(패션존) 02-3398-7527 / 성내동(다이비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웰빙상가 A동(노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왕치(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즈스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탑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또)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창동 단암빌딩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츠킴) 02-389-8718 / 왕십리 민자역사3층(원타임) 02-2200-1355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86-1014 / 부천 심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킴) 031-710-1260 / 용인 블루키 동백점 1층(텐어클릭) 031-679-0145 / 안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평택 평택동(유빈) 031-658-6883 / 인천 홈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타임빌점 4층(스포츠킴) 042-615-1265 / 대전 가오동(예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기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청주 남로27(복워치) 043-223-1333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명)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롯데마트 월드킴점(원남상사) 062-675-8521 / 포항 밸류플러스(조이밀) 054-613-1170 / 이마트 중구미점 2층(스포츠킴) 054-480-1260 / 구미 환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M^c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alice@maximkorea.net	
조용재	주임	wj@maximkorea.net	
김세형	인턴	kim@maximkorea.net	
김소윤	인턴	sy@maximkorea.net	
영상 에디터 이준걸	인턴	girl@maximkorea.net	
		편집 2팀	
에디터 박한빛누리	주임/ 팀장	nu@maximkorea.net	
손안나	주임	anna@maximkorea.net	
박정욱	인턴	ok@maximkorea.net	
이효선	인턴	hyo@maximkorea.net	
영상 에디터 김슬기	인턴	sk@maximkorea.net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최인영	대리/ 팀장	joy@maximkorea.net
인사 장선영	주임	sun0676@maximkorea.net
유통 안재만	인턴	man@maximkorea.net
비서 손혜진	인턴	son@maximkorea.net

Marketing / 마케팅팀

김진욱	팀장	14k@maximkorea.net
광고-마케팅 원정운	메니저	jw@maximkorea.net
정진선	메니저	js@maximkorea.net
PR 염윤희	인턴	yeom@maximkorea.net
조은나래	인턴	wing@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크 서정민 팀장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프로그래퍼

정기수	실장
김명석	실장
박 울	실장
오준섭	

교열

산신경 kshino11@daum.net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삼지석리 192-1 인혜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용 / 이사 원혜진

광고 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발행처 (주)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4월호 통권 제36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urawong Krueafan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SERBIA Dragan Otašević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Hristo Zapryan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
자존심을 세워
드립니다.PRIDE CARE & WASH
프라이드 케어 앤 워시남성전용
청결제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 엠도씨

HOMEPAGE

www.mdoc.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orea.com

M^c
MDOC



RAZER
KRAKEN
music & gaming headphones

Charlie Parra Del Riego
www.charlieparradelriego.com
www.youtube.com/charlieparradelriego

LIFE IS JUST A GAME

kr.razerzone.com

© 2013 All Rights Reserved. Razer USA Ltd and affiliated compan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ctual products may differ from pictures. Information correct at time of printing.

FOR GAMERS. BY GAMERS.™

Letter From MAXIM



3인에게 응원을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앞 페이지에서 편집부에 일어난 두 가지 변화를 알아챘을 거다. 첫째는 이번 2013 정기 공채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MAXIM의 차세대 유닛들, 둘째는 편집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네 개의 팀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표지 펴고 뒷태 에디터로 이름난 김희성 에디터가 편집1팀을 맡아 역대 최연소 팀장이 되었고, 조각 미남 외모와 달리 노숙 체험도 불사하는 돌끼 충만한 박한빛누리 에디터가 편집2팀장을, 매거진 편집 디자인뿐 아니라 아이패드 앱 MAXIM HD를 지금 모습으로 정착시킨 1등 공신 서윤정 디자이너가 편집3팀장을 맡았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편집장이 시라소니도 아니고 편집부원을 18대1로 상대할 순 없으니 말이다. MAXIM 편집부의 신임 팀장들은 아주 젊다. 젊어서 미덥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팀장직을 맡을 정도로 유능하던 의미다. 얼핏 보기에 MAXIM 편집부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고민과 경쟁, 성실한 노력과 엄격함이 존재하는 피투기는 곳이기도 하다. 이 3인방은 그런 MAXIM 편집부가 자랑하는 에이스다. 뭐 '아직은' 셋 다 표정이 괜찮다. 현재까지 팀장직을 수행한 지 얼마 안 됐고, 굳기 바짝 든 신임 팀원들을 주렁주렁 달아놔이니 어깨가 으쓱할 만도 하다. 언제까지 편집장이나 선배들 속 썩이기만 할 줄 알았던 녀석들이 팀장이라니 뿌듯하다가도, 갑자기 못된 생각이 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네 같은 팀원 만나라. ㅎㅎㅎ, 생각만 해도 고소하다. 농담 삼아 세 팀장의 고생길이 험하다고 고소해하긴 했지만 사실 걱정과 안쓰러움이 앞선다. 빠른 승진은 조로(早老)를 야기한다. 너무 일찍 팀장을 거치고 편집장을 맡게 된 내가 그랬다. 비슷한 나이의 에디터들이 역동적으로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과 인맥을 쌓아갈 때, 매일같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노라면 가끔은 인생이 정체되고 있는 듯한 우울함마저 든다. 촬영 콘셉트를 짜고 시안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기사를 쓰고 심지어 구석에 앉아 한 땀 한 땀 직접 소품도 만들면서 스태프들과 함께 발로 뛰던 '현장' 이 늘 그리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처박혀서 자료에 머리를 파묻고 기사를 정리하던 나 혼자만의 '시간'도 그리다. 하지만 나의 본업은 우리 부원, 아니 후배들, 편집부 전체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게 하는 것이다. 편집장 업무 내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물론 그렇게 된다면 난 지금 당장 UFC 현장 취재를 가겠다고 생떼를 쓸 거다), 이 3명의 현 팀장은 '에이스'가 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거다. 지금 한참 물이 오른 3명의 에이스도 내가 느꼈던 비애를 어느 정도 겪게 될 거다. 처리해야할 서류가 쌓이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도 맡아야 한다. '팀원 일 때의 에디터, 편집디자이너로서 매달 '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팀장은 개인적인 성취감과 즐거움만을 추구할 수는 없기에 하는 소리다. 팀장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팀원의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팀장 개인의 재능이 아무리 출중해도 좋은 팀장이 될 수 없다. 나도 안다. 쉽지 않다. 아마 몇 주만 지나면 나에게 '팀장 너무 백세오'라며 징장덜 게 분명하다. 재능을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은 리더에게 필요한 소양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팀장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직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다. 강한 전사가 졸장이 되기도 하고, 허약한 병사도 명장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 믿는다(그쪽이 더 마음 편하잖아). 팀장으로서의 보람과 성취,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와 일의 재미. 3인의 새 팀장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길 응원한다 아 그리고, 꼭 너네,같은,팀,원,만,나,봐,라,이,자,식,들,아.

2013년 4월 편집장 *이영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골라 봤어.



PERFETTO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35.40D.Z1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50-7559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이타일빌드(신촌점) 02)313-4108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워치북(노원점) 070)4136-5090
- 룩북(부천점) 032)662-2026
- 시계상재(안양점) 031)441-0158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터블로그(양산점) 055)911-7111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블라인(부산점) 051)245-7965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신세계백화점(양정점) 031)8082-0344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해피타임(울산점) 02)2012-0625
- 윈타임(왕산리) 02)2200-1355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백끼통(부천점) 032)662-0686
- 탑타임(인산점) 031)413-7656
-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 타임프라자(구미점) 054)455-2410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2500
- 신세계백화점(생림점) 051)745-2297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테크노마트(신도림) 02)2111-1120
- 가든파이어(송파점) 02)2157-5000
- Watch F1(인천점) 032)501-7015
- 에진시계(대전점) 042)280-9117
- 티파니(광주점) 062)671-7458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공주나래(대구점) 053)256-0975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창주점) 043)219-9108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e-watch(영등점) 02)771-7033
- 두산타워2(동대문) 02)3398-5528
- 디큐브시티(구로점) 02)2211-0149
- 와와채(강남점) 02)537-8977
- 라임리(인천점) 070)7516-4545
- 라임터치(대전점) 042)482-2328
- 골드룩(광주점) 062)410-0137
- 릭룩(부산점) 063)443-0090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진주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현대백화점(부천점) 032)623-2163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미금사(중랑점) 02)434-4880
- 벨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티파니(양산점) 031)931-530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복와채(광주점) 043)223-1333
- 시골골방(광주점) 062)952-7720
- 엘가(대구점) 053)255-6940
- 조이필(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신세계백화점(영등포) 02)2639-1337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갤러리아백화점수원점 031)548-8996
- 정우상사(종로점) 02)2272-2688
- 밀리오레(동대문) 02)3393-1062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뉴코아몰렛(부천점) 032)624-8337
- 사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제이클렉션(천안점) 041)564-5465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상성시(대구점) 053)422-3002
- 타임북(부산점) 051)919-4704

Misson Complete!



2013. 4 Who's that Girl? 지주연



2013. 3 고두림



2013. 2 이예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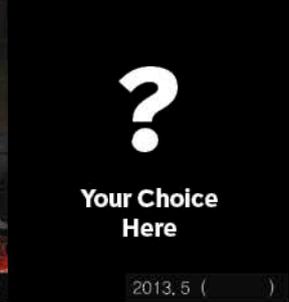
2013. 1 한그림



2012. 12 배소은



2012. 11 강예빈



**?
Your Choice Here**

This Month's Hottest Request

MAXIM 모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기회!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꿈은☆이루어진다! MAXIM에서 보고픈 모델이 있거들랑 MAXIM 홈페이지 메인에서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해주시! 당신이 모델을 추천하면 MAXIM이 접수한다. 그동안 독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강예빈, 한그림, 고두림 등을 섭외했다. 이번 달 섭외 요청 게시판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여인은 텔런트 지주연이다. 한때 서울대 얼짱으로 이름 날린 그녀는 <연예가중계> 리포터를 비롯해 간간히 방송에 얼굴을 비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기 공부를 위해 독립 영화에 집중하겠다고며 중적을 감추어 많은 남성의 애간장을 녹였다. 4월 1일부터 방영 예정인 MBC 드라마 <구가의 사>에 어리바리한 기생역을 꿰차면서 다시 한 번 남심을 흔들 그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섹시 화보를 Who's that Girl 코너(P.144)에 담았으니 지금 당장 확인하자!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고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모델을 직접 추천하자! www.maximkorea.net



터치는 안 되나봐?

목욕비가 1,700만 원인 '황제 목욕'이 있다고?
중국 허난성의 온천에 목욕비가 1,70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목욕'이 등장해 화제다. 직장인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을 기꺼이 내고, 공녀들과 즐기는 목욕이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한가? 지금 MAXIM 홈페이지로 접속하라! 곧 때리고 화끈한 온라인 뉴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MAXIM ONLINE SURVEY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걸그룹 유닛은?

- 1위 태티서: 태연, 티파니, 서현 (1,378표 50.6%)
- 2위 씨스타 19: 효린, 보라 (814표 29.9%)
- 3위 오렌지카라멜: 나나, 레이나, 리지 (300표 11%)
- 4위 투윌: 전지윤, 허가윤 (144표 5.3%)
- 5위 레인보우 픽시: 조현영, 오승아, 김지숙 (89표 3.3%)

총 투표자: 2,755명 / 투표 기간: 2013년 2월 11일 ~ 3월 15일



50.6%라는 엄청난 지지율! MAXIM 독자가 선택한 걸그룹 최고 유닛은 바로 '소녀시대-태티서'다. 초반에 1위를 달리던 씨스타 19는 얼마 후 500표 이상 태티서에 뒤지며 아쉽게 2위로 하락했다. 전 세계 소시 팬들이 물량공세를 하기 위해 '소원의 난'이라도 일으킨 걸까? 한때 홈페이지에 해외 방문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MAXIM 홈페이지에는 재미있고 기발한 설문조사가 항상 대기 중이다. 당장 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라!



겨드랑이도 예쁘네.

This Month's Hot Scan

지난 3월호 속 QR 코드 중, 독자가 가장 많이 스캔한 코드는 나인뮤지스 손성아의 화보 속에 있었다. 수천 명의 독자들이 QR 코드 속에 담긴 촬영 현장 프리뷰 영상으로 그녀의 섹시하고 고혹적인 자태를 재확인했다. 이번 달 MAXIM 곳곳에 있는 QR 코드도 놓치지 마시길. 섹시한 프리뷰 영상과 에디터들의 바보짓이 잔뜩 있거든!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62 •직영매장 세이코부터크 스타시타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2-4144 •직영 편집매장 모멘토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대신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9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부산본점(4월중오른) / 롯데부산점(3월말오른)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킨텍스점 031822-2929 / 현대충정점 043909-4148 / AK민주점(3월말오른) •연세점 롯데 / 신라 / K10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지(771-7033) 종로 노블워치(745-8789) / 경신사(741-9678) / 경우상사(2272-28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특림(6282-2777) / 신바파(532-2121)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권역 타임(6299-7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시(2698-0871) 광진 TMT타임(343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노라시계(971-5334) 인천(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북북(8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이(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수원 AK프라이(240-2199) / 텐어블라(201-7100) / 지지킴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지(441-1014) / 시계상지(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상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랑(245-7965) / 타이머블(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922-2088) / 프로포즈(818-6573) / 동화사(844-5651)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기(255-6940) / 엘디(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시(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텔(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6)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시(256-4574) / 드림플러스(235-5101) 대전(042) 보육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엔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일파의오메가(564-5465) / 신세계여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9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루(225-0175) / 현대제일사(515-7772) / 시계방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킴투(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77)

Letters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달에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편지

입사 직전에 홍콩에 놀러가 클럽에서 처자를 만나 놀았소. 꽤 마음에 들어 명함을 투척하고 한국에 오면 꼭 만나자고 말했는데, 연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연락은 오지 않았소. 속상한 마음에 해외 근무를 자처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더니 그제서야 그녀에게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소! 앞으로 4개월 후여나 휴가인데 지금 필리핀에 있는 본인은 상사병이 날 지경이러오!
(신재원,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 클럽에서 만난 여자한테 명함을 주다뇨. 업무적인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면 마음에 드는 여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직접 따도록 하세요.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당신의 연락처를 찍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면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후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꽤나 힘든 법이죠. 그래서 전 일적으로 만난 사이에도 마음에 들면 직접 번호를 찍어 줍니다. 앞으로 명함 따위는 음식점 이벤트 응모용으로나 사용하세요(편집장님, 이거 못 본 걸로...).

본명 기가 막혔는데

조선소에서 일하는 본인은 MAXIM의 열혈 구독자요. 지난 3월 14일에는 일을 하다가 MAXIM 애독자답게 기가 막히게 관참은 화이트데이 선물을 생각해 냈소. 퇴근 후 부푼 마음을 안고 돌아간 본인은 아내에게 '막대 사탕과 알사탕이오!'라고 외치며 바지를 내렸소. 그리고 한 볼때가 맞고 지금까지 서먹한 관계요. 다른 결과를 생각하며 한 짓인데 이거 어찌하면 좋소?
(이성길, 이메일 사연)



여자를 주는 여자

떡밥을 자주 주는 여자 사람 친구 때문에 고민이요. "니 주변에 여자만 많이 없었어도 사귀자고 했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귀고 있잖아" 라고 친구들에게 드립을 날리질 않나. "입맛이 이렇게 잘 맞다니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꺼내질 않나... 자꾸 이러니까 나도 이 처자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소. 고백하면 잘 될 것 같소?
(B. Skyway, 이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 제 생각에는 귀두 부분에 달콤한 무언가를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이트데이인데 달콤한 체리와 리본으로 데코레이션을 하지는 못함양정 그냥 축 쳐진 번데기만 내밀었으니, 한 대 후려맞을만 하네요. 하다못해 설탕이라도 뿌리던가...

에디터 손안나 →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여자를 준 게 맞나요? 원래 어장 물고기란 미끼가 왔을 때 덩석 무는 것이 근본 자세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당신 귀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면, 네. 승산이 있어요. 강태공도 아무데나 떡밥을 던지지는 않거든요. 다른 고기도 물기 전에 어서 고백하세요.

이달의 스페셜 사연

편의점에서 발견한 반가운 얼굴



담배가 떨어져 집 앞 편의점에 갔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는 더원 임팩트 광고 패널을 발견했소. 원래 본인은 더원 유저가 아니지만, 생각보다 케이스가 너무 멋져서 핑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1mg 담배를 샀단 말이오! 그런데 피우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진한 맛에 놀랐소. 대체 뭘 넣은 거요? 원지 MAXIM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면 범상치 않은 원가가 들었을 것 같은데...
(신사동 고리나,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종재 → 저도 그 진하고 구수한 맛에 깜짝 놀라 첨가제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첨가제도, 특별한 담뱃잎도 아닌, 독자를 향한 MAXIM 에디터들의 순수한 맘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아니었을까... 특수염 가득한 그리스의 어부가 새벽 네 시에 푸른 산토리니 해안가로 나와 새벽 항구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에게 해 남쪽으로 출항해 열 일곱 시간만에 잡아올린 단 한 마리의 참치 맛 같은 건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많이 사 두는게 좋겠지요?





뜨기라면 뜨고
소리라면 소켓어프!



FPS의 변화를 말하다!



QR 코드 찍고,
A.V.A만의 여캐릭터를
받으세요!

facebook

아바



© NEOWIZ GAME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RED DUCK Inc. All rights reserved.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13학년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말로만 듣던 OT를 가게 되었는데, 같은 과, 같은 조의 관참은 처자를 발견했소. 드디어 <건축학개론> 한 편 찍나 싶어서 무조건 나서서 스스로를 어필했소. 심지어 커피댄스 시간에는 직접 데리고 나가서 같이 춤도 추고 난리도 아니었소. 그렇게 3일 내내 열심히 나했지만 여전히 그녀 앞에만 서면 서먹해진다오.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소?

(2013 건축학개론, 모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 관심을 주지 않던 남자라도 의외의 매력이 보이면 눈이 가게 됩니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허당인 사람은 귀엽고, 사치스러운 줄 알았는데 뒤에서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사람은 인간적이잖아요. 저 역시 일부러 순진한 척 하다가 섹드립을 크게 한 번 날려 상대의 방어를 무력화 합니다. 건축학개론님도 까불대는 모습은 충분히 됐으니 이번엔 똑똑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1인치가 모자라

소인은 지난 주말 클럽에서 눈 맞은 백인 여자와 뽕뽕을 하러 집에 왔소. 한창 열심히 서로의 몸을 탐닉하다 그녀와 나의 마지막 웃김이 벗겨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실망감을 보았소. 열심히 때때질을 하고 그녀를 둘러보면 뒤 부끄러워 서양 아동을 켜 보니 소인의 것은 1인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소. MAXIMO!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는데 중국엔 MAXIMO이 없소. 대체 언제 들어오는 것이오?
(Jin Young Ko, 이메일 사연)



여자친구의 요리가 대단해요!

여자친구가 요리를 해 주다며 자취방으로 본인을 불렀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닐까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으르라이스를 내오는게 아니겠소? 조금 실망한 했지만 그래도 이왕 해 준 거 맛있게 먹기로 하고 한 수저를 들었는데, 절인 고등어를 뼈째로 씹는 짠 맛에 수저를 내려놓을 뻔 했소. 어떻게 다 먹긴 했는데 다음에는 김치볶음밥을 해 주다며 벌써부터 들떠 있소. 어떻게 해야 하오?
(NYW, 이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 양키에 비해 1인차라면 그닥 실망할게 없는 물건일텐데... 어쨌든 해결책은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당신의 물건을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싫다면 세로 줄무늬 옷을 입으면 키가 커 보이듯이 손에 세로 스트라이프로 문신을 새겨 넣는 건 어떨까요? (가로 스트라이프는 두꺼워 보입니다. 둘 다 원하면 체크무늬)

에디터 조웅재 ➔ 죽을 힘을 써서 프리더를 무찔렀더니 다음엔 마인부우가 기다리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셨군요. 절대 전에 늘 DAWN808을 섭취하던 선조들의 지혜를 응용해 여자친구분의 집에 가기 전에 늘 개비X콘을 한 포씩 복용해 위장을 코팅하세요. 아니면 아예 여친에게 요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자 사연 응모

4월 1일 특별기획
만우절 맞이 독자 사연 접수!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이번 4월 1일 새벽 2시에 MAXIM 사옥 4층에서 전 직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 87회 MAXIM 독자 사연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도 독자 사연 콘테스트 우승자인 김모 씨(69)는 입에 독자 편지를 문 채 제자리에서 윈드밀 270바퀴를 돌아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고 72년치 정기 구독권을 획득했다. 올해 독자사연 콘테스트 우승자에게는 144년치 오프라인 정기구독권과 함께 MAXIM 소유의 <미스맥심 데이트권>이 걸려 있으니 많은 독자들의 지원을 기다리겠다.



➔ 이번 달에 독자 사연을 보내는 독자 중 선착순 세명에게 **커피그루나루의 <프리미엄 액상 포션커피>**를 보내 준다! 국내유일 원두추출액을 90% 사용하여, 물과 우유만 부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깔끔한 커피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독자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사연을 보내도록 합세!



HELL DIVER

1942 SB2C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TIME 21(강변점) 02-3424-7073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탐타임(안산점) 031-413-7656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타임리움(부평점) 070-7516-4545
 핑끼통(부천점) 032-662-0686

북와치(청주점) 043-223-1333
 타임북(부산점) 070-7530-1219
 삼성새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Dear. Readers

사유리의 독자 고민 해결소!

엉뚱함 속에 숨어있는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당신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한다.

당장 114페이지를
펼쳐 보자!
상큼 발랄한 사유리의 화보!
배꼽 빠지게 웃긴 인터뷰!
MAXIM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남자포레?

Q. 어떤 요리를 잘 해야 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shitta, 이메일 사연)

A. 음... 니꾸자가! 김치랑 불고기 넣은 요린데 맛있어요. 근데 그건 일본 남자를 꼬실 때 하는 말이에요. "니꾸자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 일부러 일본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한테 "나 니꾸자가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한국에서 하는 "나 김치볶음밥 잘 만들어"랑 비슷한 뜻이에요. 나도 거짓말 많이 했어. 니꾸자가 잘 한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어.

Q. 감기 몸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집에만 쫄쫄 들어박혀 있는 게 너무 서럽네요. 외로움을 달래 줄 처자가 어디 없을까요?

(슬리피, 이메일 사연)

A. 나는 박진영이라는 친구가 있어. JYP는 맞는데 연예인 박진영 말고, 그 친구는 내가 힘들면 20분 안으로 뛰어와서 밥도 만들어 주고 설거지도 해 줘. 거의 한국 어머니 마찬가지야. 굳이 여자친구가 없어도 그런 엄마같은 친구를 만들면 외롭지 않아.

Q. 곧 결혼할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실수로 방귀를 뀌었습니다. 망한 거죠?

(김선일, 이메일 사연)

A. 방귀? 방귀를 뀌었다고? 근데 그런 건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방귀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가족이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야. "엇, 귀엽네? 일본 사람 방귀 귀여워!"라고 해주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 매너가 좋은 거야. 우리 엄마 아빠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독자 사연
투척



구두 슈즈원
안경 플프랭크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
할인!**



남성 피부 미백 및 보습에 효과적인
엠도씨 나이트 이펙트 화이트닝 젤

※ 한정 수량입니다. 사은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타 사은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MAXIM KOREA

9MUSES
NEWEST HOT DOLL

나인뮤지스의 신무기, 신인이 이렇게 예쁘면 언니들이 안 미워하?

SIZE DOESN'T MATTER
상추를 입대시키고 홀로 남은 소리가 알려주는
(단산님의 9가지 스타일 철학) **HIGHTY MOUTH**
작다 무시하면 네 머리에 바람구멍, 세계 최강 권총 **TOP5 PISTOL**
미니라는 이름을 단 작은 고추들의 전쟁 **MINI VS MINI**

NORTH KOREAN NUCLEAR BOMB
그래서 진짜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

FIGHT CLUB
소나기 편지 시전 영준권 라이프 스타일
국내 최고의 그래플러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다!
UFC IN JAPAN: 코리안 파이터 3인방 중 이기고 돌아올 남자는?
최악 파이터가 링 위에서만 싸운다고?
동계물등 파이터들의 범죄 이야기

KATRINA BOWDEN
에미상을 휩쓴 최강 미드 (30 ROCK)의 섹시 아이본,
딱진 머리의 NBC 방송 작가들 틈에서 나홀로 아찔한
원펀초 차림으로 눈을 빼놓는 미친 외모의 여성스틸트.
MAXIM 미국판 표지 모형을 찍었다!

F*cker's Digest
섹스가 주는 18가지 선물 (빛에서 그녀에게 올 것
빛의 질정, 약정, 높은 원도화자 리스트 (유명인 다량 포함)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2013년 3월호
정가 5,900원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천 원 할인+1000씩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천 원 할인+2000씩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만 5천 원 할인+4000씩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만 원 할인+6000씩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만 원 할인+8000씩 적립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딱=1원)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즐거운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던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심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라면
늘 대환영이다.

”

America's Sexiest Girl Next Door **Dessie Mitcheson**

한국에 MISS MAXIM이 있듯, 미국 MAXIM은 해마다
'우리 동네 최고 이쁜이'를 가리는 홈타운 하티스(Hometown Hotties)를 연다.
자, 드디어 2013년 대회 우승자인 데시 미처슨이 납시었다!

랜제리 Jenna Leigh

aximus

Hometown
Hotties
2013
Winner!



More in
MAXIM
iPAD

Dessie
Mitcheson

태어난 곳: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아폴로
생일: 6월 30일

끝내주는
활동 사진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 CARLOS NUNEZ

**축하한다! 우승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나?**
너무 기뻐서 오줌을 지릴 뻔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나? 남자친구?**
당연히 엄마. 결혼 진출
소식만으로도 무척 좋아하셨다.
그리고 아빠와 오빠. 특히 오빠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엄청

걱정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현재
없다.

**당연하지. 이제 당신 오빠는
여동생이랑 어떻게 좀 해보려고
깎치는 사내놈들을 처리하느라 골치
아플 테니까. 이 대회에 참가한
계기는 무엇인가?**
모델 일을 하면서 MAXIM에
나오는 건 오랜 꿈이었다. 스텐한

살이 되자마자 꼭 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내가 MAXIM을
대표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 흥분된다.

**당신은 평소에도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다니나?**
집에서는 물론 일할 때도 화장을
많이 안 한다. 평소엔 그냥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평범한

아가씨다. 가끔은 완벽하게
변신하는 반전 있는 여자지만
말이다.

**현재 남친이 없다고 했지? 혹시
MAXIM 가아들이랑 데이트해볼
생각 있나?**
물론! 난 가식 없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라면 늘 대환영이다. ☺



꽃뱀 주의보

꽃뱀한테 확 귀두를 물려버리면 약이 없당께.



1 국방부를 털다

1996년, 육 해 공군사령부 장교 50명이 한 꽃뱀에게 농락당했다. 고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21세의 여성이 남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1995년 초부터 계룡대 입구에서 주말 저녁에 중형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장교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유혹했다. 이 여성은 당시 자신이 만난 장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등을 수첩에 낱말이 기록했는데, 수첩에 3번 이상 만난 것으로 적힌 장교는 육군 9명, 해 공군 각 3명씩 총 15명이다. 자, 다들 구멍 동서지간인데 이제 계급장 떼고 말 놓는 건가?

3 알고 보니 남친이 암컷

2002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두 살 연하남과 교제를 시작한 A는 점차 사랑이 깊어지자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연하남은 "결혼할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싶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연하남은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우연히 연하남의 조카가 그를 "이모"라고 부르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연하남, 아니 연하녀의 꽃뱀 행세가 탄로났다. 아니, 동거하면서 한 번도 안 하는데, 결혼할 사이면 혹시 고자가 아닌지라도 의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2 킬러 꽃뱀

2009년, 일본 열도를 뒤흔든 킬러 꽃뱀이 등장했다. 35세의 기지마 카나에는 인터넷 결혼 중개 사이트에서 만난 8명의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12억 원을 뜯어내고 이 중 4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모두 연탄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시체에서는 같은 종류의 수면제가 검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킬러 꽃뱀이 똥똥하고 똥똥했다는 사실이다. 젠장, 대체 비결이 뭐지? 요리를 존나 잘하나?

4 <타짜> 실사판

<타짜>가 한창 촬영 중이던 2006년 여름, 진짜 타짜들이 일을 냈다. 먼저 재력이 최 씨에게 스물여덟 살 연하의 여성 이 씨가 접근했다. 함께 골프를 치며 팔팔팔을 즐기던 중, 이 씨는 경기도 양평의 하우스로 최 씨를 유인했다. 정당 1만 원짜리 고스톱으로 공사가 시작했다. 도박단은 최 씨에게 술을 먹고 패를 *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한 판에 1,200점, 하루밤에 9,0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도박단은 남성 재력이 5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10억여 원을 챙겼다. 아수라밭벌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더니...

*탄: 회투, 트럼프 등의 카드 도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카드 순서를 미리 조작한 카드 묶음

꽃뱀 피해의 유형

설마 내 여친은 아니겠지?



1. 명품 요구형

가장 흔한 꽃뱀으로, 돈은 많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사귀는 동안 고가의 명품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유형.

2. 나이트형

나이트에 놀러 오는 남성에게 미리 입을 맞춰둔 20대의 젊은 여성을 부킹시킨 후 술을 더 마시게 유도하거나 술에 수면제를 넣어 기본 세팅을 고급 양주로 둔갑시키고 술병을 더 가져다 놓아 거액을 갈취하는 수법.

3. 레스토랑 및 바형

악질적인 식당이나 술집이 예쁜 여자와 짜고, 순진한 남성을 유혹하여 해당 식당에 데리고 오게 한다. 여자는 남성이 메뉴판을 보지 못하게 한 뒤 고가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남자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하게 하는 수법.

4. 입신형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후 2~3주 후 입신했다며 닥테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온갖 폭행과 협박을 해서 기어미 돈을 뜯어내는 유형.

5. 교통사고 위장형

자신이 유혹한 남성과 술을 마신 후 2차를 가져다 남성이 운전하게 유도한 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을 신고한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유형.

6. 성폭행 자작극형

신중 꽃뱀 유형으로, 흔잡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울면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호구 남성을 지목하거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옆에 접근해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유형.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직 영 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오픈
[면 세 점] 제주중문세점 (064-780-7671)
[판 매 처]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 잠실 (02-2143-1922) / 전주 (063-289-3191) / 대전 (041-601-2253) / 청주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인천 (032-430-1486) / 광주 (062-360-1291) / 천안 (041-640-5081) 대구백화점 (053-422-3191) 현대백화점
 중동 (032-623-2163)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평택 (031-646-6139) / 구로 (02-839-5128) / 원주 (033-811-5535) NC백화점 송파 (02-2157-5236) / 순천 (061-720-5124) / 일산 (031-900-5163) / 불광(02-350-8478)
 갤러리아백화점 수원 (031-548-8996) 디큐브백화점 거제 (055-680-0193) / 신도림 (02-2211-0142)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서울(02) 현대아파트 해미타임 (2012-0625) / 와우치 (537-8977) / 웰타임 (2200-1355) / 진진상사 (784-4716)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마신 (6388-2927) / 타임시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 (779-6964) 경기(031) 시계상자 (441-0158) / 사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타임플러스 (371-6850) 경기(032) 대성 (325-7467) / 뽕까뽕 (662-0686) / 타임런 (504-8245) / 키시오모유
 (502-7138) 광주(062) 타임엔타임 (222-3114) 청주(043) 보보스워치 (235-1510) / 복워치 (223-1333) 대구(053) 공주나라 (258-0975) / 골드용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프 (425-0157) / 스위치워치 (593-4844)
 / 신세계플렉스 (5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해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3-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덕진시계 (333-8849) / 타이머플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새 장기로 갈아드립니다

장기가 망가졌나? 새 관절이 필요해? 더 이상 장기 기증이나 인공 기관에 매달리지 마라.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실에서 신선한 장기를 무럭무럭 키우는 중이다.



1 폐
미국 예일대의 연구진은 손상된 쥐의 폐에 쥐 태아의 건강한 세포를 주입했다. 그리고 뾰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웠더니 망가진 폐의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매품 인간 폐: 커밍 슌

3 기도
환자의 자가 줄기 세포를 이용해 망가진 기도를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다. 스웨덴 캐롤린스카 대학 병원 박사들은 연구실에서 만든 신선한 기도로 암 세포가 퍼진 기도를 갈아끼우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스웨덴 박사들이 내 금연 다짐을 또 좌절시키는구먼.

2 피부
현재 미국에서는 '리셀(ReCell)'이란 이름의 심플한 장치를 테스트 중이다. 이 기계는 우표 크기만한 인간 피부를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주는데, 상한 피부 조직에 대고 뿌리면 넓은 부위라 할지라도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 헤어진 여친 이름 문신이며, 이제 안녕!

4 성기
<옥보단>에서처럼 말 거시기를 이식하는 건 옛날 이야기!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재생의학 전공의 앤서니 애플러스 박사는 잉크젯 프린터로 복사를 하듯 성기를 자가 세포로 만들어 찍어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옷장에 '여부 성기'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해야겠네?

이달의 깨알 상식

일어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며.



Q. 추울 때 여자들의 유두는 바짝 서는데, 왜 남자의 성기는 반대로 쪼그라드는 걸까?
A.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미지의 갈색 점인 유두는 열을 가둬두기 위해 작은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발기하게 된다. 동시에 온기를 더 품기 위해 털도 함께 선다. 불행히 저 아래 달린 당신의 남성에는 이런 근육이 없다.

Q. 만약 멸종 위기 동물이 멸종 위기 식물을 물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그냥 내버려다. "일부 식물들은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씨를 퍼뜨린다. 동물들이 변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 씨앗에겐 절호의 찬스인 셈"이라고, 세계야생생물기금 소속의 과학자 에릭 다이너슈타인이 말했다.

Q. 배를 타고 공해상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애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결정되나?
A. 뉴욕 대학의 국제법 교수 호세 알바레즈의 대답은? "부모의 국적이 아이의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Funny Numbers

4,000,000,000

하룻동안 유튜브 영상의 총 조회수는 40억 기량이다. 이게 다 우리가 부산경찰청 열쌍 여경이 귀요미송 부르는 걸 무한 반복한 덕분이.



17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성의 17%가 시댁이나 처가 쪽 이성과 불륜을 저지른다. 친형제끼리 Hole 동서가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군...



1/10

형, 속았지?

지구인 10명 중 1명은 직년에 진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믿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식보다 더 섬뜩하구먼.



MAXIM이 꿈은 최강의 ICON은 누구?

자신의 분야에서 짱 자리를 먹은 멋진 인물을 우린 '아이콘(Icon)'이라 부른다. MAXIM은 매달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아이콘' 형님들을 뒤 표지에 모셔왔다. 자. MAXIM이 선정한 최고의 남성은 과연 누구일까?

댓글 달고
공짜로 정기
구독!



코리아의 피가 흐르는 전사의 심장!

2012년 5월: 파이터 벤 헨더슨

한국인 어머니를 둔 미국 국적의 현 UFC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벤 헨더슨은 김치를 좋아하고 한글

문신까지 새긴 레알 한국 남자다. 올 설에는 떡국을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한글 인사를 트위터에 남겨 한국 팬을 감동시켰다. 학창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약한 그는 영락없는 뽕쟁이였다. 프로 파이터로 전향, WEC 챔피언을 거쳐 UFC에 진출한 그는 챔피언을 먹고 현재까지 2번의 방어전을 치렀다. MMA 마니아인 편집장은 미국 애리조나까지 날아가 눈앞에서 헨더슨의 실전 훈련을 보고, 그에게 염치없이 밥까지 얻어먹고 오더니 "실력과 열정도 대단하지만 인격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헨더슨은 현재 3차 방어전을 앞두고 맹훈련 중이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강 무생물

2011년 8월: 범블비

'카마로'라는 정식 명칭보다 '범블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 녀석은 남성의

로망을 모아 집약시킨 존재다. 평소엔 간지나게 질주하는 노란 스포츠카에서, 위기 상황에서 쿵칭~ 최강 전투 로봇으로 변신한다. 게다가 위트와 센스도 넘쳐서 어리숙한 차주인 샘(사이아 라보프)의 러브 라이프를 적극 밀어주기까지 하니 <트랜스포머>의 진짜 주인공은 범블비가 아니고 뉘겠다. MAXIM은 3편 개봉 당시, 주연 배우 로지 헨팅턴 휘틀리를 커버 걸로, 범블비를 아이콘으로 선정해 범블비와 가상 인터뷰를 진행했고, 한글이 아닌 '사이버트론'의 언어로 기사를 써서 독자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우린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 개봉할 4편에선 더 업그레이드해 나타날 예정이다.



펜에 실린 농도 100% 남자의 향기

2011년 9월: 만화가 김성모

"김성모가 MAXIM에 출동한다면 어떨까? 김성모" 진짜 남자의 씨가 마른 이 세상에

김성모만큼 남자다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가 있을까? 사법 고시생 시절 그의 만화를 탐독하며 김성모 작품 속 캐릭터를 줄줄이 외다시피 한 유승민 에디터가 인터뷰어로 나섰다. 한 장르의 확을 그른 사람답게 김성모는 진지하고 여유있는 말투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한 마디, 한 마디에 담아 던지며 우리에게 진정한 남자의 근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었다. 형님 작업실에 놀러 오라고, 같이 고기 구워 먹자던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MAXIM다운 단단한 놈

2013년 3월: 더 원 임팩트

MAXIM 콜라보레이션

진짜 수컷의 상징인 MAXIM 심벌을 단 진짜 남자의 담배가 MAXIM의 아이콘으로 선정돼 표지에 등장했다. MAXIM은 하드 필터와 풍부한 담배 향으로 무장해 1mg 같지 않은 1mg 담배로 인기를 모은 더 원 임팩트와 손잡고 특별 한정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이 콜라보레이션 담배와의 인터뷰 기사를 담당할 조중재 에디터는 최초로 말하는 담배와 대화를 나눈 인간이 되었다. "그 녀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남자 새끼한테는 관심 없다, 너는 가고 미녀 에디터를 데려와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조중재 에디터가 말했다.

인형들의 전쟁!

우리 맘에 싸우지 마!



1년의 시간 차를 두고 MAXIM 커버를 각각 장식한 나인뮤지스 세라와 손성아가 얼마 전 트위터에서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스토커 기질 다분한 MAXIM 이 이를 놓칠 리 없지! 지난 2월, 나인뮤지스의 새 얼굴 손성아 양의 MAXIM 커버 사진이 공개되면서 손성아 양이 자신의 트윗에 "맥심 3월 호호호♡부끄부끄"라는 멘트와 함께 MAXIM 3월호 커버 사진을 올렸다. 이에 1년 전인 2012년 3월호 커버를 장식한 나인뮤지스 세라 양이 "범버...가 아니고 니가 더 이쁘다 그래"라는 답글과 함께 자신의 커버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손성아 양이 "ㅋㅋㅋㅋㅋ 에이 선배님이 훨씬"이라는 '노련하고 안전한 댓글'을 달아 훈훈하게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이를 발견한 MAXIM 김 모 에디터는 "웬지 우릴 두고 두 미녀가 싸우는 판타지를 보는 것 같았다"라며 괜한 환호성을 질러댔다. 우린 둘 다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싸우지 마, 해해.

범버..가 아니고 니가더이쁘다그래 RT @tjddkths: 맥심3월호호호♡부끄부끄

Son sung a @ssdskh @nyuser103 ㅋㅋㅋㅋㅋ 에이 선배님이 훨씬 귀엽

세라와 손성아 사이에서 오간 훈훈한 덕담.



소녀 몽타주 퀴즈!

걸그룹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당신을 위한 초미녀 조립 프로젝트!
MAXIM 독자 눈썰미라면 아래 퀴즈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겠지?



Q 누구의 이목구비일까?
모르면 아래 힌트를 봐.

눈
Hint 최근 몇 년간 미친년 널 뒤흔 파도치는 걸그룹 홍수의 격랑 속에서 그녀는 홀로 입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그녀의 필살기인 현란한 보디무빙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당신의 마음 속엔 아무기가 계사연을 맞아 승천하듯 희열이 힘차게 차오른다.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익사할 것 같은 깊고 큰 눈망울이 매력 포인트. 대표 키워드는 '패왕'.

입술
Hint 처음엔 삼촌 질 만나서 가수 한다는 육만 바가지로 먹었다. 키도 작고, 존재감도 미약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매만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 그녀가 크고 아름다운 '그것'을 적극 어필하자 인터뷰도 팬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특히 그녀의 입술은 서구적인 섹시함과 동양적인 귀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키워드는 '슴'.

코
Hint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명실공히 걸그룹계 최고 '청순미녀'로 각광받는 그녀는 안방극장에도 자주 얼굴을 비쳤다. 현대의 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또 봐도 예쁘다는 이유로 까임 방지 티켓을 쟁취하고 어머니들의 사랑마저 독차지했다. 칼 하나 대지 않은 아름다운 코가 자랑거리. 그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새벽씨'.

얼굴형
Hint 육덕계 아이돌의 에베레스트 MAXIM 화보에도 등장한 바 있는 그녀는 걸그룹 사이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글래머다. 얼마 전, 폭풍 다이어트로 몸무게와 함께 인기가 급하락하자 아차 싶었는지 최근 다시 보기 좋게 살을 찌웠다. 양 볼에서 턱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마치 순정만화 여주인공처럼 예쁘다. 그녀의 키워드는 '출렁'.

관상으로 풀어보는 걸그룹의 흥망

잘되고 안되는 덴 다 이유가 있지.



아이유

넓은 양 미간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며,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교제성이 나쁘고 혼기가 늦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콧구멍이 보이는 관상은 허영과 낭비가 심한 성격을 의미한다. 은혁 사건과 우영 꽃등심 사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도.



효린

눈썹과 눈 사이가 먼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며 재복이 있고, 이마의 주름이 뚜렷하면 인복이 좋다. 흔히들 촌스럽다고 평가 절하하는 팔자주름은 법령(法令)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뚜렷한 사람은 리더십이 좋다. 씨스타가 잘 되는 건 다 좋은 리더를 뒀기 때문일지도?



소희

넓은 이마는 활발한 사회 생활과 편안한 초년 운을 의미하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듯한 아치형의 눈썹은 신월미(新月眉)라고 하여 부귀를 누리는 상이다. 불살이 풍만하고 윤기가 있는 상은 예능감이 충만하며 인기가 좋다. 원더걸스에서 너 혼자 잘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원종근 : 음문문 '1'hr : '3 '0공 : 'E '10공 : '국

real watches **for** real people



AP610SWS AUTOMATIC

New York based watch brand, Arbutus,
Introduces a new range of mechanical watches in South Korea.
Targeted at entry level watch collectors in South Korea,
its perfect for the consumer who is just starting to
appreciate the craft of horology.
Arbutus's exquisite fully mechanical watches amalgamate
precision mechanical movements and sophisticated designs.

수입처 :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 www.globaltime.co.kr



ARBUS[®]
New York

눈을 보고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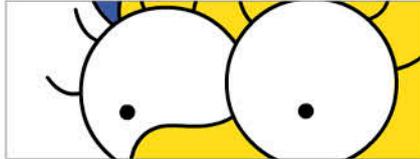
소녀시대와 현아, 전효성보다 2D가 좋은 당신이라면 이 정도는 껌이지?



EASY 이 정도는 감은 눈 보고도 맞출 수 있지.



세 친구 중 홍일점. 혼자만 초능력 없음.



허스키 섹시 보이스를 가진 애 셋 딸린 아줌마



술까 속눈썹 빼면 남친이랑 다른 게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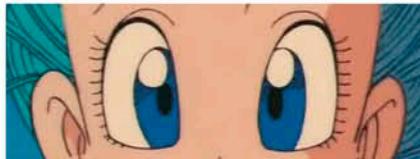


쫄꼬만 지지배가 배꼽티에 핫팬츠라니!

NORMAL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만화 본 사람은 안다.



주문 외는 사이에 언어 터질라.



우주급 파이터를 남편으로 둔 여자.



쫄쫄이 입은 여고생. X색은 표정으로 로봇에 올라타...



몸이 가끔씩 성숙해지는 바람직한 꼬마

HARD 양산형 눈갈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빠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덕후녀



사과 먹고 설치는 사기꾼 늑대녀



부끄럼쟁이 밴드부 베이스 소녀



교복 즐기기 문화의 선두주자

일본식 미소녀의 조건

그리고 미국 미녀는 더 이상 엘프가 아니라고...



눈은 반드시 얼굴의 1/4 이상
눈이 커야 예쁜 건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그래도 너무 커! 벌레 들어갈라.



콧구멍은 흥한 것
김연아, 아이유도 만화 속에서는 친발
신세다. 숨은 입으로 쉬는 거래도.



인종을 알 수 없는 모발
핑크색과 푸른색 모발은 어느 인종...
아니, 종족인가.





*혹박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행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지 않아요)



나인뮤지스 손승아 118th 2013. 03

Circus Maximus Noodle

라면 사리 대체품 BEST 4

여동생이 라면을 부대찌개에 사리로 서버렸다. 찬장에는 면발이 잃은 스프란 덩그러니 남아 있다. 어떻게든 라면을 먹고 싶은 당신을 위해 누들러가 과감한 오답을 제시한다! (실험에는 신라면 스프를 동일하게 사용했다)

 경고: 따라하지 마시오.



1위 냉면 사리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보다 못생긴 여동생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구입한 냉면 사리(사실은 1인분에 밥 한 공기과 맞먹는 칼로리). 우울한 기분으로 라면 국물에 던져보았다. 비리다. 찻집 매운탕에 모르고 떨어뜨린 회를 다시 건져 먹는 느낌. 냉한 면을 열한 국물에 넣어 먹는 것 자체가 삼라만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이었다. 그래도 다른 사리보다는 낫다. 냉면 면발은 라면 국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데다가, 들이킬 때 후루룩 소리가 나기도 한다. 물론 그래 봤자 병신 중 가장 나은 병신일 뿐.



2위 당면 사리

찬장을 열어보니 명절에 쓰다 남은 당면이 쓸쓸히 놓여 있다. 잡채, 누들러도 참 좋아한다. 과감하게 라면 국물에 투하했다. 생각보다 대단한 맛이다. 면발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살아 숨 쉬기 시작했다. 마치 벌레처럼! 고도의 젓가락 스킬로 힘겹게 건져 먹는 순간 내뿜고 싶어진다. 국물 맛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면도 쫄깃하다. 하지만 몹시 불쾌한 맛이 난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누들러는 굳이 이런 주제를 택해야 했느냐며 서로 욕하기 시작했다.



3위 우동 사리

냉장고를 열어 보니 마트에서 팩으로 구입한 우동 면발이 눈에 띈다. 과감하게 라면 국물에 투하 후 음미해본다. 참으로 한심한 맛이 난다. 국물 맛은 변함이 없지만, 우동의 굵은 면발이 매운맛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 전혀 흡사 인절미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느낌. 칼칼한 맛을 기대하며 면발을 목에 넣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숨 쉬게 됐다. 국물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스타보단 낫지만, 맛있는 건 매한가지. <먹거리 X 파일>의 이영돈 PD가 아니라면 도전할 이유가 없다.



4위 파스타

우리 동네 경비 아저씨보다 못생긴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위해 요리해주겠다고 구입한 파스타. 라면 국물에 넣어보았다. 프랑스 일류 레스토랑 수채 구멍에서 건져낸 밀가루 맛이 난다. 토마토소스에 비벼 먹을 때는 그렇게 고소하고 쫄깃하던 파스타는 사라지고, 필요 이상으로 생동감 넘치는 식감만이 남았다. 거기에 국물은 국물대로 느끼해진다. 몇 젓가락 먹고는 여동생에게 먹으라며 건넨다. 그녀가 음식을 먹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누들러에게 복수를 꿈꾸지 않는 이상 시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꿈의 용량 550mL 만드는 법

물을 많이 넣으면 싱겁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짜다. 하지만 당신은 늘 물을 조절에 실패한다. 대체 언제까지 라면을 끓일 때마다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전공공할 것인가. 누들러가 라면 취사 시 꿈의 용량이라 불리는 550mL 만드는 6가지 방법을 공개한다.

1. 커피 티스푼으로 231번



2. 아빠 숟가락으로 110번



3. 페트병 뚜껑으로 77번



4. 소주잔으로 11번



5. 어른 두 손 모아 7.3번



6. 종이컵으로 2.8번



결론
그냥 다이소에서 계량컵 하나 사라. 천 원이다.



SII ● Seiko Instruments Inc.

J.SPRINGS



* J.SPRINGS 직영점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2-640-5082
 신세계백화점(세종시점) 051-745-2297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042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79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75
 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 02-2639-1337

디큐브(신도림점) 02-2211-0149
 디큐브(가재동점) 055-680-0193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08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36
 엘기(대구점) 053-255-6940
 엘기(구미점) 054-451-6940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초이필(구미점) 054-613-1170
 타임피아(구미점) 054-253-8855

● 공식수입점 성원 02-3445-4603 www.j-springs.com

* 면세점
 인천관광공사면세점 032-743-2107
 제주관광공사중문면세점 064-780-7865
 신라면세점 02-2230-3997

* J.SPRINGS 전문점

AK플라자(분당점) 031-8023-2032

HOW TO

합격하면 MAXIM에
한턱 쓰셔야죠?

Office Life Tip

#4. 면접 잘 보는 법

디테일만 알면 합격과 불합격의 간극을
오카모토 초박형 콘돔 두께만큼으로
줄일 수 있다!



너무
섹시한
신입사원



브라 게스 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87-24148 PHOTOGRAPH ARC STUDIO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정
COOPERATION'S 기노 인터넷(02-514-0893) 슈즈원(02-3443-1703)

1. 면접은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된다

분명 면접은 훌륭했는데 자꾸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면 대기실에서의 태도를 돌이켜 보라. 면접관 앞에서 공자가 울고 갈 정도의 현답을 했다고 해도, 대기실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바닥에 침을 뱉었던 지원자는 뽑지 않는 게 당연하다. 대기실에서의 모습은 일사 후의 태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기자의 태도를 보는 회사가 많다는 걸 늘 염두에 두라.

2. 프락치를 조심하라

지원자라며 말을 걸어오는 면접자가 실은 회사 직원일수도 있다. 빈가운 마음에 면접 보러온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 면접 두 탕 뛰었다' 등의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다. 운이 좋게 입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짝 퍼져 있을 테니 험난한 회사 생활을 각오해야 할 거다.

3. 발가락의 움직임까지 신경써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면접에서 떨어진 요인이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답 내용은 면접 전형의 일부일 뿐이다. 면접상에 입장하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인사하는 자세, 표정, 심지어 퇴장하는 걸음걸이까지도 본다.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고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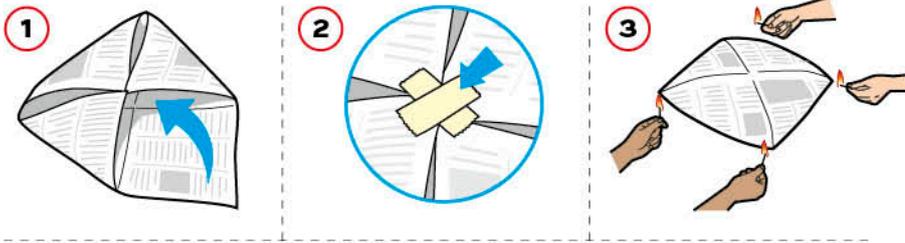
4. 인간미를 보여라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을 잊지 말라. 많은 구직자가 면접장에서 자신의 스펙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만 신경쓰는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다른 면접자의 대답을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답변을 할 때 재치나 인간미도 10% 정도 섞어 호감을 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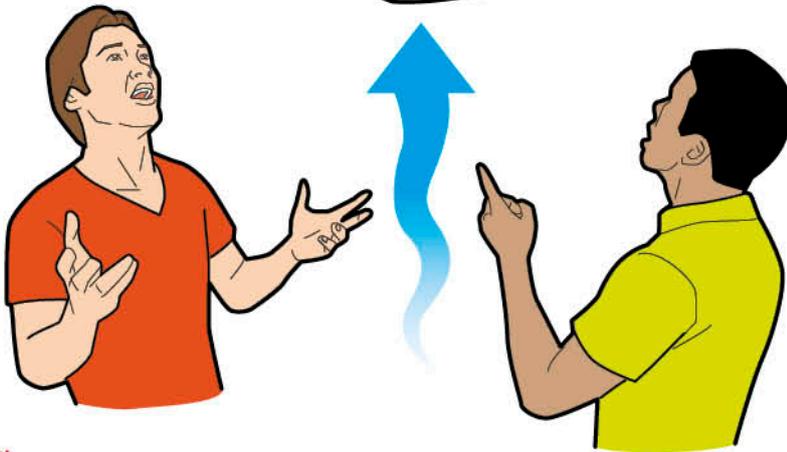
How To Use Paper Well

불타는 연 만들기

바람 없이 혼자서 훨훨 나는 연을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며 실수로 집 홀랑 태워먹고 징징대도 우리는 책임 없다.



잘 타네!
헤어진 여친 사진이라도
끼워 넣을 걸..



준비

- 찢어진 곳이 없는 퍼펙트한 신문지 1장
- 접착테이프
- 라이터 4개(또는 성냥)
- 마른 풀이나 나무, 혹은 주유소(!) 등 화재 위험 요소가 없는 빈 공터
- 예비용 소화기

1 그림과 같이 신문지를 접는다.

2 네 모서리를 고이 접어 가운데로 모아 겹친 후 테이프를 붙인다. 모서리가 최대한 비뚤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더 붙여도 된다. 다 만들었으면 연을 들고 춤을 추며 미친 농처럼 밖으로 뛰쳐나가자.

3 연에 불을 붙이려면 여러 명이 필요하니 잉여인력 두 명 정도를 데리고 가라. 테이프를 붙인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한 뒤 각 모서리에 불을 붙여라. 반드시 동시에 붙여야 한다! 잉여인간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4 여기까지 잘 따라했다면 연은 천천히 불타오르면서 약 10미터 정도 하늘로 올라갈 거다. 멀찌감치 올라간 연은 UFO처럼 보일 테니 주위 사람들에게 "화성인이 탄 UFO가 저기 있다야아아아"라며 빵을 치면서 짹짹 튀자.

MAXIM으로 칼빵 막는 법

살고 싶다면 정기구독 신청을 서두르자. 한 10권씩 사!



1. 거친 감옥살이를 하다보면 당신을 해하려는 자가 한두 명 씩은 꼭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신의 영원한 친구 MAXIM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MAXIM 두세 권을 겹쳐서 엮어라.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주 혹시라도 GQ밖에 없다면 두꺼운 잡지 한 권도 괜찮다.



2. 잡지를 몸에 부착할 테이프가 없다면 침대보를 이용해 당신의 몸을 잡지로 공공 싸매라. 교도관이 울룩불룩 튀어나온 당신의 몸을 보고 의심하지 않도록 너무 티 나지 않게 잘 가려라.



3. 사람들은 보통 가슴당하기 쉬운 옆구리나 등 쪽만 보호하기 마련. 하지만 거시기에 담금질을 당해서 고자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면 아랫도리에도 잡지로 덧대어 철저히 방어하자. 만약 잡지가 한 권 밖에 없다면 가장 노출되기 쉬운 가슴과 복부를 보호하라. MAXIM 정기 구독 신청은 02-323-1182...

BUILD YOUR OWN LEGACY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 - 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촌동 926번지 Square 2F
- 수원매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지 AK PLAZA 2F

NEWERA RETAIL PARTNER

- LESMORE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1F
- LESMORE 명동점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51 - 16번지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How To

Massage

여친 가슴 키우는 법

오빠 손은 약~손.



가슴 마사지 시연 영상



작은 가아~숨을 모두 모오~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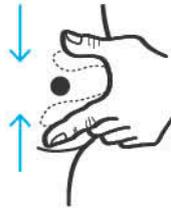
1 가슴 사이즈 키우는 마사지



1. 겨드랑이에서 가슴 아래쪽을 지나 가슴 중앙.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동글게 마사지하면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 한 번 할 때마다 10회 정도 반복하는 게 좋다.



2. 겨드랑이 쪽 살을 손바닥을 이용해 가슴 중앙 쪽으로 모은 뒤 가슴 주위를 돌아가며 바깥쪽 살을 안쪽으로 모아준다. 그러면 퍼진 가슴이 안으로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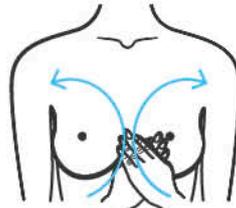


3. 가슴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충분히 만져준다. 엄지와 검지로 유두에서 손가락 두 마디 떨어진 곳의 위와 아래를 감싼 다음 바깥에서 안쪽으로 모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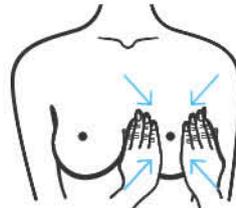
2 예쁜 가슴 만드는 마사지



1. 팔을 그림처럼 교차해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어깨 쪽으로 쓸어내린다.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알아서 해줄게.



2. 양손을 포개어 교차시킨 다음 가슴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며 쓸어 올린다. 왼손은 오른쪽 가슴에, 오른손은 왼쪽 가슴에.



3. 양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듯이 마사지하다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가슴 전체를 꼬집으며 튕겨준다. 어때, 좋았어?

3 가슴 자극하는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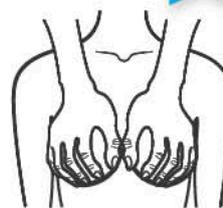
서비스 기사!



1. 한손으로 어깨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양쪽 유방 사이를 원을 그리며 쓸어 내린다. 동글게 문지르면서 올라온다.



2. 전체적으로 8자 모양을 그리며 움직인다. 손이 겨드랑이 쪽에 가게 되면 아랫부분을 위로 살짝 잡아당긴다.



3. 양손을 양쪽 유방에 밀착해 손을 오므리며 감싸 친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 게임 오버.

가슴 커지는 습관 10

잘라서 여친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두자.

1. 남친에게 만져달라고 한다

옥시토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2. 단백질과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근육과 지방은 가슴을 풍만하게 만든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으면 가슴부터 빠지는 이유가 바로 지방과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3. 석류를 먹는다

가슴을 풍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다.

4.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구부정한 자세는 가슴이 처지고 배도 나오게 한다. 등과 허리를 곧게 펴라!

5. 심심할 때마다 가슴을 만진다

남자가 만져주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아쉬운 대로 혼자 해야지 뭐.

6. 녹차, 속지황, 백작약, 당귀 같은 한약재를 달여 먹는다

가슴 발육에 효능이 있다.

7. 샤워 마지막 단계에 찬물로 씻는다

몸이 뜨거울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탄력이 떨어진다.

8. 몸에 맞는 브라지어를 착용한다

크거나 작은 브라지어는 가슴 모양을 망치거나 처지게 한다.

9. 똑바로 누워서 잔다

엎드리거나 옆으로 자면 유방의 지방이 함께 움직여 가슴이 벌어지거나 처질 수도 있다.

10. 가슴 크림을 바른다

가슴이 커진다는 이 가슴 크림의 효능은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걸 써본 MAXIM의 한 여성은 일시적인(?) 효과를 봤다고 한다. 밀제야 본전이니 일단 급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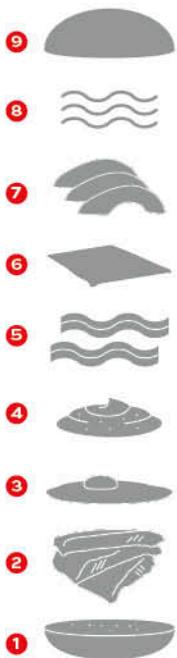




주의: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식욕이
확 솟구치는가? 아쉬운 대로
이 페이지를 뜯어 먹어도
상관없다. 다만, 종이에 입술을
베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궁극의 속풀이용 햄버거 만들기

술 마신 다음 날은 뜨거운 국물이 최고라고? 과음에 관해선 미국의
지상렬이라 불리는 애덤 리치맨과 함께 숙취 해소용 햄버거를 만들어보자.



1 밀 빵
가볍게 브리오슈 번(버터, 달걀, 설탕 등을 넣어 만든 프랑스 빵)으로 시작하자. 가염 버터를 바른 후 굽는다.

2 고기
미디엄-레어로 구운 양지 고기 한 조각. 삼겹살도 아니고 바싹 익히는 촌스러운 짓은 하지 말자.

3 달걀
그 위에 반숙 달걀 프라이 두 개를 얹는다. 반숙 노른자는 고환보다 쉽게 터질 수 있으니 조심조심...

4 양념과 소스
여기에 천일염과 신선한 후춧가루를 치고 고수 잎으로 만든 허브 소스를 끼얹는다.

5 베이컨
훈제 베이컨 두 줄을 반으로 잘라 네 장을 만든다. 반드시 두툼한 베이컨을 사용할 것. 종잇장 같은 베이컨은 개나 쥐라.

6 치즈
베이컨 위에 아메리칸 치즈와 체더치즈를 녹인다. 지들끼리 알아서 잘 엉겨붙는다.

7 아보카도
잘 익은, 미친 듯이 부드러운 아보카도를 찹찹 찹 슬라이스해서 올린다. 그 위에 천일염을 살짝 더 뿌린다(너무 많이 뿌리면 짜).

8 핫 소스
평소 자장면에도, 피자에도, 햄버거에도 감치를 찾는 김치맨이라면 감치 대신 핫 소스를 한두 방울 넣어보라.

9 덮개 빵
햄버거를 쥐어짜듯 잡고 아래로 눌러준다. 적절한 힘의 배분이 포인트. 잘 모르겠다면 여친 가슴 만질 때의 느낌을 떠올려라. 아까 올린 두 개의 반숙 노른자가 다른 소스와 섞이면서 베이컨과 쇠고기를 코팅한다.

10 사이드 메뉴
성인 남자 가운데 손가락만 한 굵은 감자튀김. 빵 속에다 넣겠다고 오버하지 말자. 곁들어 먹는 게 훨씬 낫다. 마지막으로 콜라. 이왕이면 풍성한 컵에 담긴 걸로. 피자집에서 쓰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에 담으면 어쩐지 더 맛있잖아!

2013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미스 맥심
바로 가기



2012 MISS MAXIM TOP 4
왼쪽부터: 김수아, 우승자 단영, 최현아, 준우승자 엄상미

-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MAXIM 스태프와 함께 하는 멋진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기회!
- 2013 총 상금 6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온라인 예선 통과 시, MAXIM 월간 매거진 화보 촬영
- 8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 발탁
- 우승 시, 2014년 MAXIM 월간 매거진 표지 모델로 선정 (1~12월호 중 하나)

참가 신청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 맥심 참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매력을 잘 표현한 사진 10장 이상을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씁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콘테스트 진행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1 인기투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약 열흘 간의 대결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승리하는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화보 촬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화보는 다음 달 MAXIM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강부터는 상금이 더욱 커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랍니다!

문의

e-mail: missmaxim@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MISS MAXIM in the World

MISS MAXIM의 인지도는 싸이급이다! 호주 MAXIM이 <올해의 한국인>으로 1위 사이에 이어 2011 MISS MAXIM 우승자 이명희 양을 2위로 선정했다! 3위는 북한의 김정은. MISS MAXIM 이명희의 매력에 외국인도 푹 빠졌으니, 이제 당신이 세계에 매력을 발산할 차례다. 어서 도전하라!

Once in a Blue Moon 밀맥주 맛있게 마시기

서울대 얼짱 지주연에게 밀맥주를 먹었더니 “한잔 더!”를 외치더라. 예쁜 여자가 좋아하는 맥주니까 다들 참고하라고!

블루문
355mL, 5.4%

1 여자들은 밀맥주를 좋아한다?

라거 맥주에 비해 고소한 꿀 맛 때문일까? 아니면 은은하게 퍼지는 과일 향 때문일까? 여자들은 유독 밀맥주를 좋아한다.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와 편에 간다면 그녀에게 라거 맥주 대신 밀맥주를 추천하라.

응용하기: “우리 주연인 술 잘 못 마시니까 달달한 밀맥주로 할까? 안주는 오빠 입술.”

2 벨기에만 밀맥주 만드는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밀맥주는 ‘호가든’.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밀맥주는 울슨 쿼스사의 블루 문이다. 초반에 라벨에 ‘벨지안 화이트’라는 문구를 쓰면서 출신 성분을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바람에 이에 격분한 벨기에 양조자협회와 법원조정신청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네 고향이 쌀국인게 그렇게 쪽팔리든?

응용하기: “오빠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즐겨 마시던 맥주야. 저스틴 비버랑 음악 얘기하면서 잔을 부딪치곤 했지.”

3 밀맥주는 봄소풍에 어울린다?

요즘처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그녀와의 봄소풍에 청량음료 대신 밀맥주를 챙겨보자. 호가든, 블루문 등의 밀맥주를 양조할 때는 오렌지 껍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모금 마시면 향긋한 오렌지 향이 입안 가득 퍼져 과일 디저트와 특히 잘 어울린다. 참고로 블루문은 호가든보다 탄산이 강한 편이고 더 달았다.

응용하기: “음, 좋은 향기 난다. 맥주 말고 너한테서.”



지주연이 알려 주는 밀맥주 맛있게 먹는 방법

“코로나 맥주에 레몬 조각을 곁들이는 것처럼, 밀맥주는 오렌지와 함께 마시는 게 좋아요. 즙을 짜 넣어도 좋고, 아니면 얇게 슬라이스한 오렌지를 띄워 먹어도 맛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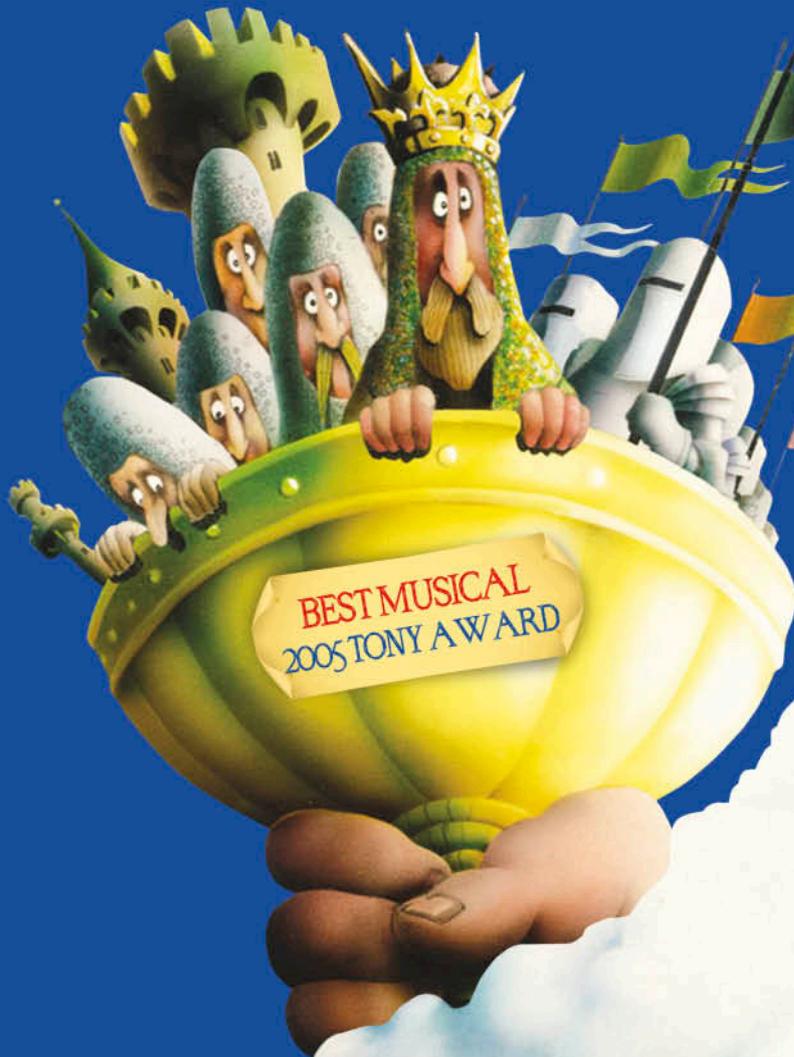


시계 게스워치



OD Musical Company and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뮤지컬!



MONTY PYTHON'S SPAMALOT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뮤지컬 스팸어랏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서영주 정준하 이영미 신의정 윤영석 고은성 김 호 정상훈 이훈진 정철호 조형균 공민섭 박경동 윤민우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SPAM LOUNGE 후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처 인터파크 오픈리뷰 옥션 예스24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from the original screenplay by Graham Chapman, John Cleese, Terry Gilliam, Eric Idle, Terry Jones, Michael Palin

History

麥心 대영제국의 킹왕짱훈장 가터훈장!



The Order of the Garter



가터훈장의 '가터'
라는 단어가 웬지
신경쓰이십니까?



○○.
가터벨트의
그 '가터' 맛음!



14세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솔즈베리 백작부인과 춤을 추는데-

Do the
harlem
shake ♪



백작부인의 가터벨트가 흘러
떨어졌다!

사람들이
음흉하게
낄낄거리자-



왕은 그 가터벨트를 주워
자신의 다리에 착용하며-

Honi soit qui
mal y pense
(악을 생각하는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여!)

-라고 사람들을
꾸짖었다.



에드워드 3세의 이런 기사도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터 기사단을
창설하게 되었으니- 가터 훈장은 그 가터 기사단의 단원증임.

전하의 고결한 미담을
두고 두고 기념하기
위한 기사단 창설을~

기념할 일이
그렇게 없었냐?!!

신하들이 죄다
아침꾼들밖에
없었구만!!



흑태자

최초의 가터 훈장사는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인
흑태자 에드워드.

가터 훈장 수여식에서는
실제로 가터벨트를
착용시킨다!!



UK
가터벨트
C마켓
₩35,000

아시아에서는
히로히토 천황이
젊은 시절에
가터훈장을
받았는데-

스고이요~



나중에 전쟁 일으킨 죄로 박탈당함.

히도이요~

팬티스타킹이나
신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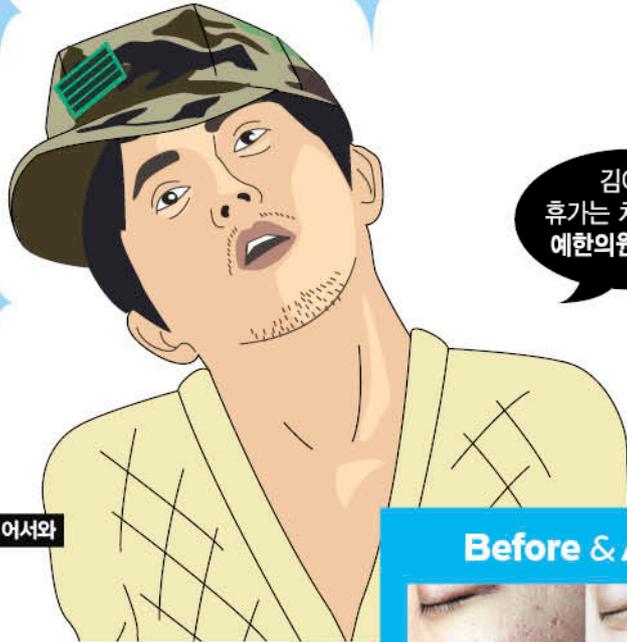


근데, 백작부인이 떨군게 가터벨트가
아니라 고무줄 꿰어진 팬티였으면
'팬티훈장'이 될 뻔했다는 거네?

아쉽다

김병장의 꿀광나는 오빠 피부 만들기!

휴가는 다가오고, 여드름은 깊어가고, 걱정이 태산이라면?



김이병 휴가는 처음이지? 예한의원 다녀와

휴가를 앞둔 김병장의 고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세상에 불필요할 것 같던 눈을 당분간 쓸지 않아도 돼 좋을진 몰라도 환절기 탓에 피부에 열꽃이 피었다. 또 군장하고 행군하고 워장크림을 푹푹 바르다 보니 여드름 흉터가 더 심해졌지 뭐야. 그래도 입대 전에는 나름 괜찮은 피부였는데, 정말 군대라는 곳이 오빠로 들어갔다 아저씨로 나오게 하는 곳이었다니(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기다려온 휴가는 점점 다가오는데 걱정부터 밀려온다. 입대 전부터 날 따라다니던 여자 사립과 휴가 나와서 데이트하기로 약속했던 말이지. 하지만 여드름 때문에 엉망이 된 피부를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다. 연애를 하려면 남자도 피부 정도는 가꿔줘야 한다고!

꿀피부는 용서가 된다고?

얼마 전, 아는 여자 사람이 요즘 마스크를 아주 핫하게 만든 박시후 형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시후 형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을 TV로 보고서는 "그 와중에도 질생겼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거지. 시후 형의 자체 발광에 죄가 진짜

말년병장 어서와

있다고 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나 뭐라나.. 근데 나도 그 형을 보니까 진짜 눈, 코, 입 뭐 하나 콧집어서 어디가 질생겼는지 찾진 못해도 피부만큼은 빛이 난다는 건 인정하겠더라고. 여자든 남자든 피부 하나만 질났어도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 살아가는 데에도 참 편하지 않을거야.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니 웬 멍게 하나가 울상을 짓고 있었지. 흑흑.

여드름 때문에 영혼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MAXIM 이 준비했다. 군대 휴가를 맞이해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필살 비법, SL 흉터재생술! 더 이상 여드름 피부를 방치하지 말고 휴가 나온 기간 동안 꿀광 피부 만들어서 더 폼나게 제대해보자!

Before & After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이 말하는 꿀광 피부 비법 대공개!

Q. 꿀광 피부를 위해 SL흉터재생술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A. 피부 트러블의 90% 이상은 여드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드름 흉터는 깊이나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흉터 하나하나 치료를 달리 해야 합니다. 여드름 흉터의 맞춤형 치료를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SL 흉터재생술입니다.

Q. SL흉터재생술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

A. 쉽게 말하자면 SL흉터재생술은 흉터마다 방향과 깊이를 달리해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시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락셀이나 기존 MTS 시술처럼 흉터 전체에 자극을 주는 시술과 다르죠. 또 SL흉터재생술에 쓰이는 생약 재생 물질 SL109는 체내 콜라겐 성분을 자극해 기존 치료법보다 2~3배 많은 새살을 만들어냅니다.

Q. 휴가를 이용해 치료가 가능할까요?

A. 군인들이 보통 일주일 휴가를 받는다면 휴가 기간에 시술 및 피부 재생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SET 시술만으로 피부의 새살이 50% 이상 차오르기 때문에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술을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Q. 군인들이 참고할 만한 손쉬운 관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A. 군인이라면 숙면을 취하지 못 한다거나 훈련,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워장크림을 바르기 전에는 저의 한의원에 있는 예피고와 같은 크림을 먼저 바르신 후 워장크림을 바르면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같은 사소한 피부 관리 부분 하나부터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말 주신 분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카리스마> 저자
- 前 대한스모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강사
- 예스킨이카데미 공동 대표

Outdoor Sextip

숙박료 제로, 스릴은 100만 점인 섹스에 도전하라! 어디가 제일 스릴 넘쳤다면...

차

침대가 아닌 곳에서의 첫 섹스는 그의 차 안에서였어. “우리 심심한데 드라이브나 할까?”라며 나를 불러낸 그는 한강 카페로 차를 들렀지. 차를 세워놓고 한강 다리 위에 있는 카페에서 병맥주를 마셨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은 예술이었고, 나는 그가 무슨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지. 카페에서 나와서 우린 다시 차로 갔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운전석으로 건너가 그의 위로 올라갔어...

Editor's Guide 솔직히 드라이브 하자는 연락이 오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간다. 하지만 곧장 한강으로 가거나 파주, 장흥, 북약스카이웨이로 가는 건 너무 속보여서 별로다. 카섹스를 하고 싶다면 그 전에 자동차 극장이나 한강 카페 같은 곳을 둘러 그녀의 기분을 로맨틱하게 만들어라. 분위기를 조성한 이상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계단

그 다음 장소는 계단이었어.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랑 같이 술을 마셨지. 술을 마시다보니 어느새 키스를 하고 있더라? 그는 내 손목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택시를 잡나 했는데 근처 빌딩으로 데려가더라고. 새벽 두 시쯤이었으니 건물에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조그만 건물이라 관리인도 없었어.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했어. 선 채로, 나는 벽을 잡고 그는 내 뒤에서, 그거 굉장히 흥분되더라. 근데 한참 하다 고개를 드니 3층에 불이 켜져 있더라? 술집인 것 같았는데 혹시 누가 내려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우린 멈출 수가 없었지.

Editor's Guide 클럽이나 술집에서 막 달아올랐는데, 그날이 금요일이고 계다가 방이 없을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면 근처 건물로 직행하는 편이 낫다. 택시 잡고 모텔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빈 방을 찾아 헤매다보면 달아올랐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큰 건물은 잠겨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경비도 심엄하다. 조금 허름해 보이는 건물을 공략할 것. 물론 요즘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 편이 좀 더 마음이 놓이지 않나? 사각지대를 잘 찾아보길. 아, 계단은 좀 식상하다고?

놀이동산

사귀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와는 놀이동산에 갔어. 그뻐 아직 서로 손만 잡아도 설레는 시기였지. 대낮부터 놀이동산 데이트를 하니 두근두근,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니 심장이 쿵쿵쿵. 그렇게 설렘 수가 없더군. 마침 평일이었고 방학도 아니라서 놀이동산에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 당연히 화장실 안도 텅텅 비어있었지. 그러려고 화장실에 간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길래 그를 안으로 불렀어. 그렇게 우리는 첫 섹스를 꿈과 희망의 나라에서 했지.

Editor's Guide 놀이동산에서의 섹스라... 상상만 해도 가슴 뛰고 풋풋하고 설렌다. 평소에 공공화장실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거나, 그녀가 마다할까봐 못했다면 놀이동산으로 가라. 참고로 놀이동산은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될 때 가장 한적하다. 방학 시즌을 피할 것. 할인 기간을 피할 것. 평일 낮에 갈 것. 그리고 인기 없는 놀이 기구 근처 화장실이 제일 한산하더라.





SWORD GIRLS

인조흡혈신

TRADING CARD GAME



소드걸스 TCG 인조흡혈신 부스터 박스



예약특전 프로모션 카드



박스구매특전 프로모션 카드

부스터 팩 5개
증정 쿠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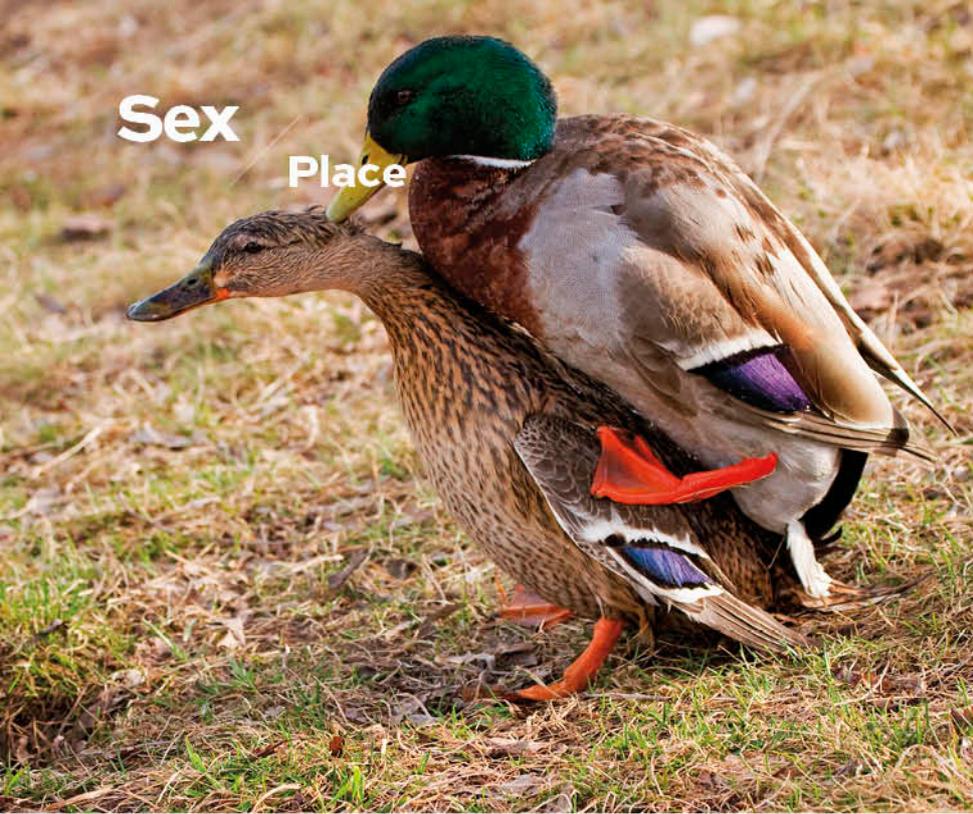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소드걸스 TCG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sg-tcg.com
2013년 6월 30일까지

3월 하순, 새로운 소녀들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소드걸스 TCG 공식홈페이지 <http://www.sg-tcg.com>

Sex Place



비행기

남자친구와는 처음 가보는 해외 여행이었어. 게다가 밸런타인데이였지. 남친과 나는 손을 꼭 잡고 맥주를 한 캔씩을 마셨어. 그가 내게 컷속말로 “오늘따라 더 예쁘네”라고 말했다. 그때 그의 눈을 봤어. 그건 ‘하고 싶다’는 눈빛이었지. “하고 싶어?”라고 조용히 물었어. 그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서 나는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만 한 목소리로 “오빠, 나 토할 것 같아”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그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우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지. 하늘 위에서의 섹스... 그건 앞으로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Editor's Guide 일단 화장실이 가장 덜 붐빌 시간을 노려라. 개인적으로는 기내식이 나올 때를 추천한다. 비행기 안에서 가장 시끄럽고 분주한 시간이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가장 적을 최적기다. 들키지 않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중요하데, 사실상 화장실 출입을 안 들키는 건 어렵다. 그녀가 멀미하는 척 하고 당신은 주위에 들리게 “괜찮아?”를 연발하며 그녀를 부축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면 된다. 나올 때 그녀가 아픈 척을 하며 승무원에게 묻는 한 잔만 달라고 요청하면 아무도 눈치 못챌 거다.

Q. 공공장소에서의 섹스, 불법인가요?
서로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지나친 스킨십은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포옹이나 키스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 들리게 하면 괜찮다는 건가?

공원

날씨가 정말 화창한 날, 남자친구와 OO 시민의 숲에 놀러 갔어. 평일 낮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지. 한참 걸어가다 보니 숲 속에 벤치가 있었어. 그가 벤치에 앉더니 나를 다리 위에 앉히더라? 그리고 그 자세로 섹스를 했어. 마침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일이 한결 수월했지. 혹시 누가 멀리서 봤더라도 그냥 남친 다리 위에 앉아 있는 줄 알았을 거야.

Editor's Guide 여자들이 야외 섹스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섹스는 누워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섹스 경험이 적은 여자일수록 그렇다. 하지만 섹스도 옷처럼 시간, 장소, 상황(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다양한 체위가 존재하는 법. TPO에 맞는 체위를 사용하기만 해도 당신은 무조건 잘하는 남자가 될 수 있으니 침대 위에서 조금 자신이 없었던 아예 이쪽으로 아랫도리를 특화시켜 보는 것도 좋을 듯.

주차장

아는 오빠와 술을 마셨어. 평소 그 오빠를 보면서 “저 남자랑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술집에서 나와 그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마침 그도 나에게 “오늘 같이 있을까?”라고 하지 뭐야. 젠장, 하지만 그날은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 못내 아쉬워서 우린 근처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갔지. 원래는 키스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하고 있었어. 하다보니 내 바로 위에 1층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 늦은 시간이라 창문에 불은 다 꺼져 있었지만 분명 소리가 들렸을 거야.

Editor's Guide 주차장은 누구나 한번쯤 꿈꿔본 섹스 스팟일 거다. 주차장에 그럴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해 할텐데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은 들릴

위험이 높고, 새벽에 5층짜리 높이의 원룸 주차장에 가면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없고 굉장히 으스스하다. CCTV가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원룸은 큰 규모의 주차장처럼 실시간으로 누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경합상 CCTV는 보통 입구 쪽에만 설치돼 있는 곳이 많더라.

해변

미국에서 잠깐 살았을 때 친구네 커풀리앙 해변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어. 처음으로 가보는 미국의 해변이라니. 우린 바비큐를 해먹으며 술을 마시며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뛰어다녔지. 그곳은 정말로 멋졌어. 미드에서나 보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 뭐야. 속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애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개랑 틀이 남게 되었어. 칠혹 같은 어둠 속이었어. 그땐 우리 둘 말고 아무도 없었지. 우린 그곳에서 그대로 섹스를 했어. 그런데 섹스가 끝나고 보니 우리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더라? 해변가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어. 원호대사가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고 나서 했던 말,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뜻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지.

Editor's Guide 해변에서의 섹스는 로맨틱하기 그지없지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다. 모래나 풀숲이 있는 곳에서의 섹스 후 방광염에 걸리거나 재수 없으면 찌프가무시에 걸려 개고생하기 쉬우므로 신문지라도 깔고 하는 게 좋을 거다. 근데 막상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잘 안나. 그치?

소극장

대학생 때 외무활동을 하다 알게 된 연하남이 있었어. 그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 어느 날 공강 시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일하는 소극장에 놀러오라고 했어.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고, 다음 수업까지 딱히 할 일이 없어 놀러갔지.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연하남은 아무도 없는 소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줬어. 그리고 “누나,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는 귀여운 고백을 받았지. 그렇게 사귀게 된 첫날에 우린 무대 뒤편에서 섹스를 했어. 관객석 의자가 다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짜릿했어. 게다가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흥분됐어. 모르지, 진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Editor's Guide 소극장 무대 뒤편에는 의외로 숨겨진 공간들이 많다. 게다가 텅 빌 때도 꽤 많다. 같은 일이라도 극장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왠지 더 로맨틱해 보인다. 고백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소극장 알바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꽃 한 송이를 쥐고 무대 위에서 주면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로 여겨지는 법이니까. 그러다 분위기 타면 공강 무대 뒤로 그녀를 끌고 가는 거지 뭐. ☺



지 상 최 대 파 이 트 쇼

다시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다

Fist of Legend
전실의 수막

황정민 유준상 윤제문 <살미도>공공의적<아끼> 강우석 감독

4월 대개봉

영화
예매권을
쏟다!



제1914호(영화) 제1914호(영화) 제1914호(영화)

Comment

ACTOR OF
THE MONTH

황정민 악마를 연기하는 남자

〈달콤한 인생〉의 백사장에서 〈신세계〉의 정청까지, 황정민은 대한민국에서 악역을 가장 맛있게 연기하는 배우다.



송강호, 설경구, 김명민, 김윤석, 황정민 등.. 대한민국에도 이른바 메소드 연기파 (극 중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한 극사실주의 연기) 배우가 있다. 그러나 서 있는 자점은 조금씩 다르다. 우리는 송강호의 연기에서 '해학'을, 김명민의 연기에서는 '간절함'을 본다. 김윤석의 연기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설경구의 연기는 '마초적'이다. 황정민의 연기는 '지독'하다. 그리고 그의 지독함은 악역 캐릭터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

그는 영화 〈바람남 가족〉에서 폭력적이고 오만하고 비열한 남편이었다. 꼭 맞는 옷을 입은 듯 자연스러운 이 남자의 말투와 행동은 감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불편했다. 연기가 아니고 정말로 저렇게 태어난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주연배우의 반열에 오를 만큼 관객에게 호감을 사는 배우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고 했던가? 사랑밖에 모르는 순박한 시골 총각을 연기한 그는 영화 〈너는 내 운명〉으로 뺨 뚫고, 그 기세를 이어 '밥상' 수상 소감으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톱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면만 기억하는 관객은 지금도 그를 옆집 아저씨 같은 구수한 이미지로 생각하겠지만 에디터가 본 황정민은 대한민국에서 '악마'를 가장 잘 연기하는 배우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은 초강력 신스틸러였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찢어진 입으로 씨익 웃는 '백 사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인 그 자체였다. 지난 2월 개봉한 〈신세계〉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진 그의 악역 연기를 보게 된다. 백 사장이나

〈신세계〉의 '정청'이나 강패인 건 매한가지이나 백 사장이 '내추럴 본' 나쁜 놈이라면 정청은 잔인하지만 부드럽고, 명청해 보이니 주도면밀한 입체적 인물. 황정민 역시 "정청이 백사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신세계〉에서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춘 최민식은 "건달이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면 낯살 뜨게 마련인데, 황정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호평했다. 황정민은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액션 장면 촬영 중에 "선배님,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외치는 상대 배우를 공격하기도 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만큼은 그냥 그 인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다.

4월, 그의 새 영화 두 편이 연달아 개봉한다. 강우석 감독이 연출한 〈전설의 주먹〉과 민규동 감독의 〈끝과 시작〉이다. 〈전설의 주먹〉에서는 학창 시절 잘나가는 주먹이었지만 지금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흠아비를, 〈끝과 시작〉에서는 아내의 친구와 가학적인 사랑에 빠져 드는 불륜남을 연기한다. 극과 극의 캐릭터를 넘나드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고 있노라면, 연기 스펙트럼에 대한 배우 황정민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고픈 황정민은 따로 있다. 전 세계 네티즌이 '할리우드 최고의 악역'에 〈다크나이트〉의 조커 히스 레저를 1위로 꼽았다. 그가 파괴 자체를 즐기는 순도 100%의 악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한국판 〈다크나이트〉가 개봉한다면 어떨까? "Why So Serious?"라고 말하며 찢어진 입으로 씨익 웃는 조커 역에 황정민보다 잘 어울리는 배우가 또 있을까? 그의 연기를 통해 백사장-정청을 잊는 또 하나의 지독한 악마를 보고 싶다. 🍷

What's Next?



〈끝과 시작〉의 불륜남 재인 / 4월 4일 개봉 예정



〈전설의 주먹〉의 국수집 사장 임덕규 / 4월 11일 개봉 예정

황정민
명연기
TOP 5



씨버, 브라더

MAXIM Survey

한국판 <다크나이트>를 만든다면 '조커'役に 가장 잘 어울릴 배우는?
현재 MAXIM 홈페이지에서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스코어는...



No.1 최민식
29%



No.2 황정민
26%



No.3 박시후
13%



김윤석
10%



송강호
10%



이병헌
7%

투표 기간: 2013년 3월 16일 ~ 진행 중



중독성 썰는 팟캐스트 BEST 3

<나꼼수>밖에 모르는 당신을 위해 에디터가 추천한다.
개네 방송 관동 지가 언젠데!



※ 팟캐스트(PODCAST)란?

팟캐스트는 아이팟(iPod)의 Pod과, 방송을 뜻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단어다. 독립 제작자가 자신만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 웹에 올리면, 청취자가 아이튠즈 같은 팟캐스트 구독 소프트웨어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1위 씨네타운 나인틴-풍문으로 듣는 방송 분야: 영화

SBS 라디오 PD 3명이 영화를 보고 썰 푸는 방송. 진행자들이 PD니까 고상하고 지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1990년대 초반 학번의 중년 아저씨들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나눌 법한 음담패설이 대화 도중 특출 튀어나온다. 이 방송의 백미는 일명 '짤짤잔나 안 잔나' 코너. 영화 <간혹학개론>의 서연(수지)은 입서방(유연석)과 짤까 안 짤까,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캣우먼은 하원 의원과 짤까 안 짤까 등의 주제를 놓고 침을 튀어가며 저마다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는다. 듣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게 되... 역시 음담패설은 유부남이 진리.

2위 BOILER ROOM 분야: 음악

이름처럼 보일러실 같은 어둡어두운 클럽에서 열리는 유럽의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쇼. 라디오 헤드의 톰 요크, 에리카 바두 등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개성있는 디제잉을 즐기는데, 이 무대를 모두 비디오 팟캐스트로 감상할 수 있다. 이 쇼는 특이하게도 디제이 부스가

없다. 심지어 디제이들이 헤드셋도 안 쓴다. 그저 관객과 한 공간에서 음악으로 물아일체될 뿐이다. 그 모습을 감상하는 재미도 재미지만, 가끔 술 취한 민폐남이 턴테이블을 건드려서 음악이 갑자기 꺼지는 해프닝도 구경할 수 있다. 유럽의 클럽에 가보고 싶지만 총일이 없는 당신. 이 팟캐스트를 구독하면서 그 기분만이라도 느껴보는 건 어때?

3위 개해서 매뉴얼 분야: 잡학

부산에 사는 네 남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모두 걸쭉한 부산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타향에서 향수병 걸리기 일보 직전인 부산녀, 혹은 에디터처럼 경상도 사투리 페티시가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무엇보다 부산 사람만이 아는 깨알 같은 팁을 얻는 재미가 쏠쏠하니 부산에 놀러 갈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도 강추. 예를 들어 '밀면 투어' 편에서는 평소 부산의 밀면집 30곳을 돌아다니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콤한 밀면의 원조 격인 '가야밀면'의 시대는 갔고 '개곰밀면'의 시대가 왔다"는 결론을 도출해준다. 여친과 부산 여행에 갔을 때 "밀면은 말이야..." 하며 이는 척하기에 좋잖아?

<씨네타운 나인틴>의 말! 말! 말!

레전드 섹드립 에피소드를 꼽았다.

11회 <다크 나이트 라이즈> 편
이재익 PD 놀런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익 PD 천재는 천재인데, 돈에 감사할 줄 아는 천재. 자신의 천재성에 대가를 지불한 투자자들에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재익 PD 신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나요?
이재익 PD 예술 영화 한답시고 그거 안 지키는 사람도 많죠. 상업 영화는 기본적으로 본진 찾을 생각 하고 만들어야죠. 딸말이 치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22회 '배우 김윤석' 특집
 (아무리 명배우라도 좋은 작품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별로인 작품을 좋게 바꾸는 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던 중)
이재익 PD 그럼 배우 김윤석의 작품 중 최악의 망작은 뭘까요?
이재익 PD 작품만으로 보면 제일 떨어지는 건 <거북이 달린다>죠. 사실 이견 죽은 지식 불알 만지기였는데, 이 경우는 만지다 보니 자식이 살아남 거제 CPR 불알 소생술!
김훈중 PD 이봐, 마성년자들이 듣고 있잖아!
이재익 PD 아, 피곤하네요. 게브랄티나 먹어야겠다.

34회 <레이저라블> 편
이재익 PD 팬틴과 장발장은 짤까요?
이재익 PD 짤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아프면 사람의 성욕이 불끈불끈 솟을 때가 있거든요.
김훈중 PD 그런 적 없어요? 편집하고 사를 밤을 지새우고 속작실에서 한 시간 눈 붙일 때 어딘가 불끈불끈 일어나지 않아요?
이재익 PD 큰일 날 사람이네.
김훈중 PD 사람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자기 종족을 번식시켜야겠다는 위기감이 드는 거죠.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재익 PD 팬틴이 병원에 누워 있는 장면에서 세트를 보면 하얀 천들이 드러워져 있어요. 그 매듭을 하나만 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안경 없는 부드러운 인상으로 그녀를 유혹하라!

모든 안경남에게 봄치녀 꼬시는 방법을 전수하겠다.



남자의 봄! 나는 인생

'봄'이라고 쓰기만 해도 봄 내용이 훑 끼치는 것 같았던 한 작가의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살랑이는 봄바람에 가슴 발렁거리는 MAXIM 독자도 꽤 있겠지? 특히 MAXIM 독자 중에는 생활관을 졸업하고 미팅과 소개팅으로 일주일 스케줄을 꽉꽉 채워가며 캠퍼스를 누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이제 막 입대를 결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물론 트레이닝복 차림에 <푸른거탑>을 보며 혼자 실실 웃는 사람, 아직도 이중 정회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거다). 하지만 황금 같은 청춘에 맞이하는 봄을 좀 더 폼나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당신 마음에 시베리아 북서풍이 불고 있다면?

봄은 찾아왔지만 아직도 마음 한 편이 시려오는 사람이 넘치고 넘쳤다. 연애 결심을 단념하고 MAXIM이 내 여자친구라며 스스로 위안해봤자 여친이 없는 건 없는 거다. 이제부터라도 방바닥만 긁는 생활은 청산하고 남들처럼 여친 만드는 데 열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 요즘 같은 날씨에 집구석에만 처박혀 지내기엔 내 청춘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지! 이제부터 봄 내용을 맡으려 바깥세상에 나온

솔로녀를 향해 돌진해보자. 그리고 글로만 배워온 밀당의 기술을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그녀를 향해 구애하자. 그녀가 봄기운 때문인지 당신 때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남자답게 딱 고백하는 거지. 이제 그녀가 싸 온 피크닉 도시락을 남남 먹으면서 봄별을 즐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자 없게 생긴 얼굴?

얼마 전, 지인 여자 사람이 아침 출근길 도중 지하 1층 PC방에서 자상으로 올라오는 한 남자 사람을 보고 본인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다. 이걸 뭐지? 신선하다. 더럽다, 사귀고 싶다가 아닌 진짜 여자 없게 생겼다니.. 그 여자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여자 없게 생긴 남자란 '관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온몸에서 더러움과 삶에 찌든 흔적을 내뿜는 그런 남자라고 한다. 나는 아니겠거니 하며 방심하기는 금물! 진짜 여자 없게 생긴 남자는 잘생기고 못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난 지 3초 안에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그냥 여자

연애가 뭐가여?
먹는건가여?



없게 생긴 남자인지 구분한다니까?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 바로 눈빛! 여심을 뒤흔드는 강렬한 눈빛을 갖춘다면 당신도 이제 솔로 탈출이다. 혹시 안경남이라면 지금 당장 당신의 눈빛을 차단하는 안경과 이별하자. MAXIM이 안경과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다.

도와줘요, Dr. Kim~!

MAXIM 공식 훈남 의사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원장, Dr.K가 말한다!

MAXIM 마니아에게는 익히 소문난 그 배우 지인화를 달은 환철한 외모에 의사라는 직업까지 갖춘 엄친아 (중중 여성 환자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는 소문이), 누가 봐도 모든 남자의 공공의 적! 하지만 다행(?) 애가 돌인 유부남이라는 거~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ID: 돌쇠>

사실 안경 낀 제 모습이 스마트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더 멍청해 보인대요. 저처럼 인상을 바꾸려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나요?

↳ <Dr. Kim>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안경을 선택하면 인상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바꾸기 위해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남성이 많이 늘었고요. 돌쇠님도 안경을 벗으면 한결 인상이 부드러워 보일 겁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한 후 인상이 바뀌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의사인 저도 가끔 깜짝 놀라요.

<ID: 다꿨다아이유>

제가 군대 있을 때 헌혈도 피할 만큼 주삿바늘에 대한 공포가 심해요. 혹시 라식이나 라섹 수술할 때 주사를 놓나요?

↳ <Dr. Kim>

일단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에서는 마취를 주사가 아닌 안약 점안으로 합니다. 이제 주사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셨나요?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ID: MAXIM짱>

수술하고 며칠이나 요양해야 합니까? 밤공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순정남입니다.

↳ <Dr. Kim>

시력 교정 수술은 라식, 라섹이 대표적인데요, 라식 수술은 수술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바로 잘 보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라섹 수술은 평균 2~3일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밤공기 없이 못 사는 MAXIM짱! 이것도 엄연한 수술이라서 눈에 충분한 휴식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Comment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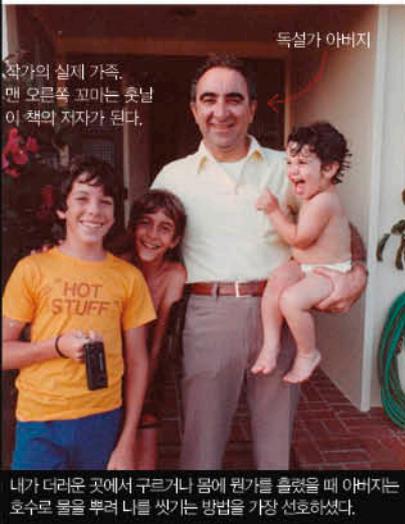
병신 같지만 멋지게

정말 병신 같지만 멋진 제목이다.



〈병신 같지만
멋지게〉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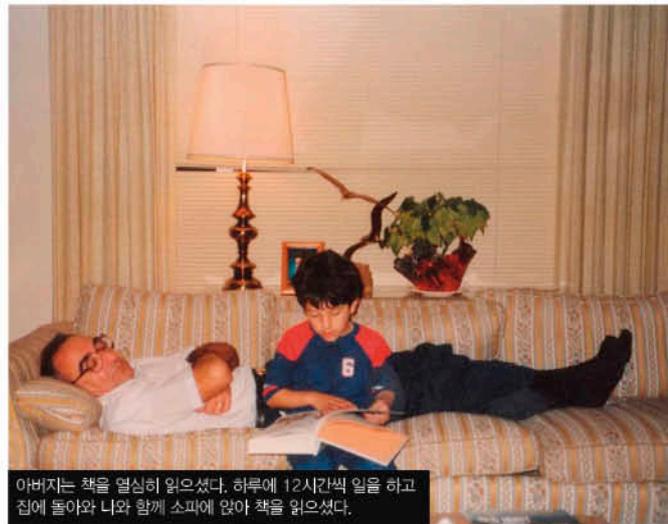
독설가 아버지

작가의 실제 가족. 맨 오른쪽 꼬마는 훗날 이 책의 저자가 된다.

내가 더러운 곳에서 구르거나 몸에 뭔가를 흘렸을 때 아버지는 호수로 물을 뿌려 나를 씻기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너희 엄마랑 경미 빼고는 이 정원이 내 첫사랑이다. 아, 너와 너의 형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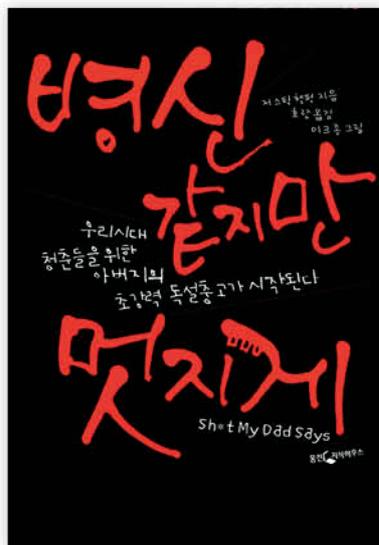
아버지는 책을 열심히 읽으셨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셨다.



"사유리 씨, 간식으로 뭐 먹고 싶어요?"
 "난 괜찮아요. 점심을 늦게 먹었어요."
 "그래도 촬영하다 보면 배고플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말해봐요."
 "그럼 고구마! 나 고구마 좋아해! 군고구마 있어?"
 "고, 고구마... 군고구마가 여기... 있으려나?"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4월호 표지 화보 촬영차 만난 사유리. 기상천외한 입담과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 방송에서 본 사유리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초장부터 우리에게 직구를 날렸다. 덕분에 촬영장에 있던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한바탕 큰 웃음이 터지고 나니 촬영 직전이면 으레 감도는 긴장과 어색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런 건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라는 사유리의 돌직구는 "가식 따윈 집어치우고 즐겁고 편하게 촬영해요"라는 말로 들렸다. "괜찮아요", "아니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라는 인사말에 길들여져있다가 사유리에게 "내가 보기보다 엉덩이가 진짜 커", "내 가슴에 수박 두 개 있다는 거, 그거 진짜 믿고 있었어?"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직언을 들으니 새삼 살아 있는 기분이었다. 반백수에 여친에게도 버려져서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다시 부모님 집에 얹혀살게 된 자신을 향해 "쫓까"라며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의 독설을 모아놓은 책 <병신 같지만 멋지게>를 읽을 때도 그랬다. "괜찮아, 인생은 원래 글러먹었어", "할 줄도 모르는 놈이랑 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세상에 없어", "최선을 다해라. 그러고도 안 되면 짹째 살길을 찾아"라는 욕쟁이 아버지의 독설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난 너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보다 더 위안이 된다. 그리고 보면 독설은 가식이 포함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말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독설에 위안받는 까닭은 그래서가 아닐까.

독설가 아버지를 둔 이 책의 저자는 미국 MAXIM의 온라인 에디터 저스틴 헬펀이다. 잔소리 듣기 싫다고 부모를 살해하고 방화를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독설이 듣기 싫다고 자살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는 대신 독설을 모아 책으로 펴낼 생각을 한 저자의 발상이 참으로 MAXIM답다. 아침! 사유리는 광장히 예의바르고 착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먼저 촬영장에 도착했다. '자각'이란 단어가 더 익숙한 연예인 화보 촬영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개념 모델이었다. 촬영 내내 "고마워요"라며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녀는 밝고 명랑하며 똑똑하지만 피곤하지 않은, 보기 드문 훌륭한 여자였다. 그런 여자의 독설이라면 우리도 365일 24시간 환영이다. 🍌



<병신 같지만 멋지게>

맥심닷컴 편집자 저스틴 헬펀 지음 / 호란 옮김
 이크종 그림 / 웅진지식하우스 / 13,000원

<병신 같지만 멋지게> 미리보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날린 독설들

"웬만하면 지리지 마라."
 (p.30)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입고 싶을 때 옷을 입고, 벗고 싶을 때 벗을 거야. 네 친구들이 조금 이따 온다는 사실은 그에 비하면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아. 한마디로, 쫓까."
 (p.30)

"경험이 많은 것처럼 행동해라. 개들이 날 싫어할까 봐 겁을 먹어서는 안 돼. 할 수 있어. 신경 끄는 거다. 그러지 않고는 너나 같은 남자는 생전 여자랑 못 자."
 (p.144)

"자, 그럼 난 이만 가서 살아 있는 기쁨을 누리려겠다. 통을 싸야겠어."
 (p.189)

"그토록 상세한 묘사에 감사드린다. 이 헤밍웨이 새끼야. 아른 게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
 (p.196)

"스티븐 스피버그가 태어날 때부터 스티븐 스피버그였잖아. 그 사람도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냥 병신이었을 뿐이야. 심지어 너보다 못생긴 병신."
 (p.237)

- <병신 같지만 멋지게> 중에서 -

24 Hours to Live



엔터프라이즈 호 커크 함장의 최후

《스타 트렉》의 커크 함장을 연기하며 왕년에 우주선캐나 타 본 윌리엄 샤프너. 지금 그가 천국으로 순간이동 하고 있다.



13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마치고 달려왔다고? 미안하다. 당신은 죽는. 유언이 있나?
나는 살고 싶다이아아아!!!

당신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모르겠다. 젊었을 적, 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지옥에 갈 것 같기도 하다.

운 좋게 천국에 갔다 치자. 거기서는 우주선 같은 걸 못 탈 텐데 어떡하나?
하나 지르지, 뭐, 천국에도 인터넷은 될 테니 옥션으로 아쉬운대로 비행기라도 구입하겠다. 아이폰도 있을 거야. 잡스형이 그 동네로 이사 갔잖아. 아, 거기가 아닌가?

어차피 죽는 마당에, 평소 죽방을 날리고 싶었던 사람 한 명만 끌어달라. 없다. 죽기 직전 병상에 누워 죽방 날리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다. 꺾속말로 "저기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다. 궁금한 상대방이 몸을 숙이며 다가올 때 바로 철썹! 꺾방망이를 냅다 갈기면 된다. 미안. 아픈가?

살면서 번 돈은 어디에 탕진했나?
마누라들과 애마에게. 아, 참고로 말에게 끌어박은 돈이 마누라들에게 바친 돈보다 적지 않을 걸.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매달린 일은 뭔가?
드라마 《후커와 로마노》에서 내가 자동차 앞 와이퍼에 매달려 버둥대던 장면 기억나나? 나는 그만큼 격렬하게 내 삶에 매달렸지.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었지?
구멍이에 빠진 말을 들어 올리듯, 협곡 같은 곳에 갇혀 있는 나를 헬리콥터가 끌어 올리는 거다. 당신 공동이 사이 골짜기만큼 아주 깊고 아슬아슬한 곳에서 말이다.

소원대로 119 구조대 헬리콥터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이제 뭘 하고 싶나?
집으로 돌아가서 물레 아내를 염탐하겠다. 옆집 남자에게 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야겠다.

《스타 트렉》의 캡틴 커크는 색시한 외계인들과 종종 엮이곤 했다. 가장 색스하고 싶은 외계녀를 꼽는다면?
수백만 한 가슴이 세 개 달려 있던 외계인 일지? 그 가슴을 보는 데 어찌나 흥분되던지...

《스타 트렉》의 캡틴 커크와 장 령 피카드 중 누가 더 나은 선장일까?
어려운 질문이군. 두 경우 모두 우주선이 폭발했으니... 결국 둘 다 병신이다.

당신의 관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나?
"거 참 싸구려 관을 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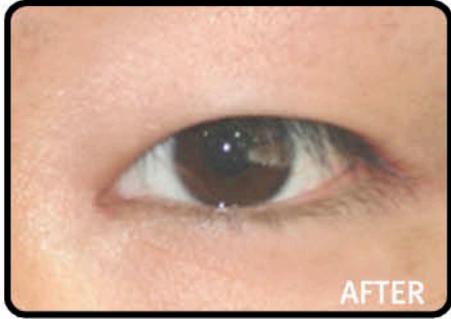
이제 죽었으니 지상에서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될 지긋지긋한 일을 하나 꼽는다면?
엔터프라이즈 호의 스팩 부함장과 벌칸족 인사를 나누는 것. 그 인사법 (검지와 중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인 뒤, 중지와 약지 사이를 벌린다) 엄청 불편하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당신의 묘비명을 직접 써봐라.
내 생애 이렇게 긴 인터뷰는 처음이었다. ☹



"BUT... I WANT TO LIVE!"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CHAMPION OF THE MONTH



론다 로우시

생년월일: 1987년 2월 1일

신체: 170cm, 61kg

트위터: @RondaRousey



론다는 지금 청순 모드.



그녀 옆에 선 카무치(우)가 밀린 오징어처럼 보이네.



큰 화제를 모은 그녀의 누드 화보. 아잉, 풀라~

그녀의
화끈한 암바
퍼레이드



UFC 최초의 여성 챔피언 Ronda Rousey

싸움 잘하는 여자는 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을 거란 편견.
론다 로우시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미모의 챔피언 등장이오!

그녀가 마우스피스를 끼고 링에 오를 때는 매서운 눈매와 강인한 입매에서 살벌한 카리스마만이 느껴진다. 하지만 링 밖에서의 그녀가 찍은 아찔한 화보와 촉촉한 셀카를 볼 때면 동일인이 맞나 싶다. 특히 그녀가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는 모습은, 아아... 천사다, 천사. 론다 로우시는 미국 유도 국가대표, 즉 엘리트 체육인 출신의 여성 파이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그녀는 "유도 선수로는 생계가 곤란했다"며 MMA에 진출한다. 비록 동메달이었지만 미국 유도 사상 첫 메달리스트였기에 그녀의 행보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상당했다.

게다가 실력은 물론 미모, 말솜씨, 화끈한 팬 서비스 등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로우시가 팬들을 사로잡은 건 당연지사. 대중의 이목을 끌 줄 알고 즐기기도 하는 영리한 그녀는 상대 선수를 까는 '트래시 토크'으로도 악명 높다. UFC 최고 입담꾼 차엘 소넨의 여자 버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여성 격투기에 대해 부정적이던 UFC 대표 데이비드 화이트도 로우시의 스타성과 팬들의 성화에 결국 여성 디비전을 만들고 그녀를 위한 무대를 세웠다. 프로 데뷔 이후 6연속 1라운드 암바 피니시로 이미 스트라이크포스 여성부 밴텀급 챔피언을 차지한 로우시는 지난 2월 24일, UFC 157의 메인이벤트에 챔피언 자격으로 첫 방어전을 치르게 된다.

그녀의 암바를 조심해!

상대는 미 해병대 출신의 레즈비언 파이터 리즈 카무치였다. 시작부터 카무치의 공세는 끈질기고 위협적이었다. 경기 초반, 카무치가 로우시의 등에 매달려 목을 조르는 장면은 보는 사람마저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큼 지독했다. 로우시는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카무치의 다리를 뜯어내더니 결국 암바로 카무치의 뱀을 받아냈다. 7연속 1라운드 암바 피니시 승리다(아마추어 경기를 포함하면 10번째 1라운드 암바 피니시). 벨트가 채워지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이 천사 미소 뒤에 잠시 숨긴 로우시의 전사 본능을 빨리 다시 보고 싶다. 그녀의 누드 화보만큼이나 말이다! 🍷

한국계 챔피언 **벤슨 헨더슨** 3차 타이틀 방어전

전사

헨더슨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

힘 명예

UFC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유연성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전
UFC 헨더슨 VS 멜렌데즈

4월 21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SUPER
ACTION**

Fight

Road FC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011

로드FC 011 관전 포인트

싸나이들이여, 오래 기다렸다!

ROAD FC 011

장소: 서울 올림픽 홀
일시: 4월 13일 저녁 8시

단군 뺨치는 위치 선정&황금 타이밍

오랜만에 서울에 돌아온 아시아 최대 종합격투기 대회 로드FC의 올해 첫 이벤트가 오는 4월 13일 토요일 잠실 올림픽홀에서 개최된다. '4월 중순의 따뜻한 토요일 오후(에서 밤)'라는 기묘한 타이밍! '신책하기 좋은(데 밤엔 으스스한) 올림픽공원'이라는 완벽한 장소(p.42를 참조해) 게다가 수컷들의 양기가 넘치는 경기장에서 화끈하고 멋진 파이더들을 보고 난 후라면, 그녀가 먼저 당신을 뒹칠지도! (좀 전에 본 임바나 하이킥을 당신에게 시전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도는 나간 걸로)

헬보이 vs. 사냥개

종합격투기 경량급 최강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전 DREAM 챔피언 '헬보이' 요한킴 한센(노르웨이)이 국내 격투기 무대에 뛰어든다. 상대는 6연승의 상승세를 탄 로드FC 간판스타 서두원. 대결을 강하게 요청한 쪽은 서두원이었다고, 서두원은 이렇게 말했다. "항상 응원하던 선수와 맞게 돼 영광이다. 한센이 나보다 강하지만 승패를 떠나 정면에서 맞서는 게 상대나 기대해 주신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부딪혀 보겠다. 남자 대 남자, 영혼 대 영혼의 싸움이다." 젠장, 말도 멋지게 하네!

복수의 화신 손혜석 vs. 괴짜 미노아맨

로드FC 미들급 챔피언 이은수 선수가 일본의 괴짜 파이더 미노와맨을 상대로 1차 방어전을 갖기로 했는데, 이은수의 무릎부상으로 손혜석 선수가 대신

나왔다. '올보 파이터' 육진수의 제자 손혜석은 지난 9회 대회에서 미노와맨에게 패한 스승 육진수의 복수라 여기고 출전 제의를 승낙했다. 그의 복수 캐릭터가 처음은 아니다. 데니스 강의 동생 토미 강과 손혜석의 동생 손규석의 경기에서 토미 강이 승리하자 화가 난 손혜석이 케이지 위로 올라와 토미의 세컨으로 온 데니스 강을 도발했다. 이렇게 성사된 형들의 매치에서 데니스는 손혜석을 가볍게 눌러버린다. 손혜석의 이번 복수는 성공할까? 이러다 로드FC가 (아내의 유혹) 되는 거 아니야?

터키의 무랏 카잔, 로드 FC 입성 신고!

질생기 외모와 스타성을 겸비한 터키의 파이터 무랏 카잔. 잘나가는 형들만 찍는다는 아디다스 모델로도 활동한 그는 터키에서 '박태환, 김연아'급 인기 스타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격투가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 복싱, 킥복싱 선수로 활동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종합격투기 시합과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카잔의 이번 대회 상대는 떠오르는 신예 이형석이다. 카잔, '로드 핏볼'이란 닉네임답게 투지 넘치는 파이팅을 보여줘!

프라이드의 추억 돌리는 그 이름, 소쿠주

최근 로드FC와 계약을 맺은 라모 티에리 소쿠주(카메룬)는 프라이드 데뷔와 동시에 당시 최고의 선수였던 표도르의 대항마로 떠올라 큰 관심을 끌었다. 팬들에게는 '소쿠신'으로 불릴 만큼 화끈한 타격실력이 전매특허. 이후 UFC에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물러났지만 여전히 전성기 때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와 맞붙을 위승배 선수는 '소쿠신'이란 별명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며 "남자라면 다 내려놓고 화끈한 타격전을 벌이자"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새로운 챔피언! 새로운 토너먼트!

이날의 메인이벤트는 바로 라이트급 토너먼트 챔피언 결승전! 16강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이 체급의 토너먼트 최강자가 드디어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의 라이트급 최강자인 남의철과 쿠에 타카스케가 초대 타이틀을 놓고 벌일 뜨거운 경기에 벌써부터 아주 막 그냥 흥분된다! 로드FC 밴텀급 토너먼트도 이날 <로드FC 영건스 7> 대회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하니 절대 놓치지 말 것!

ROAD FC 011 TICKET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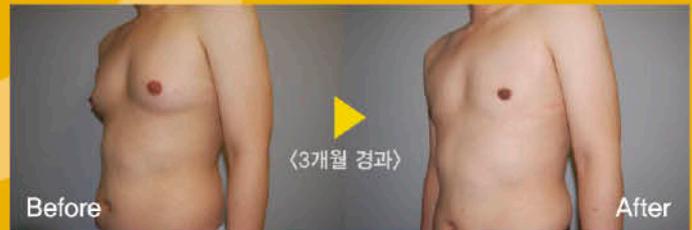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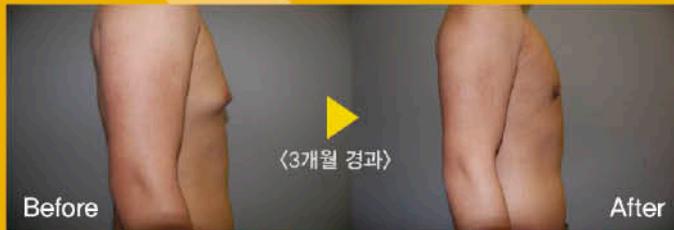
선수들의 심장소리와 땀 그리고 멋진 종합격투기 경기를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고 싶나?
MAXIM 홈페이지 'ROAD FC 티켓 증정 이벤트'로 날래 튀어오라우! www.maximkorea.net

이벤트
바로가기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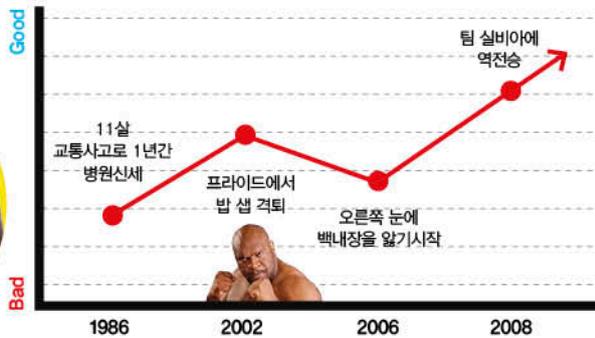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남자들 불꽃 파이터 5

이게 남자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난다.” <슬램링크>의 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스포츠든 인생이든 상대와의 경쟁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포기’라는 두 글자가 어른거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격투계에는 포기, 좌절과는 거리가 몇 몇 명의 선수가 있다. 이 불꽃 사나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안 선생님의 교훈을 다시 떠올려보자.

포기를 모르는 노장

안토니오 호드리고 ‘미노타우로’ 노게이라



브라질 태생의 1976년생 노게이라는 11세 때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늑골과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과 의식불명 그리고 11개월의 입원 생활 끝에 겨우 회복한 그는 사고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해 14세 때부터 주짓수와 복싱을 시작했다. 1999년 MMA 무대에 진출한 그는 191cm의 신장에 체중 108kg의 우수한 체격 조건과 수준 높은 테크닉을 겸비한 최고의 파이터로 성장했다.

2002년 8월, 키 2m에 몸무게 160kg의 근육 덩어리인 괴물 밥 섹이 프라이드를 침공했다. 섹은 데뷔 첫 두 경기를 모두 1라운드 KO로 끝냈다. 기술은 형편없지만 압도적인 거대한 체구에서 나오는 힘과 의외의 스피드는 상상을 초월했다. 기술이고 전략이고 통할 여지가 없었다. 섹의 3차전 상대는

노게이라였다. 노게이라는 2002년 8월 28일, 자신보다 1.5배 무거운 밥 섹을 2라운드 4분 30초, 총 경기 시간 14분 30초 만에 임바로 제압했다. 섹의 안전한 파운딩을 견디고 정취한 대역전승이었다. 당시는 괴물 밥 섹을 공격하는 법이 알려지기 전이었기에 이는 대단한 일이었다. 노게이라는 이 경기로, 격투의 신은 결코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명했다.

2003년 3월 16일, 노게이라와 에밀리야네펬코 표도르의 프라이드 헤비급 타이틀전이 벌어졌다. 표도르는 세간의 평가보다 훨씬 우수한 파이터였다. 스피드는 차원이 달랐고 정확한 펀칭과 능숙한 테이크다운 능력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상위 포지션을 차지해 강한 파운딩을 쏟아붓는 솜씨가 탁월했다. 노게이라는

3라운드 20분 내내 표도르의 기량에 놀려 엄청난 대미지를 입었다. 보통의 선수라면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졌을 강타를 셀 수 없이 맞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판정패했지만 공이 올리는 순간까지 일발 역전의 서브미션기를 노리던 그의 자세는 많은 선수의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향후 7년간 세계 종합격투기를 지배 할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됐다. 표도르의 시대는 찬란했다. 노게이라는 표도르와 3번 싸웠지만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다. 늘 2인자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2006년 말, 프라이드가 무너졌다. 세계 MMA의 중심은 UFC로 옮겨갔다. 팬들은 표도르가 UFC로 가길 바랐다. 하지만 표도르는 움직이지 않았다. 계약 문제 때문이었다. UFC와 표도르의 계약 불발은 무척 한심한 일이었다. 겉으로는 팬을 위한다는 입바른 소리를 해냈지만 UFC와 표도르 양측 모두 자신들을 사랑해주던 팬들을 진인하게 배신한 것이다. 반면, 노게이라는 UFC로 진출했다. 당시 노게이라는 오른쪽 눈에 백내장을 앓고 있어 시력이 무척 나쁜 상태였다. UFC 데뷔전에서 히스 히링의 원발 킥을 맞으면서 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오른쪽 바깥쪽에서 휘어 들어오는 상대의 공격에 취약해진 것이다. 2008년 2월, 그는 UFC 헤비급 전 챔피언 팀 실비아와 대전했다. UFC 헤비급 잠정 타이틀(챔피언이 부상 등의 이유로

장기간 결장일 때 일시적으로 집권하는 준 챔피언에게 주는 타이틀이 걸려 있었다. 실비아는 신장이 2m가 넘는 거구의 타격가였다. 경기 시작 2분여 만에 실비아의 왼쪽 공격이 노게이라의 오른쪽 눈을 피해 적중했다. 바로 따라 나온 오른쪽 펀치가 결국 그를 쓰러뜨렸다.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 실비아는 노게이라에게 목적인 파운딩을 퍼부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노게이라는 겨우 버텼다. 이후로도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노게이라는 실비아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실비아는 이를 잘 방어하며 타격으로 계속 점수를 가져갔다. 판정까지 간다면 노게이라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사실 그렇게 맞고도 버티는 게 옹했다. 라운드 초반, 노게이라가 실비아를 안고 넘어졌다. 폴링 가드(셀프 가드)라는 기법이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도 자신 있는 그라운드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한다. 실비아는 노게이라와 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실비아가 왼발을 잘못 짚으면서 중심을 잃고 기우뚱했다. 노게이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위아래를 뒤집었고 기무라를 거는 것처럼 속였다가 갑자기 길로틴 초크로 변환하는 서브미션 연속기를 구사했다. 단단히 잠긴 노게이라의 팔은 실비아의 송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실비아는 죽기 겁을 썼다. 경기 후반부의 대역전승, 노게이라 극장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2008년 노게이라는 잠정 타이틀 방어전에서 프랭크 미어와 붙었다. 미어가 왼손잡이 스탠스에서 강력한 왼손 강펀치를 연이어 적중시켰고,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송받던 노게이라의 멧집도 한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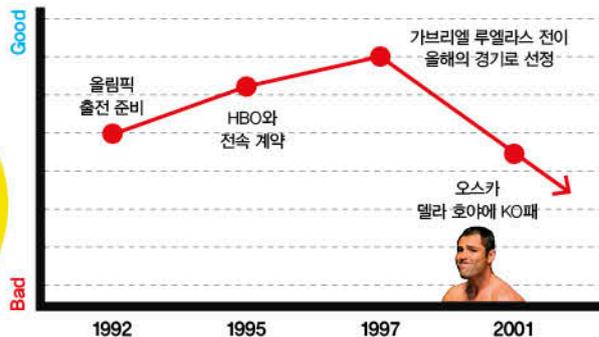


“ 부상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

도달했다. 생애 첫 KO패였다. 이후 복귀전에서 노게이라는 UFC에서 가장 위대한 파이터 중 한 명인 랜디 쿠틀러와 만났다. 두 노장은 쉽게 보기 힘든 명승부를 펼쳤다. 결과는 노게이라의 완승이었다. 노게이라는 다음 경기에서 여섯 살 어린 현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를 만나 또 한 번 KO패했다. 이후 노게이라는 UFC 134에 출전했다. 처음으로 모국 브라질에서 열린 대회였다. 심야 경기였음에도 장내를 가득 메운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노게이라는 12년 선수 생활, 41전 만에 처음으로 자국 무대에 섰다. 그의 상대 브랜든 사움은 상당히 주목받던 신성이었고 도박사들은 사움의 승리를 점쳤다.

경기 초반 사움은 날카로운 어퍼를 수차례 꽂으며 노게이라를 흔들었다. 잠시 후 노게이라의 라이트가 불을 뿜었고 충격받은 사움은 축 늘어진 사움의 턱에 레프트가 하나 더 꽂았다. 생애 두 번째 KO승이었다. 오는 6월 8일, 브라질 TUF 결승 무대에서 노게이라는 파브리시우 베투동과 대전한다. 베투동은 케인 벨라스케즈,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와 함께 헤비급 빅 3로 불린다. 이긴 선수는 대망의 UFC 헤비급 도전권을 받는다. 노게이라에게 이것은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에 수많은 팬이 노게이라 극장의 재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남자
아투로 가티



1972년생의 아투로 가티는 이탈리아계 캐나다 복서다. 1992년 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하던 가티는 방향을 선회해 프로로 전향했다. 솔로 스타터에 방어보다는 치고받는 게임을 즐기던 그는 초반에 엄청나게 얻어맞으며 실점을 쌓다가 중후반부에

경기를 뒤집는 특유의 불꽃남자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것은 복싱의 이상적 일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팬들을 미치게 만드는 최고의 방식이었다. 1995년 그는 전설의 복서 플로이드 패터슨의 양아들 트레이시 해리스 패터슨을 꺾고 IBF 슈퍼페더급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복싱 중계방송의 대명사인 HBO는 가티의 상품성을 인정해 거액을 안겨주며 전속 계약을 했다. 가티의 26번째 경기이자 타이틀 1차 방어전인 윌슨 로드리게스전은 가티의 잠재력이 폭발한 명승부였다. 가티는 초반에 상대에게 강타를 허용하면서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회복해 그림 같은 대역전 KO승을 거두었다. 이 경기는 '올해의 경기(Fight of the Year)' 후보로 올랐지만 아깝게 수상은 하지 못했다. 1997년 4월 가브리엘 루엘라스와 대전한 가티는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다. 상대의 힘과 기술을 정면에서 받아내며 자신의 목숨을 시험한 가티는 이번에도 대역전승을 거두었다. 이 경기는 1997년 '올해의 경기'로 선정되었다. 1998년 가티는 타이틀을 버리고 체급을 올렸다. 라이트급에서 이반 로빈슨과 대전한 가티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대형 난투극을 벌였다. 비록 2:1 판정으로 패하기는 했지만 복싱 집지

Fight / UFC

(링)은 이 경기를 그해를 대표하는 명승부로 선정했다. 라이트급에서 가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반 로빈슨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도 패했고 다음 경기에서도 지면서 가티는 3연패의 늪에 빠졌다. 이후 슈퍼라이트급-웰터급으로 계속 체급을 올리며 3KO를 포함, 4연승을 거두었지만 2001년 가티의 앞에 '골든 보이' 오스카 델라 호야가 나타났다. 호야의 공격력과 테크닉과 경험, 신체 능력은 너무나 뛰어났다. 가티는 호야에게 생애 두 번째 KO패를 당했다. 가티의 황금시대는 그렇게 저물어가는 듯 했다.



불꽃 파이터의 화려한 부활 미키 워드



'아이리시' 미키 워드는 1965년생으로 1985년 프로로 데뷔했다. 그는 전형적인 '토마토 캔'이었다. 토마토 캔이란 언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전진해 접근전을 시도하는 느리고 터프한 파이터를 다소 알집아 부르는 미국의 복싱 용어다. 토마토소스가 들어 있는 통조림에 돌팔매질을 했을 때 용기가 우그러지고 터져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의 별칭인 것이다. 비록 그런 타입이었다고는 하지만 워드에게는 강력한 턱과 성능 좋은 심장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레프트 보디샷이 있었다. 1990년까지 그럭저럭 21승 3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이 시기 그의 오른손은 부상이 반복되고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해 완전히 고장나버린 상태였다. 1991년까지 4연패의 늪에 빠졌다. 사실상 은퇴한 워드는 건설 노동자가 되어 공사판을 전전했다. 그의 가족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 그의

오른손은 큰 문제였다. 어느 날, 도로공사 노동판의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워드의 재기를 위한 수술비를 마련해주었다. 자신의 골반뼈를 오른손에 이식해 넣는 대수술 끝에 워드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마약 문제로 감옥에 가 있던 그의 배다른 형 디키 애클랜드도 출소했다. 애클랜드는 슈퍼레이 레너드와 싸운 적이 있는 복서였다. 신체 능력은 평범했지만 복싱의 기본기는 매우 훌륭한 선수로 정평이 있었다. 은퇴 후 그는 일코올 의존증과 마약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결국 투옥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겨우 정신을 차렸다. 출소하자마자 애클랜드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워드에게 쏟아 부었다. 워드는 은퇴 전보다 나은 선수로 다시 태어났다. 오른손이 부활했고 실 새 없이 전진하며 밀어붙이는 특징은 더욱 강화했으며 애클랜드에게 기술적 디테일을 물려받았다.

1994년 복귀 직후부터 워드는 9연승을 달렸다. 9명의 상대 중 7명은 종로 공 소리를 듣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덕분에 워드는 타이틀 전선에 투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신의 축복을 받은 파이터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는 않았고 워드는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2000년 워드는 영국의 쉬어 니어리를 꺾고 WBU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그가 최초로 획득한 세계 타이틀이었다. 2001년 워드는 에마뉴엘 버튼과 대전했다. 1라운드부터 워드는 상대를 코너에 몰아놓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상대 역시 로프를 등지고 능숙한 공수 전환으로 워드의 빈틈을 공략했다. 4라운드에 해설자 테디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경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라운드 사이의 휴식 시간에 친구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쉽게 보지 못할 대결기를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적인 10라운드 경기에서 버튼은 918번의 주먹을 휘둘렀고 그중 421개를 적중시켰다. 적중률은 무려 46%에 달했다. 워드는 총 1,182개의 펀치를 던졌고 그중 320개를 성공시켰다. 상대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복싱을 했지만 전반적인 적극성과 9라운드에 터진 보디 샷에 의한 다운을 인정받아 심판 전원일치로 판정승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심판은 두 선수 모두의 손을 들어올렸다. 이 경기는 2001년 '올해의 경기'로 선정됐다. 워드는 이것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불꽃 vs. 불꽃 아투로 가티와 미키 워드의 대전

'복싱의 성경'으로 불리는 <링>은 1년에 1번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경기'를 선정한다. 연간 전 세계에서 수백 건이 열리는 복싱 경기 중 딱 1명의 선수와 단 1경기를 뽑는다는 점에서 선수들에게 광장한 영광이다. 특히 '올해의 경기'에 선정된 경기는 영원불멸의 명승부로 복싱 역사에 깊이 각인되는데, 이 부문에서 수상 경력이 가장 많은 선수는 무하마드 알리(6회)이고, 아투로 가티와 미키 워드는 각각 4회, 3회(슈게레이 로빈슨, 록키 마르시아노 등도 3회) 수상했다. 가티와 워드는 역대 수상자에 비해 위대하다고 칭송받을 만큼 우수한 선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명경기를 만드는 능력은 확실히 인정받는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상대와 정면 승부를 고집하는 그들의 전사적 기질 덕분이다. 가티와 워드는 잘 도망가는 상대, 빠르고 테크닉이 좋은 상대를 만나면 고전했지만 정면에서 서로 맞받아치는 경기가 벌어지면 이들은 보는 이를 안드로메다행 관광버스에 탑승시키는 특수한 능력을 발휘했다.

2002년 5월, 아투로 가티와 미키 워드가 만났다. 두 선수 모두가 거액의 파이트 머니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두 선수의 대결이야말로 보장된 명승부였다. 1, 2라운드에는 가티의 넉넉한 우세였다. 가티는 자신보다 상당히 느린 워드를 상대로 기동력을 살린 퍼붓고 빠지기 전략을 사용했다. 첫 라운드부터 워드의 오른쪽 눈자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가티도 상당한 슬로 스타터지만 워드는 더 심했다. 하지만 3라운드 부터 워드의 몸이 풀리면서 경기는 모든 팬이 바라던 대로 난타전으로 전개됐다. 3라운드 까지는 가티의 우세였다. 4라운드가 되자 워드가 강력한 쇼트 라이트로 가티의 턱을 크게 흔들

었다. 가티도 맹렬하게 반격했고 그 과정에서 워드가 가티의 로블로(벨트 라인 아래를 가격하는 반칙)를 맞고 쓰러졌다. 주심은 가티에게 파울을 선언했고 워드가 한 라운드를 가져갔다. 5라운드, 가티가 스피드에서 앞선 만큼 워드는 파워에서 우위였고, 워드의 펀치는 적중률이 낮았지만 터질 때마다 가티에게 충격을 주었다. 해설을 맡은 전설적인 트레이너 에마뉴엘 스투어드는 이 대목에서 195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승부인 카르멘 바실리오 대 토니 데마르코의 2차전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5라운드의 중반부에 가티가 4펀치 좌우 연타로 시작된 총 11회의 파상 공세를 마치고 몰러설 때 워드가 추격해 들어가며 짧고 빠른 양 쪽의 연속기를 가티의 안면에 적중시켰고 상하단과 좌우 공격을 섞은 그림 같은 콤비네이션을 연이어 구사해 가티를 위기에 빠뜨렸다. 가티의 안면에서도 출혈이 시작됐고 라운드가 종료됐을 때는 다리가 약간 풀려있었다. 5라운드가 끝났을 때 가티가 3개의 라운드를 가져갔고 워드는 2개의 라운드에서 앞섰다. 하지만 4라운드에 가티가 감점을 당해 점수는 동점으로 볼 수 있었다. 6, 7라운드에서는 가티가 다시 치고 빠지는 전법으로 점수를 끌어담았다. 남은 라운드는 3개. 워드가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라운드를 이기거나 가티를 놓치는 수밖에 없었다. 8라운드에도 초반은 가티의 페이스였다. 그러나 후반부에 워드의 보디 펀치가 가티의 발을 묶었고 라운드가 끝나기 직전에 워드는 맹렬한 공세로 추격을 개시했다. 9라운드 초반, 워드의

주무기인 레프트 보디 샷이 가티의 옆구리에 적중하며 가티가 결국 주저앉았다. 해설자 스투어드는 이걸로 경기가 끝날 거라고 전망했다. 가티는 겨우 일어났다. 워드는 경기를 마무리짓기 위해 남은 힘을 짜내 펀치 러시를 걸었다. 하지만 가티는 가티였다. 끈질기게 버티면서 복부의 충격을 수습했고 때리다가 지친 워드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이번에는 워드가 수세를 취하며 숨을 돌렸고 라운드 종료 직전엔 다시 워드가 치고 나왔다. 스투어드는 이 라운드를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라운드'라고 평했다. 이 경기의 라스트 라운드는 복싱 역사상 가장 장렬한 라운드로 손꼽힐 만하다. 워드는 체력이 다한 상태였고 가티는 복부에 충격이 누적돼 있었다. 안면에 받은 두 선수의 대미지는 대략 비슷했다. 남은 것은 정신이나 의지 혹은 혼 같은 형이상적인 것이었다. 두 선수는 기술과 힘, 스피드를 비롯한 모든 걸 초월해 마지막 라운드를 하얗게 불태웠다. 경기장외 모든 관중은 서서 두 선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연호했다. 오만하고 냉철하기로 이름난 명해설자 래리 머천트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를 겸손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경기였다"고 말했다. 이 경기의 판정은 사실 무승부가 되었어야 하지만 한 부심이 9라운드를 10:7로 잘못 채점하는 바람에 워드가 승리했다. 2002년 올해의 경기로 가티-워드 1차전이 선정된 것은 당연했다. 두 선수는 연속해서 두 번을 더 싸웠다. 2, 3차전은 가티의 승리였고 3차전도 2003년 올해의 경기로 선정되었다. 워드는 가티와의 라이벌 매치 이후 즉각 은퇴했다. 이후 둘은 친구가 되었다.





(왼쪽부터)료도 미치다, 노게이라, 쇼군 후아, 빈더레이 실바, 앤더슨 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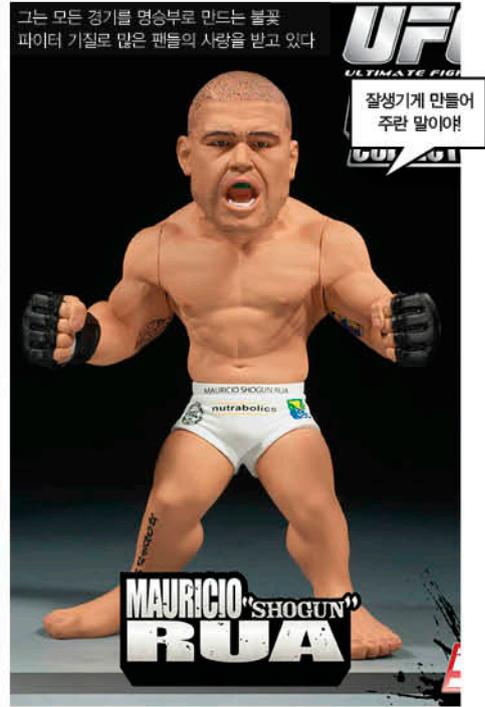
피이터가 되기 전, 브라질에서 모델 활동을 했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는 후아



댄 헨더슨(오른쪽)과의 경기를 끝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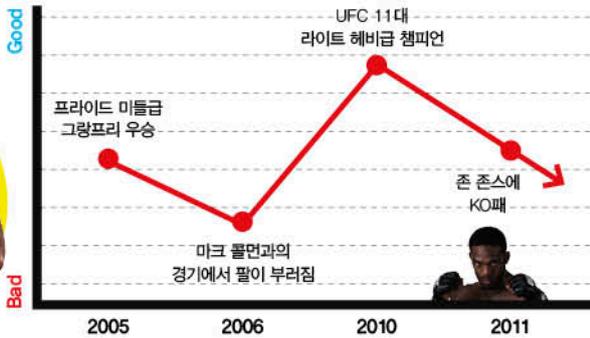
그는 절친으로 알려진 빈더레이 실바(가운데)와는 결코 붙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다



UFC
ULTIMATE FIGHTER
잘생기게 만들어 주란 말이야!

출처 : 쇼군 후아 페이스북

분투하는 터프가이 마우리시오 쇼군 후아



복싱에 가티 vs. 워드의 파이트가 있었다면 MMA에는 마우리시오 쇼군 후아와 댄 헨더슨의 경기가 있다. 댄 헨더슨은 투박해 보이지만 매우 능숙하게 자신의 오른손 강타를 꽂아 넣는 기술을 선보이는 선수다. 그는 상대의 발이 묶인 타이밍을 잡아내는 귀신 같은 감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타이밍이 잡히지 않으면 자신의 원발로 앞에 나와 있는 상대의 발을 로직으로 차서 상대의 다리를 묶고 오른손을 휘두른다. 심플해서 예측하기도 쉬운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터지던 거의 예외 없이 상대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헨더슨의 이러한 스타일을 아는 선수들은 그래서 보통 그와 상대할 때 멀찍이 떨어져서 싸우거나 접근전이 발생하기 전에 헨더슨을 볼고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후아는 달랐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신의 방식대로 정면 승부를 겨는 선수다. 헨더슨을 상대로도 예외는 없었다.

헨더슨의 오른손 대포가 첫 라운드부터 사정없이 폭발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후아는 셀 수 없는 강타를 맞고 빈사 상태가 되었다가 겨우 겨우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체중이 93kg 이상 나가는 선수의 오른쪽 풀스윙을 정통으로 먹으면 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그것이 댄 헨더슨 정도 되는 하드펀처의 결정 병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쇼군 후아는 쓰러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돌아왔다. 4라운드가 되자 헨더슨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후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후아의 타격이 터지기 시작하자 헨더슨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위기에 빠졌다. 5라운드에서는 후아가 풀아웃을 따내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헨더슨을 공략했다. 초반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상대였기 때문에 피니시를 하진 못했지만 4, 5라운드의 상황은 후아의 압도적 우세였다. 경기 결과는 헨더슨의 판정승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후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마 후아가 아닌 다른 선수였다면 100% 그대로 잠들었거나 포기했을지 모른다. 후아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끝까지 버텨내면서 역전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만약 헨더슨이 TRT라는 요법을 통해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일종의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또는 헨더슨과 후아의 국적이 서로 반대였다면 경기 결과는 달랐을 수 있다. 데이나 화이트는 이 경기 직후, 자신이 보기에는 무승부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만큼 팽팽한 경기였다. 그리고 후아가 얼마나 대단한 터프가이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명승부였다.

TRT*(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호르몬은 남성성을 발현시키는 중대한 물질. 골격의 밀도 유지와 적혈구의 생성, 긍정적인 마인드, 호전적인 성향, 근육량의 유지 및 증대, 체모의 길이와 두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서, 혹은 고환의 기능이상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치 이하가 될 경우 외부에서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 피이터가 TRT를 받으면서 경기에 나서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마크 헌트



1974년생 뉴질랜드 빈민가 출신의 마크 헌트, 사모아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의 거리에서 상당한 위명을 떨치는 인종인데 헌트도 마찬가지였다. 무술을 배워서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힘이 세고, 덩치에 비해 빠르게 쇠파이프 가격에도 견디는 단단한 머릿통이 있어 난전에서 특히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다. 1990년대 중반 어느 날, 헌트는 클럽 앞에서 난투를 벌이고 있었다. 3명의 거구를 뚝심시킨 헌트를 본 클럽 기도가 자신의 킥복싱 체육관에 헌트를 초대했다. 1999년 WKBA 슈퍼헤비급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헌트는 2000년에 K-1으로 진출했고, 오세아니아 대회를 평정하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한다. 키 178cm에 몸무게 123kg이라는 특수(?) 체형을 지닌 헌트는 보기보다 빠르다. 공격 순간 발휘하는 순발력은 놀라울 지경. 펀치력은 말할 것도 없이 막강하다. 1971년생 뉴질랜드인(사모아계) 레이 세포는 킥복싱계에서 스피드와 테크닉으로 이름 높았다. '슈거풋(설탕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세포의 특징은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 일명 '부매랑 훅'이었다. 2001년 10월 8일 후쿠오카, K-1 준결승에서 세포와 헌트가 만났다. 그런데 라운드 중반,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격을 몇 차례 허용하던 헌트가 세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발을 멈추고 가드를 내린 채 "Hit me(때려)"라고 한 것. 세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클린치를 잡았는데 헌트는 계속 그의 귀에 대고 때려보라고 도발했다. 이번에는 공격을 끝낸 세포가 자리에 서서 헌트에게 쳐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헌트가 힘껏 휘두른 좌우 연타를 세포는 여유 있게 막아냈다. 세포가 공세로 전환하자 헌트가 다시 가드를 내리고 얼굴을 내민다. 세포는 연속 펀치를 퍼부었다. 목직한 펀치가 몇 차례 적중했지만 헌트는 멀쩡했다. 한동안 두 선수는 서로의 손이 닿는 거리에서 가드를 내리고 차례를 바꾸어가며 치고받는 명장면을 연출했다. 사실 이것은 세포의 움직임에 잡아내기 힘들었던 헌트가 친 일종의 배수진이자 닳아있는데 세포가 이에 호응하며 탄생한 명장면이었다. 결과는 세포의 판정승. 그러나 세포는 이 경기에서 눈 부상을 당했고 보결로 헌트가 결승에 올라갔다. 결승에서 헌트는 호주의 아담 와트를 3회 KO로 눕히고 우승했다. 연말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은 헌트는 8강, 준결승, 결승에서 강자들을 차례로 꺾고 K-1 그랑프리 월계관을 손에 넣었다. 헌트는 2003년 까지 K-1 무대를 빛냈다. 무엇보다 팬들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각인된 장면은 크로킵의 결정 병기인 왼쪽 하이킥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판정까지 버티던 모습이다. 2004년 31세가 된 헌트는 돌연 프라이드에 진출했다. 데뷔전에서 헌트는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오시다 히데히코에게 패한다. 그 후 2006년까지 헌트는 5연승을 달리는데 상대 중에는 당시까지 4년 동안 무패가도를 달리던 반다레이 실바와 K-1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던 크로킵도 있다. 2006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헌트는 5연패했다. 상대 중에 조시 바넷, 표도르, 오브레일 같은 강자도 있지만 한두 체급 아래의 게가도 무사시나 멜빈 만호프에게 패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헌트는 몸무게가 140kg이 넘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2010년 헌트는 37세의 나이로 UFC에 진출했다. UFC의 한계 체중 120kg에 맞춘 게 용하다. 첫 상대 선 맥코플은 1라운드 1분여 만에 헌트의 팔을 꺾어 항복시켰다. 6연패였다. 사람들은 헌트에게 "이제 은퇴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좋아하시는 KFC나 많이 드시라"라며 비아냥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1년 2월, 헌트는 크리스 텍세이라와 붙게 된다. 텍세이라는 겁도 없이 헌트와 주먹 승부를 벌이다가 라이트 어퍼를 정통으로 맞고 떨어졌다. 같은 해 9월, 헌트는 벤 로스웰을 시종일관 두들겨 줌비로 만들었다. 만장일치의 판정승이었다. 2012년 2월, 헌트는 '수문장' 최 공고를 상대했다. 나를 먹여주는 타격 스페셜리스트 공고는 겨우 2분 11초를 버티고 무너졌다.

지난 3월 3일, 일본에서 만난 상대는 키 212cm의 UFC 최장신 스테판 '마천루' 스트루브였다. UFC 헤비급에서 최단신 헌트와는 극과 극이다. 그는 1988년생이지만 경기 경험은 31전이나 된다. 나이, 체격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헌트가 열세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세간의 예상이 적중하는 듯했다. 키 차이 때문에 헌트의 펀칭이 수월하지 않았다. 반면, 스트루브는 1, 2라운드에 마운트 포지션을 잡고 강력한 파운딩을 헌트의 안면에 적중시켰다. 2라운드 후, 헌트의 오른쪽 눈은 심하게 부었고 코뼈는 부러진 것 같았다. 입술에는 피가 흘렀다.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헌트는 강펀치를 연이어 적중시키면서 대형 반전 드라마를 집필했다. 라이트 일격을 맞고 스트루브의 가드가 높아지자 달려들어 크게 휘두른 레프트가 스트루브의 턱에 정확히 적중했고 그는 힘없이 허물어졌다. 주심은 잠시 스트루브의 상태를 관찰하던지 TKO를 선언했다. 마흔 살 마크 헌트의 UFC 4연승이었다. 헌트의 약점에 대해 세간에서는 말이 많지만 헌트는 헌트다. 함부로 속단하다가 큰 코 다친다. 🍌





선글라스 링방
신발 아디다스 제레미 스콧 by 피나틀

니가 키스 잘할 때는 불안해져 난
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니가 키스 못할 때도 불안해져 난
연인이라 형식적인 키스하는지

도대체 안 되는 게 왜 이리 많은가
문자 이모티콘 왜 안 쓰는가
잘자 얘기하곤 잠을 자는가
TV 보는가 인터넷 하는가

-UV의 '집행유예' 中
(뮤지 작사 · 작곡)-

MUZIE

웃긴 그룹 UV의 뮤지가 아닌 프로듀서, 인디 밴드, 싱어송라이터, DJ까지 두루 섭렵한 뮤지션 뮤지와의 만남.



건방진 뮤지의
촬영 현장



오랜만이다. 작년 반안트리 MAXIM PARTY에서 보고 두 번째다. 오늘 올드 스쿨 콘셉트로 화보 촬영을 했는데 확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
계속 학교를 그만둘 궁리만 하던 학생. 지나고 보니 내내 사춘기였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음악만 듣고 많이 싸우고 다니고.

후배한테는 무서운 선배였을 것 같다.
동생이나 후배에게 기본 나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인상이 안 좋으니까 안 건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웃으려고 노력한다.

동물들 많이 닮았다.
미국 원숭이? 아니면 티벳 여우?(웃음)

어렸을 때 미친 짓 많이 했을 것 같다.
슬리퍼 신고 나가 친구들 만나서 떡볶이 먹다가 계곡 가고 싶으면 그냥 계곡으로 갔다. 한번은 돈을 다 써버려서 밤에 먹을 걸 찾으러 다녔다. 옥수수 서리하고, 모르는 시골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구걸하고, 낚시해서 고기도 잡아먹고..

MAXIM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다면?
여자랑 떠나는 거라면 말레이시아.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 반딧불이 보러 가는 데가 있다. 세상이 온통 반딧불이다.

거기서 뭐 했나?
마누라랑 연애할 때니까 반딧불이 아래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겠지.

외국 여자들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영국에 가면 게이들이 그렇게 말을 붙인다. 안 그래도 한 2주 전쯤, 홍석천 형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다.

다행히 난 자기 취향이 아니라더라.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남자는?
부모한테 질하는 남자. 남자라면 부모보다 부인을 더 챙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연기를 잘해야지.

마이클 잭슨을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들었다.
만약에 마이클 잭슨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과 하루를 보낸다면 뭘 하겠는가?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해주겠다. 따뜻한 밥에 김치 한 조각 올려주고 옥뽕다고 말해줄 거다.

“

남자라면 부모보다
부인한테 더 잘해야 한다.

”

아주 훈훈하군. 당신도 춤에 일가견이 있어 보인다.
혼자 클럽 가서 춤추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여자들이 다가와도 아예 반응을 안 한다. 클럽에서 서로 눈빛 쏘면서 춤으로 대화한다는 게...(웃음) 너무 오글거리잖아

‘이태원 프리덤’의 이태원 말고 새로운 핫 플레이스를 추천해달라.

우리 덕분에 이태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더라. 이태원 측은 우리 UV를 홍보대사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된다. 상을 줘야 한다. 요즘 뜨고 있는 장소는 해방촌인 것 같다. 부암동 카페 거리도 좋고.

UV 이후로 ‘개가수(개그맨+가수)’가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껏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다. 여기서 대답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UV에게 들어온 CF나 행사가 그쪽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먹고살 만하니까 괜찮다. 들어오는 CF를 다 했으면 이미 한 10억 원어치는 했어야 한다.

그럼 앞으로도 CF는 안 찍는 건가?
해야지! 사실 CF 들어오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친한 동료 연예인 중 계급장 떼고 맞짱 뜨면 이길 것 같은 사람은?
전현무 형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노홍철 형도 착해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 신현준 형은 안 되겠다. 영화배우라서 그런지 카리스마가 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웬지 칼로 찌를 것 같은 말이지.

개인적으로 UV의 ‘MOM’이라는 곡을 좋아했는데 묻혀서 아쉽다. ‘시흥에 땅 사놓은 거, 나 몰래 땅 사놓은 건 왜 그랬어요’ 가사도 정말 주목갔다.
그 곡은 추석 특집으로 만든 곡이라 그런지 지금도 명절 때만 사람들이 조금 찾는 것 같더라.

재킷 블라우어
팬츠 G by 게스
신발 푸마 블랙스테이션



“
마이클 잭슨을 만나면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
”



MUZIE

본명: 이용운

생년월일: 1981년 10월 15일

직업: 프로듀서, 가수

소속 팀: UV, HIGH SYDE,
MIX ASIA

자주 가는 클럽

일루이

좋아하는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좋아하는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음악

발라드를 뺀 모든 음악



UV 곡 중에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곡은?
 '연예인 D.C.'다. 여자친구가 유명 연예인이 되면서 점점 사랑이 멀어져간다는 내용의 가사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며 화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 음악을 안 듣더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KBS 박은영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반응이 좋았다면 "사실은 다 땀이지롱! (목소리는) 박은영이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아쉽다.

UV 새 앨범은 언제 나오나?
 이번 달에 나올 것 같다. 1990년대 듀스풍 '집행유예'를 하고, 1980년대식으로 '이태원 프리덤'을 하지 않았나? 이번엔 1970년대다.

유지에게 뮤직이란?
 백그라운드? 춤출 때나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음악은 늘 내 일상과 함께하는 존재다.

유지에게 유세윤이란 어떤 존재인가?
 누구보다 한없이 밝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

너무 슬프다.
 그 형이 외로움을 좀 많이 타거든.

MBC <라디오스타>에서 유세윤 씨가 당신 앞에서는 어떤지 늘 자신이 없다고 말한 이후로 인터넷에 '유지 대를살'이 돌고 있다.
 하하하. 거 참. 뭐, 내가 자신이 없진 않지. 하하하. ☺



사랑은 집행유예야~

선글라스 량방
 신발 아디다스 제레미 스코트 by 피나클

BY 박현필 누리 WORDS 손민나 PHOTOGRAPH ARC STUDIO FILM 김술기 ASSISTANTS 박정욱, 이호선 COOPERATIONS 다파트먼트(02-515-0434) 량방(02-3218-8310) 버커부(02-514-9006) 블라우어(02-519-2778) 아디다스 제레미 스코트 by 피나클(02-3444-4663) G by 게스(02-3449-4635) 피아(02-3443-7808)

A photograph of a woman lying on her side on a white sofa. She is wearing a black, short-sleeved, ribbed dress and black high-heeled sandals with multiple straps. Her legs are crossed at the ankles. A large, light brown and tan fur blanket is draped over the sofa behind her. The background is a light-colored wall with a subtle pattern.

Woman in Secret Olga Kurylenko

2013년 첫 SF 액션 블록버스터 <오블리비언>에서 모든 열쇠를 쥐고 등장하는 시크릿 우먼 올가 쿠릴렌코. 그녀의 비밀스런 매력으로 빠져보자.





“

고향 우크라이나에선
할리우드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었다

”



**〈퀸텀 오브 슬러스〉 이후
2년만이다. 새 영화를 찍었다지?**

지구 최후의 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다. 〈트론: 새로운 시작〉의
조셀 코신스키 감독과 톰 크루즈와 함께 작업했다.

다른 영화도 많았을텐데, 왜 그 영화를 선택했나?

시나리오가 너무 훌륭하고 재밌었다.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는 못해도 중박 이상은 치잖나? 거기에
아름다운 로맨스까지 있으니 마다할 여배우가 누가
있겠나? 코신스키 감독과 톰 크루즈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었다.

**〈퀸텀 오브 슬러스〉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섹시한
본드걸을 연기했다. 〈오블리비언〉에서 당신이 맡은
'줄리아'는 어떤 역할인가?**

외계인의 침공이 있었던 지구 최후의 날 이후,
모두가 떠난 지구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던 정찰병

잭(톰 크루즈)이 지구로 추락한 우주선에서 생존자
줄리아를 발견한다. 그래서 줄리아의 조작된 기억을
토대로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뭐 그런 내용이다.
한마디로 '줄리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는 거지. 내 캐릭터는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계속
의문을 던진다. 어때? 섹시하지?

**당신은 존재 자체로도 섹시하다. 〈퀸텀 오브 슬러스〉
의 다니엘 크레이그에 이어 또 다시 쟁쟁한 미남
배우와 작업했다. 톰 크루즈는 어떤 사람이던가?
연예인 병에 걸리지는 않았던가?**

촬영장에서 그는 배우이자 제작자로 모든 것에
관여했다.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고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배우다. 몇 시간이고
그를 바라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니까. 촬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도 놀랐다. 세계적인 톱스타가 말이다.

**천재 감독은 모난 구석이 있다면데, 코신스키 감독이
까칠하게 굴지는 않던가?**

미래적인 이야기라서 비주얼이 어떻게 표현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됐다. 그래서 코신스키가 직접
영화의 전체적인 시나리오와 어떻게 영화를
풀어나갈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그가 직접 만든
세트를 처음 봤을 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 우주선이
세트장에서 실제로 날아다녔으니, 영화 속 비주얼은
더 작살날 거다.

그의 예전 작품 〈트론: 새로운 시작〉의 팬이었던?

물론이다. 시각적으로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 그는
말도 안되게 뛰어난 시각적 상상력을 지녔다.
그래서 〈오블리비언〉 시나리오를 처음 읽을 때도 애를
많이 먹었다. 호텔에서 일어나는 러브스토리라면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소와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 글로 적혀
있으니까 말이다.



〈퀸텀 오브 솔러스〉와 〈오블리비언〉 둘다 대작인데, 제작 스케일을 비교한다면?

비슷하다. 근데 세트만 비교하자면 〈오블리비언〉 세트는 대단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된다. 미래에 온 줄 알았다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특수효과가 많아, 블루 스크린 촬영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퀸텀 오브 솔러스〉는 컴퓨터 그래픽 장면이 많지 않아서 블루 스크린 촬영을 할 일이 많이 없었다. 〈오블리비언〉에서는 우주선의 전체 인테리어를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했다. 찍을 땐 아무것도 없는데 영화에서는 내가 우주에서 연기하고 있더라니까!

당신이 본 가장 충격적인 SF영화는 무엇인가?

어렸을 때 본 〈에이리언〉은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고향 우크라이나에서 봤는데,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본 할리우드 영화였을 거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았나?

아니다. 본 기억이 거의 없다. 대신 연극을 보면서 성장했다. 하루는 우리 학교 극장에서 연극 리허설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매력에 빠졌다. 강당 유리창 너머로 연극하는 것을 몇 시간이고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극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내가 너무 어려서 안된다고 퇴짜를 맞았다. 열한 살이 되자마자, 극단에 들어가면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연기 인생이 즐겁던가?

연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언어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에 눈을 뜬 느낌이다. 연기를 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

우리도 당신의 늘씬한 다리를 볼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



올가 쿠릴렌코

(Olga Kurylenko)

생년월일: 1979년 11월 14일

출생: 우크라이나 베르 시크

신체: 177cm

데뷔작:

2005년 영화 〈양지의 표본〉

대표 작품:

〈히트맨〉, 〈퀸텀 오브 솔러스〉,

〈엑스퍼트리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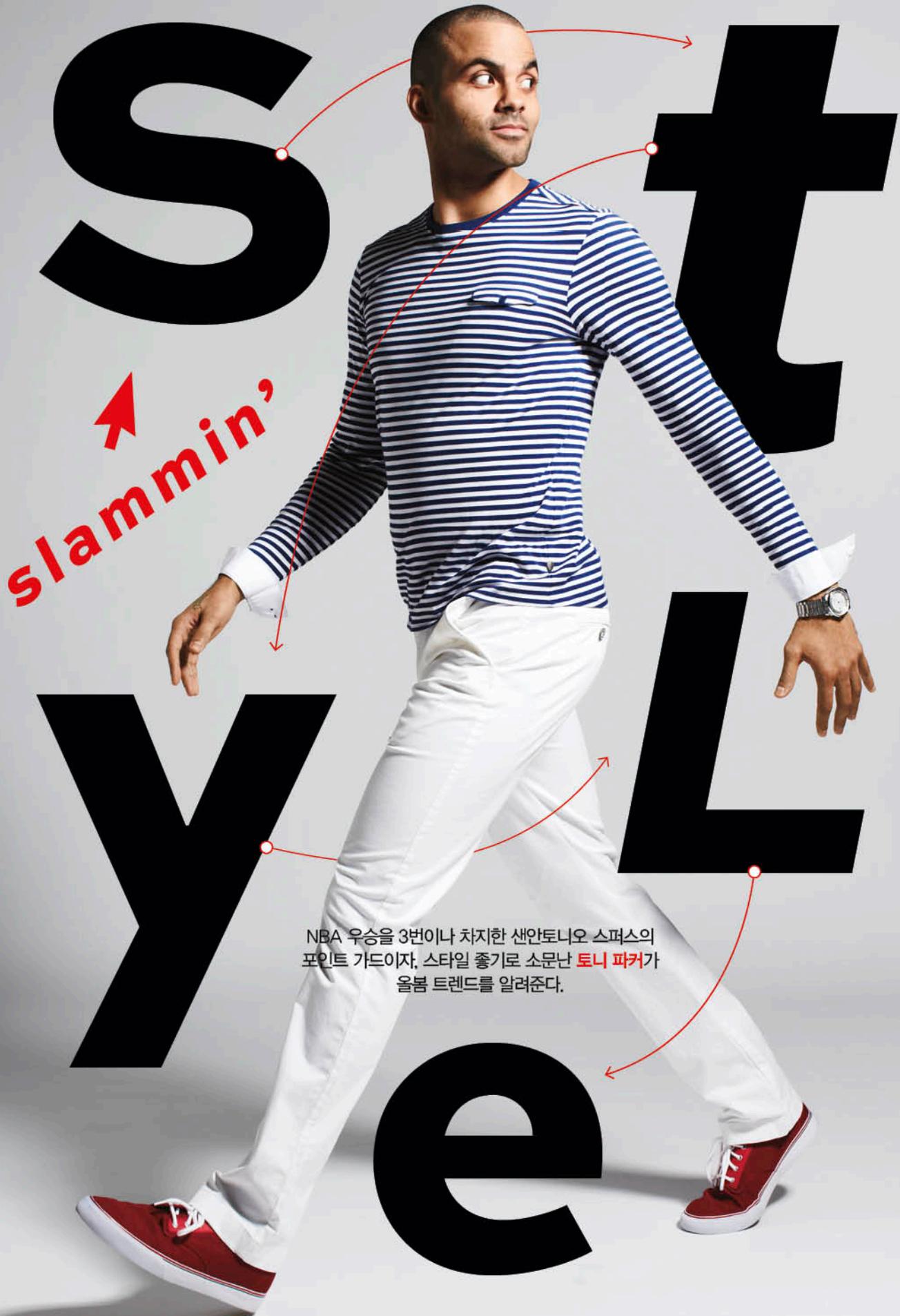


“

열한 살 때 창문 너머로 연극을 보고
연기의 매력에 빠졌다.

”





slammin'

NBA 우승을 3번이나 차지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포인트 가드이자, 스타일 좋기로 소문난 **토니 파커**가
올봄 트렌드를 알려준다.



Plectrum by Ben Sherman

퀸 소매 셔츠, \$90
bensherman.com

Express

바지, \$70
express.com

Lacoste

운동화, \$76
shoes.com

Tissot

Luxury Powermatic 80
chronometer, \$1,150
tissotshop.com



Boss

리본 블레이저, \$645
셔츠, \$255
실크 타이, \$95
hugoboss.com

Boss Orange

카디건, \$85
hugoboss.com

Tissot

Tradition Gent
watch, \$300
tissotshop.com

토니 파커와 여자

토니 파커는 <위기의 주부들>의 에바 롱고리아와 결혼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야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들켜 이혼했다. 토니 파커는 "야한 문자를 주고받은 건 맞지만 섹스는 안 했다"고 말했다. 문자로 그와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상대는 예전 같은 팀 동료인 브렌트 배리의 아내였다.

토니 파커와 클럽

토니 파커는 클럽에 갔다가 장남이 될 뻔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명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가수 크리스 브라운과 드레이크가 싸우며 던진 병 중 하나가 그의 왼쪽 눈가에 꽂힌 거다. 파커는 왼쪽 망막이 손상돼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간신히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NBA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포인트 가드 토니 파커의 옷장을 열어봤다. 옷 잘 입는 남자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올봄에 가장 멋지게 보일 만한 옷을 고르는 비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Luigi Bianchi Mantova
블레이저, \$1,000
badowers.com

Stone Island Shadow
스웨터, \$360
stoneisland.com

Scott James
면 셔츠, \$115
scottjamesonline.com

Boss
Stanino3-W linen
trousers, \$225
hugoboss.com

Boss Green
가죽 벨트, \$135
hugoboss.com

Tissot
PRC 200
chronograph, \$550
tissotshop.com

→ 요즘은 농구 선수들이 옷을 가장 잘 입는 것 같다. 대체 비결이 뭔가?

아마 2005년에 NBA의 데이비드 스톤 총재가 선수들의 힙합 스타일 옷을 금지하고 정장을 착용하도록 한 복장 규정을 도입했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다. 내가 2001년 NBA에 처음 입성했을 땐 모두가 힙합 스타일이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XXXL 사이즈의 저지를 입고 다녔다. 드레스 코드가 정장으로 바뀌었으니 선수들이 패션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스타일 변신에 실패한 선수도 있나?

당연하지. 팀 던컨(샌안토니오 스퍼스)은 아직도 옷을 잘 못 입는다. 드레스 코드가 바뀌었을 당시 선수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며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지. 그래서인지 요즘도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닌다. 워낙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안 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한 패션을 추구하는 선수를 꼽자면?

라셀 웨스트브룩(오 클라호마시티 썬더)과 드웨인 웨이드(마이애미 히트)는 멋내기용 안경도 쓰고, 화려한 색상이나 프린트가 있는 옷으로 좀 과한 스타일링을 시도한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도 나를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 꾸미는 걸 즐거워하고, 그 덕에 NBA의 비주얼도 화려해지고 있으니깐.

당신은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 옷장 안에 카우보이 모자 하나쯤은 당연히 있겠지?

10년 넘게 살았지만 카우보이 모자나 부츠는 없다. 그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캐주얼하고

시크하면서 아주 편안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질 빠진 청바지에 일렉산더 맥퀸 티셔츠를 받쳐 입고 가죽 재킷이나 스포티한 상의를 입는 걸 좋아한다.

지난 시즌에 많은 선수가 턱수염을 길렀지만 성공률은 다 달랐다. 당신의 수염은 비교적 꽤 괜찮은 편이었다.

글쎄. 원정 경기가 있을 땐 팀 전체가 수염을 길렀는데 나는 경기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밀어버려서... 제임스 하든(휴스턴 로키츠)의 수염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수염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웃음)

가장 보고 싶은 NBA 팀은?

나는 경쟁을 좋아해서 센 상대가 좋다. 강력한 라이벌 LA 레이커스와 대결하는 것도 좋고, 댈러스 매버릭스나 휴스턴 로키츠를 상대하는 것도 즐겁다. 마치 그 날이 텍사스의

마지막 승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농구 선수였고 어머니는 모델이었다. 농구 대신 패션계에 진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다섯 살 때쯤 어머니와 런웨이에 서 워킹한 영상이 인터넷에 있다. 모델을 해본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 얼마 전엔 티쏘 시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다.

만약 네 번째 NBA 챔피언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시계와 네 번째 챔피언 반지 중 어떤 걸 착용하고 다닐 건가?

어려운 질문이다! 올해도 챔피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챔피언 반지를 갖게 된다 해도 시계와 동시에 착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건 너무 현란하잖아? ☹️



토니 파커

생년월일: 1982년 5월 17일

출신지: 벨기에

소속팀: 산안토니오 스파스

포지션: 포인트 가드

백넘버: 9



Cnail
블레이저, \$950
bloomingdales.com

Van Heusen
드레스 셔츠, \$45
macys.com

Tommy Hilfiger
실크 타이, \$60
macys.com

Tissot
Visodate Heritage
watch, \$695
tissot.com

Military Look

지겹기만 하던 개구리 무늬(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카무플라주)에서 영감을 받은 밀리터리 룩이 올봄 유행이다. 휴전협정도 백지화됐으니 개구리 무늬로 전투 태세를 갖춰보자.

1. American Eagle Outfitters

셔츠, \$50, ae.com

2. Dockers

Alpha Khakis, \$64
nordstrom.com

3. Tommy Hilfiger

카무플라주 패턴의 실크 타이, \$60
macys.com

4. Gant by Michael Bastian

피케셔츠, \$198
trueruligionbrandjeans.com

5. True Religion

밀리터리 반바지, \$198
truereligionbrandjeans.com

6. DC Shoes

NVRBPKN
Tailblock 캡, \$35, dcshoes.com

7. Diesel

K-Canopo 헨리넥* 스웨터, \$168
diesel.com

8. Ambig

"Stash" 반지갑, \$36, ambig.com

9. Sanuk

Shipwrecked
shoes, \$65, sanuk.com

10. Tumi

Everett Essential
토티백, \$295, tumi.com

11. Massif Collection

Asset 블레이저, \$395
massif.com/collection

*헨리넥: 목 부분에 단추가 3~5개 달린 스타일



Light Brights

울트라 라이트 슈즈를 신고
뛰어보자 팔짝.

1. Adidas

Energy Boost,
9.8oz(278g), \$150
adidas.com

FOR 내구성이 튼튼한 운동화가
필요한 마라토너

2. Reebok

RealFlex Strength TR,
9.7oz(275g), \$100
reebok.com

FOR 발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운동화를 원하는 육상 선수

3. Puma

Blowweb Elite,
10.6oz(301g), \$100
puma.com

FOR 발은 늘 폭신해야 하고,
뛰는 건 상냥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양반님들

4. Vans

LXVI Graph, 7.6oz(215g), \$70
lxvi.vans.com

FOR 걸으면서 지방을 연소시키려는
다이어트 족

5. New Balance

Minimus Hi-Rez,
3.9oz(111g), \$120
newbalance.com

FOR 맨발로 걸어 다니는 느낌을
즐기는 야성적인 수컷

6. Asics

Gel-Lyte 332,
8.5oz(241g), \$90
asics.com

FOR 파워 워킹도 문제없는 튼튼한
무릎 관절의 소유자

7. Skechers

GOrun 2,
6.6oz(187g), \$80
skechers.com

FOR 깔창 없이는 집 밖에 절대
안 나가는 깔창 홀릭



Let's Ride!

사나이 마음에 봄바람이 분다.
가죽 소재의 모터사이클 재킷을 입고
폭주 뛰는 기분이라도 내보자.



1. French Connection

재킷, \$598
frenchconnection.com



2. Marc Moto

빈티지 스타일 재킷, \$650
andrewmarc.com/
marcmoto

**3. Ralph Lauren
Black Label**

재킷, \$3,495
ralphlauren.com

Arm Candy

이런 봄날엔 튀는 색깔의 시계가 어울린다. 화사한 캔디 컬러의 시계 하나면 여자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게 꿈이 아닐지? “시간 있어? 오빠가 진짜 맛있는 사탕 즐겨. 맛 좀 볼래?”

1. Armitron

알람 기능을 내장한 듀얼 타임 디지털 시계, \$35
amazon.com

2. Emporio Armani

아쿠아 스포츠 스테인리스스틸 시계, \$295
emporioarmani.com

3. Movado

Series 800
크로노그래프, \$950
1-866-680-3150

4. Nixon

폴리 카보네이트와 미네랄 크리스탈
케이스의 뉴턴 디지털 시계, \$125
nixon.com

5. Victorinox Swiss Army

Dive Master
500 기계식 시계, \$1,250
victorinox.com

6. Pulsar

파란 고무 스트랩이 달린 시계, \$185
kohls.com

7. Modify Watches

Mix-and-match timepiece,
다이얼 \$30, 스트랩 \$20
modifywatches.com

8. Lacoste

실리콘 스트랩이 달린 스테인리스스틸 시계, \$195
macys.com

9. Tissot

T-Race black quartz
chronograph, \$650
us.tissoshop.com



Body Work

이 도구들로 목은 때와 냄새를 제거하고
불맛이 몸단장을 하자.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자신있게 겨드랑이를 펼쳐봐!

1. Speed Stick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데오도란트, \$3
walgreens.com

2. Dove Men + Care

민감 피부용 세이빙 젤, \$4.50
amazon.com

3. Gillette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 면도기, \$11
gillette.com

4. Robert Graham

플루이드 세이브 키트,
robertgraham.us

5. American Crew

미디엄 홀드 사인 포밍 크림, \$17
americancrew.com

6. Acqua Di Parma

Colonia Essenza 헤어 앤 샤워 젤, \$48
saksfifthavenue.com

7. Anthony Longistics for Men

인스탄트 픽스
오일 콘트롤, \$28
anthony.com

8. The Art of Shaving

면도 전에 바르는 무향 오일, \$25
theartofshaving.com

9. Lacoste

Eau de Lacoste L, 12,12
Blanc fragrance, \$62
bloomingdales.com

10. Caswell-Massey

Pure Badger 면도용 브러시, \$55
caswell-massey.com

11. Zirh

플래티넘 PM 레스큐
재생 세럼, \$125
zirh.com

12. Braun

크루저 하이-데피니션
수염 정리기, \$25
at department stores

Style news

시스템 옴므, 어반 시크 클러치 발매!

세련된 당신을 위해 시스템 옴므에서 어반 시크 클러치를 선보인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질 좋은 소가죽 소재가 고급스럽고, 블랙 컬러와 금속의 지퍼 디테일은 시크함을 더한다. 내부에 달린 다양한 포켓에는 이것 저것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게다가 양쪽 지퍼를 내리면 색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 제품은 전국 시스템 옴므 매장과 현대 백화점 입구정점에서 판매 중이다.

275,000원, www.bestbrandbag.com



리복, 본능적인 움직임 REALFLEX SCREAM 2.0 출시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관철은 신상 운동화를 내놓았다. 4월 출시 예정인 REALFLEX SCREAM 2.0 뉴 버전은 쿠션의 탄력과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통해 유연성을 극대화했으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초경량 메시 소재를 사용했다. 디자인 역시 빠지지 않는다. 특히 봄에 잘 어울리는 상큼한 컬러가 눈길을 끈다. 2013 REALFLEX SCREAM 2.0 뉴 버전은 전국 리복 매장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119,000원, 리복(02-3443-4058)



마운틴하드웨어, 고기능성 경량 '플라스믹 재킷' 출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에 딱 좋은 봄철을 맞아, 마운틴하드웨어가 고기능성 경량 재킷인 플라스믹 재킷을 출시했다. 플라스믹 재킷은 방수습 기술인 드라이큐 이뱀이 적용되어 재킷의 기능성을 높였다. 게다가 입고 있어도 안 입은 것 같은 가벼운 착용감으로 활동량이 많아지는 봄철에 제격이다. 피트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과 화사한 팝 컬러는 소비자에게 봄의 기운을 듬뿍 선사할 예정이다. 4월을 담은 고기능성 재킷을 입고 야외에서 자연과의 몰아일체를 이루고 싶다면? 심플하고도 화려한 색감의 플라스믹 재킷을 추천한다!

18만 원, 마운틴하드웨어(kr.mountainhardwear.com)



독일 여행 가방의 자존심, 리모와 신제품 발표

115년 전통의 독일 명품 여행 가방 리모와(RIMOWA)가 3월 5일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했다. 리모와는 방탄 유리에 들어가는 최첨단 소재와 항공기용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독일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명품 하드케이스 여행 가방이다. 신사스토어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리모와 전통의 알루미늄 트렁크인 토파즈 라인을 비롯해 2013년 신제품 토파즈 스텔스, 가장 가벼운 트렁크에 도전장을 내민 '살사 에어' 등이 전시됐다.

리모와(www.rimowa.com)



WeSC와 SUPER, 핫한 두 브랜드가 낳은 핫한 콜라보레이션

강렬한 햇빛 때문에 애꿎은 그늘 앞에서 자꾸 인상을 쓰게 된다고? 그렇다면 이 선글라스에 주목하자. 스트리트 컬처를 대표하는 스웨덴 브랜드 WeSC가 아이웨어 브랜드 SUPER와 콜라보레이션 선글라스를 선보인다. 작년에도 진행된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1,000개의 한정 수량이 완판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시즌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한다.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미간을 찌푸리지 않고 그녀의 다리를 편안히 훑쳐볼 수 있는데 어찌 지르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게 바로 잇(it) 아이템!

WeSC(www.wesckorea.com)

Watch out!



재팬 무브먼트의 힘!

헬다이버 SB2C-3001 시리즈

손목을 드러낼 일이 많아지는 봄, 헬다이버에서 남성의 자부심을 높여줄 헬다이버 SB2C-3001 시리즈를 제안한다. 헬다이버만의 아이콘인 블루 코팅 글라스, 오픈 방식의 용두, 측면의 헬다이버 로고 음각은 이번 모델에도 적용되어 전통을 계승한다. 또 날짜, 요일, 24시 표시 기능까지 탑재한 JAPAN 멀티무브를 사용해 잔고장 없이 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로즈골드, 블랙, 실버로 색상 또한 다양하다. 공식 홈페이지와 가까운 시계 매장에서 만나보자. 289,000원, 에이맨인터내셔널 (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아부투스의 오토매틱 워치, AR510SWS

오토매틱 시계를 아는가? 건전지의 힘이 아닌 사람의 움직임에 동력을 얻는 기계식 워치를 말한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 흠. 아부투스에서 클래식한 디자인의 오토매틱 워치 AR510SWS 모델을 선보인다. 오토매틱 워치로서는 저렴한 38만 원의 가격이 입문용으로 착용하기 좋다. 오전, 오후를 표시하는 문페이스 기능, 월단위 표시 기능 등 고급 기능을 탑재하고도 25개의 보석을 넣어 디자인의 세련미까지 잡았다. 이제 손목 위에 품격 하나를 올려보자.

38만 원, GLOBAL TIME (02-778-1590, www.arbutus.co.kr)



남자도 블링하게, 제이스프링스 BFH 라인

마초남을 위해 태어난 제이스프링스 워치가 봄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 제이스프링스의 BFH 라인에 강렬한 메탈 보디에 베젤을 넣어 특유의 묵직한 느낌을 살렸으며, 문자판에 블루, 옐로우, 블랙, 화이트의 산뜻한 색감까지 더했다. 특히 BFH004 모델은 메탈 보디와 스트랩에 올 블랙 색상을 입혀 강인함을 더하면서도, 크로노그래프를 산뜻하면서도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꾸며 컬러 대비를 극대화했다. 시침과 분침, 버튼에 요즘 대체인 로즈골드를 넣은 것도 특징. 강인함과 산뜻함을 모두 갖고 싶다면 BFH 라인에 주목하라. 성원(02-3445-4603)

극한 도전의 상징,

루미녹스 ATACAMA Field 922

루미녹스 워치에서 Field 계통의 신제품 ATACAMA Field 1922 워치를 선보인다. 필드(Field) 제품은 사막, 벌판 등의 척박하고 거친 환경에 맞게 설계된 라인. 특히 이번 모델은 칠레 북서쪽 아타카마(Atacama) 사막에서 테스트를 마친 검증된 제품이다. 블랙 컬러의 Gun Metal PVD 케이스와 블랙 카본 다이얼을 채택해 강인한 인상을 준다. 루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 EOL(End of Life) 기능, 스위스 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는 루미녹스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의 상징이다. 80만 원, 밀림시계 (02-757-9866, www.millimwatch.co.kr)



TOC! 튀는 감성으로 무장한

ALBA Active Gents AT3295X

문자판에 색상을 입히는 쉬워드 시계 전체를 독특한 색상으로 꾸미기는 쉽지 않다. ALBA에겐 가능한 일이다! 문자판 뿐 아니라 시계 보디와 스트랩 전체에 청량한 블루 컬러를 넣은 Active Gents AT3295X 모델은 '디자인의 혁신'을 보여준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패턴의 문자판과 무광 인덱스를 넣어 깨알 같은 디테일도 살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거운 스테인리스 소재가 아닌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무게도 확 줄였다. 또 핸즈에 루미브라이트 야광을 더해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인다. 청량한 가벼움으로 무장한 이 녀석, 이 봄에 딱 어울리는 워치다. 26만 원, 삼정시계 (02-511-3182, www.albawatch.co.kr)



유로타임 워치 셀렉트숍에서 거노코퍼레이션을 만나보라

거노코퍼레이션에서 워치 셀렉트숍을 론칭했다. 유로타임 셀렉트숍에서는 기계식 시계 잉거솔과 독일 명품 기술력의 브루노천로, 빅 프레임 워치 데니스 디자인, 이탈리아의 혁신적 디자인을 자랑하는 조르조 페돈을 만날 수 있다. 롯데 백화점 분당점과 대구 대백 프라자점을 오픈했다. 또 유로타임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롯데 백화점 미아점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유로타임의 공식몰에서는 화이트데이 아이템 구매 시 상품권 및 여권지갑, 초콜릿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거노코퍼레이션 (02-3397-7100, www.eurotime.kr)





제니퍼 곤잘레스

(Jennifer Gonzalez)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

생일: 10월 29일

좋아하는 영화: <올란>

숨은 재능: 14년 동안 단련된

피아노 연주 실력

이런 남자는 No: 마마보이

친해지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JGmodeltalent

Sexy
in the Pool
**Jennifer
Gonzalez**

가슴은 예뻐수록,
그리고 젖어있을수록 좋다.



More in
MAXIM
IPAD

미국에 사는 모델 제니퍼 곤잘레스가 우리 편집부로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수영장 화보를 첨부해서 말이다! 이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자, 소원대로 한국 MAXIM에 나오게 됐다. 소감은?

무척 기쁘다! MAXIM 정말 사랑한다! 엄마에게도 자랑했다. "내가 MAXIM에 나오게 됐어요!"

몸매 관리하는 어떻게 하나?

요가와 필라테스를 주로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난 피자를 사랑한다!!!

진정해, 진정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데이트 장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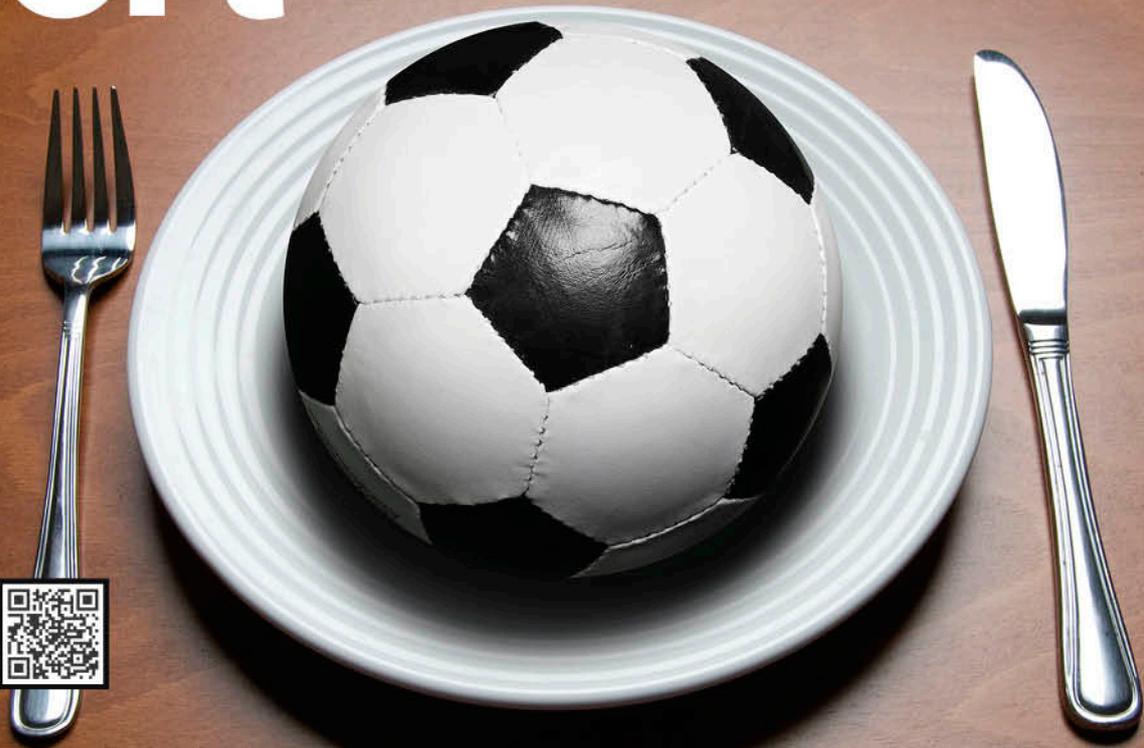
한국식 바비큐를 파는 식당에 데려가달라. 술은 더티 마티니(올리브 주스를 넣어 더 탁하게 만든 마티니)로. 그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단 술은 별로다. 아, 그리고 나에게 야구장 데이트를 신청한다면 기꺼이 당신을 따라갈 거대!

어떤 남자에게 끌리나?

늘 나를 지켜주는 남자. 이왕이면 구릿빛 피부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미소가 멋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단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남자가 좋다.

야구장 데이트에 갈비도 한판 준비하고 당신 좋아하는 칵테일도 대령하면, 키스 정도는 해주겠지?

하하! 그건 당신 하기에 달렸제!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지성 영의
활약



축구 평점, 믿십니까?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숫자 가지고 싸우지 말자.

숫자로 구분되는 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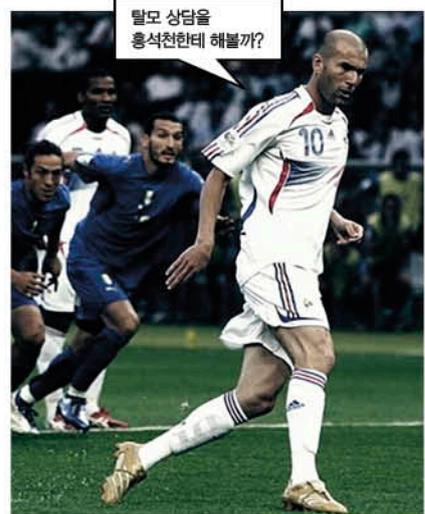
유럽의 한복판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가 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뒤 박지성, 이영표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했고, 2004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유럽 축구는 더 이상 한국인에게 낯선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지금도 QPR로 이적한 박지성을 비롯해 기성용(스완지시티), 손흥민(함부르크),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의 활약에 국내 축구 팬은 일취월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윤석영(QPR)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선수의 경기를 매번 챙겨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경기가 열리기 일췌라 모처럼 큰 맘 먹고 경기를 보고 나면, 다음 날 일상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난다. 그래서 숫자로 선수들의 활약을 평가하는, 이른바 '유럽 매체의 평점제'는 한국 팬에게 더욱 큰 관심을 끈다. 팬들은 '박지성 6점, 기성용 7점'이라는 몇 줄짜리 단신에 경기를 보지 않고도 특정 선수의 활약을 짐작하고 숫자를 인용해가며 그들을 숭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평점제,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만한 형, 키커

조금 지난 얘기를 해보자.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대표 팀은 엇갈리는 평가 속에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다. 구원면 면면이 화려해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이 있었던 반면, 베스트

11의 대부분이 노쇠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프랑스 전력을 평가절하하던 의견의 중심에는 한 시대를 풍미한 '중원의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이 있었다. 그해 6월 14일, 독일에서 열린 대회 G조 조별 리그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기. 두 팀은 전·후반 90분 내내 공방전을 펼쳤으나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날 경기를 중계한 해설진은 "월드컵 개막 이후 최악의 경기"였다고 혹평했고 "지단 또한 선수 생활 중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었다. 독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축구 전문지 <키커>가 그랬다. 이 집지는 프랑스-스위스전의 히어로로 지단을 꼽았다. 당시 <키커>가 지단에게 준 평점은 2.5점. <키커>는 잉글랜드 매체와 달리 1~6점 순으로 평점을 매기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활약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1점이면 경기장에서 날아다녔다는 것이고, 6점이면 보이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스위스-프랑스전을 뚫 22명의 선발 선수 가운데 지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프랑스가 스위스에 비겼으나 지단만큼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게 <키커>의 평가였다. 물론 평점 자체가 주관적 자료고,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키커>라면 얘기가 다르다. <키커>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일반적인 평점과 달리 최종 평점이 발표될 때까지 최소 하루에서 최대 사흘을 소요한다. 이 기간 해당 경기를 취재한 여러 명의



말모 상담을
흥석천한테 해볼까?

기자가 적절한 평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눈다. 매주 금요일 1경기, 토요일 6경기, 일요일 2경기씩 벌어지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선수 평점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발행하는 <키커>의 월요일판에 반영된다.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 경기가 열린 독일 월드컵 때는 대회 특성상 경기 하루 뒤에 발표하는 예외를 적용한 바 있다. <빌트>, <익스프레스> 등의 유명한 독일 매체가 월드컵 기간 <키커>의 평점을 인용할 만큼 그들의 평점제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세계적 축구 스타들은 오히려 평점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있다. 실제로 자단은 독일 월드컵에서 엄청난
노익장을 발휘했다. (키커)만이 주목한 스위스전,
우리나라와 치른 조별 리그 1, 2차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이후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전 등 경기를 치를수록 팬들은 그의
발끝에 시선을 고정했다. (키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제는 한물간 선수'로 평가받던 자단은
극히 부진했던 스위스전, 한국전부터 서서히 부활의
조짐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축구 종가집 영국의 허술한 평점제

국내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다수의 프리미어리거를
보유하고 있는 종가집 영국 축구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체가
공신력보다는 신속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평점을 독자에 대한 서비스 상품으로 보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흥민, 구자철, 지동원 등 독일
분데스리거의 평점 소식은 국내에도 하루 늦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박지성, 기성용, 윤석영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들의 평점 뉴스는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번역돼 국내에 전해지곤 한다.
프리미어리그 주관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평점은
경기당 단 한 명의 기자가 작성한다. 선수의 전체적인
경기 수행 능력과 팀 공헌도가 평가 기준이 된다.
평점의 등급은 10점(경기 내내 애밖에 안 보였음),
9점(필드 위를 날아다님), 8점(잘함, 팀 승리에

기여했음), 7점(인상적이었음), 6점(평균, 경기에
뛰는 것 같긴 했음), 5점(평균 이하, 실수하는 모습이
보였음), 4점(못함, 내가 감독이었으면 너 뺐음)
등으로 분류된다. 평가 인원이 한 명뿐이고 고심할
시간 여유도 없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등급별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한때 국내에서 '스카이 스포츠'
보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평점이 신뢰를 얻은
적이 있는데, 이 맨체스터의 지역지 또한 평점제를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스카이 스포츠'와
비교해 다를 게 없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평점
등급은 10점(외계인이 분명함), 9점(잘했음), 8점(아주
잘함), 7점(평균 이상), 6점(평균), 5점(평균 이하),
4점(못 함), 3점(아주 못 함), 2점(희망이 안 보임),
1점(쓸모없음) 등으로 나뉜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가 평점제를 시행한 지는 30년이 넘었으나 '스카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의 취재기자가
작성하며, 경기가 끝난 직후 출전 선수 22명의
서열이 나뉜다. 가끔 경기 직후 평점이 온라인상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기자의 태업
때문이다. 국내에 전해지는 프리미어리거들의 평점은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빛어지는
팬들 사이의 논란을 보고 있노라니 쓴웃음이 가시지

않는다. 심지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몸담고
있는 취재기자 자신도 자사에서 시행하는 평점제를
맹신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취재기자가 경기 상보를 쓰는 것은 물론 출전 선수의
평점까지 작성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또 최단
시간 안에 작성해야 하므로 100% 정확하지 않다.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홈팀과
원정 팀을 포함한 선수 22명의 경기력을 단 한 명이
확인하기는 무리다."

우리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평가할 때 해외
매체의 반응 한 줄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다. 특히
영국 매체의 평점제는 과정이 매우 허술함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특정 선수의 부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왔다. 물론 모든 매체의
평점제가 그렇지는 않다. 앞서 밝혔듯 독일 (키커)의
평점제는 신뢰성이 대단히 높다. 정작 아쉬운 것은
(키커)식 평점제를 도입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평점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만 대~한민국이냐!

국가별 평점제 K리그에도 관심을...

	평점 등급	평점 방식	신뢰도
독일 키커	1 → 6	여러 명이 회의	좋음
독일 빌트	외계인급	기자 한 명이 평가	그다지
이탈리아 골닷컴		기자 한 명이 평가	그다지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기자 한 명이 평가	그다지
영국 스카이 스포츠		기자 한 명이 평가	그다지
영국 유로스포츠	1 → 10	기자 한 명이 평가	그다지
영국 더선	개발	기자 한 명이 평가	그다지
영국 가디언		기자 한 명이 평가	보통
한국 프로축구연맹		여러 명이 회의	아무도 관심 없...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다섯 번째 본선진출자

오하루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MISS MAXIM의 다크호스,
역대급 몸매의 소유자 Oh! 하루의 촬영장 점령기!

언더웨어 세트
르페

MAXIM

OF THE MONTH



More in
MAXIM
iPAD

만나서 반갑다! MISS MAXIM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 우연히 잡지에서 2011 MISS MAXIM 이명희 씨 화보를 봤다. 귀엽고 동양적인 마스크가 먹히는구나 싶었다. 나도 틀린 답이었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웃음)

길거리에서 현탕당한 적이 있나? 여태까지 딱 한 번 있었다. 아마도 내 인상이 좀 날카로워서 그런 것 같다. 대화해보면 안 그런데..

언제였나? 작년 여름쯤이었다. 번호는 안 줬다. 현탕당하는 게 처음이라 번호를 쉽게 주면 왠지 안 될 것 같았다.(웃음)

따뜻한 봄날엔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나? 햇볕이 쏟아지는 따뜻한 봄날엔 남친과 흰 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가로수길을 걷고 싶다. 그리고 비 오는 창가에 월경한 니트를 입고 앉아 있을 때 남친이 뒤에서 안아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어떤 남자여야 하나? 나보다 키만 크면 상관없다. 외모는 별로 안 따진다.

평소 당신의 옷차림은 어떤가? 귀여운 건 정말 안 어울린다. 주변에서 색시하게 입는 게 어울린다고 하더라.(웃음)

혹시 요리도 잘하나? 요리는 정말 못 한다. 할 줄 아는 건 계란 프라이랑 라면 정도?

괜찮다. 나처럼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 응, 그치만 남편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은 로망이 있다.(웃음)

좋아하는 스포츠는? 과장 좀 보태서 나는 세상에서 공이 가장 무섭다. 오히려 격투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다. 싸움을 잘하고 싶었다.

나도 태권도 유단자다. 시간 나면 겨루기 한번 어때? ㅎㅎ

슈퍼모델
몸매 감상!



2013
MISS MAXIM
CONTEST
여섯 번째 본선진출자

류시아

이름만큼 시원시원한 그녀,
칭순한 얼굴 뒤에 숨은
류시아의 쿨한 매력 속으로!

언더웨어 세트
르페

언더웨어 세트
마싱도로시



MISS MAXIM 콘테스트에 지원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이 뭐라던가? 난리가 났대. MAXIM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하길래 단번에 지원했다.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 단정한 스타일. 연예인으로 치면 옷차림도 단정하고 똑똑해 보이는 유태안경을 낀 배용준이나 성시경 같은 스타일. 짐승남은 별로다.

마치 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 사실 당신 완전 내 스타일이다.(웃음)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자.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이 자리에서 당장 보여주겠다! 장만지! 장만지가 두꺼운 사람이 멋있다.

장만지라면 자신 있다! 근데 당신에게 접근하는 작업남도 많았겠지? 기억에 남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달라. 촬영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됐다고 했는데 친절까지 같이 타면서 쫓아 왔다.

좀 있으면 만우절이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해본 거짓말은 뭐가? 모델 일 하는 걸 숨기고 싶었다. 성격상 내가 모델이라고 밝히는 게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다이소에서 일바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웃음)

안 들켰나? 결국 들켰지.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걸 어디서 봤더라고.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MAXIM 이름만 들어도 남자들이 난리법석을 떠는 매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집을 떠는 때 아디던 언제 어떤 걸 해 보겠어요.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굳이 1등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질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미녀가
숨어있어!



Table of Truth

이 탁자에 앉으면 진실만 말해야 한다!
오랜만에 진실 게임 한판 해볼까?

오하루

자신이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

아침에 화장하고 나서 거울을 볼 때.
입술이 좀 섹시하다 싶을 때가 있다.
(웃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섹시함을 발산한 적이 있나?

남친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남친이 될 잠깐 가지러 집에 올라갔다. 그 사이에 일부러 섹시함을 어필하려고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자는 척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웃음)

MISS MAXIM 출신 중에서 '이 사람 정도는 돼야 내 라이벌이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양적 페이스와 서구적 몸매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명희 씨? 내가 키는 더 큰 것 같다!

처음 만난 이성에게 어디까지 스킨십을 허용할 수 있나?

처음엔 절대로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어려운 여자'라는 걸 어필하다가 갑자기 허를 찌르는 강력한 스킨십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법이지.

오하루

이상형 살집 있는 남자
취미 사진 모델 활동
특기 갑자기 정색하기
좋아하는 음식 매운 족발
싫어하는 음식 회



류시아

술버릇이 있나?

술을 잘 못 마셔서 빨리 취한다. 원래 잘 웃고 밝은데, 술을 마시면 거의 천배는 더 시끄러워진다.(웃음) 친구들 말로는 여자 노홍철이 된다고 하더라.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가슴!

나체 상태로 셀카를 찍어본 적이 있나?

없다?

물론 있다! 한창 몸매 관리를 할 땐 셀카 찍은 걸 보면서 좋아했지. 아마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보내줬을걸? (웃음)

가장 최근에 야동을 본 것은 언제인가?

요즘은 잘 안 보는데 몇 개월 전에 한창 즐겨 봤다.(웃음) 대부분 실사보다는 망가였다. 느끼는 표정의 미소녀가 왠지 더 자극적이더라.

처음 만난 이성과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음... 나는 쿨한 편이다.(웃음) 마음에 들고 배려심 있는 남자라면야 원들 못 하겠나?

류시아

이상형 미소가 예쁜 남자
취미 만화 보기, 타로 카드 등
특기 요가, 댄스
좋아하는 음식 초콜릿으로
만든 모든 음식
싫어하는 음식 치즈 같은
느끼한 음식

언더웨어 세트
칼라짚

TOY OF
THE MONTH

만우절

만우절 장난감

여자 꼬시는 데는 국경도, 때와 장소도 상관없다!
만우절에 여자 꼬시는 법.

"우리 집에 와서 감자칩 먹고 갈래?"

감자칩 뚜껑을 열자마자 길고 딱딱한 것이 얼굴을 세차게 때린다.
프링글스인 줄 알고 뚜껑을 따면 스프링으로 된 긴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엉뚱을 쫓기하게 만든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몇 번을 다시
해도 여전히 탄성이 엄청나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네!

깜짝 포테이토 칩, 7,000원, 스투피드 www.stupid.co.kr





그거 왜 샀어? #7

지름 품목: LG 헬스케어 공기청정기

LA-N155DW

여자를 꼬시겠다는 일념하에 공기청정기까지 구입한 MAXIM 에디터를 만나봤다.



도대체 이걸 왜 산 건가?

내 자취방이 번지하다. 요즘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한번 놀러 오더니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괴로워 하더라. 앞으로 이 자취방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녀의 잦은 방문을 위해 미리 시원하게 질렀다.

어디서 얼마 주고 샀나?

집 근처 LG전자 BEST SHOP 동교점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정가는 59만8천 원인데 10만 원 넘게 할인해준다는 판매 사원의 말에 혹해서 49만 원에 구입했다.

공기 정화 수준은 만족스러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칼칼하기도 않고 확실하게 상쾌한 기분이 든다. 총각 혼자 사는 방에 밤꽃 냄새가 사라지니, 웬 아가씨라도 한 명 데리고 사는 것 같다.

물건 자랑 좀 해봐라.

물건 자랑이라...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질문이군. 원래는 먼지 제거용으로 구입한 건데, 의외로 냄새 제거 기능 덕을 보고 있다. 원룸형 자취방이라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 그 냄새가 방안 가득 퍼져서 요리해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면 옆에서 바로바로 냄새를 빨아들인다.

그 외에도 특별히 유용한 기능이 있다면?

센서가 자동으로 냄새를 감지해 정화하는 자동 운전 기능이 유용하다. 한번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간 틈을 타 조용히 '복-' 하고 가스를 몰래 해방시킨 적이 있었다(원래 내 방귀가 소리 없이 강한 타입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공기청정기 팬이 미친 듯이 빠르게 돌면서 냄새를 빨아들이더라.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가 뛰어와서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다행히 냄새를 들린 것 같진 않았지만... 쪽팔렸다.

코딱지만 한 자취방에 두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모르는 소리! LG BEST SHOP 판매 사원 왈,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제품 크기가 아니라 '평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제품의 평형은 48㎡이니까 15평 정도 되는 내 원룸에 딱 적당하다. 제품 폭이 좁은 편이라 책상 밑이나 벽 쪽에 밀착해두면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가?

필터를 자주 청소할수록 공기 정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다. 청소기 필터처럼 탁탁 먼지를 털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성세제를 푼 물에 담가놓아야 한다. 중성세제가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는 엄청 번거로운 일이다! 자동 필터 청소 기능이 있는 상위 모델을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공기청정기를 추천하겠나?

지하 혹은 반지하 방에 사는 청춘들에게 추천한다. 비록 창문 없는 곳에 살지라도 맑은 공기 마시고 살 권리는 있다고!

구매 자리 포트



구매자: 소리 없이 방귀 귀는 박한빛누리 에디터
 구매가: 490,000원
 구매 동기: 튼튼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기청정기가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

부러움 지수: 🍌🍌



Game on! Logitech vs. Razer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임 중독.
이를 조장하는 두 대표 게이밍 기어 브랜드 '로지텍'과 '레이저'가
독침을 곳곳이 세우고 당신에게 속삭인다. "질러."
근데 뭐가 어떻게 좋은지는 일단 따져보자고.



Logitech Gaming Keyboard G110

백날 PC방 마우스나 짝어내는 줄만 알았던 로지텍이 최근 게임 기어 붐을 주도하고 있다. 버튼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요즘의 게임 트렌드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걸까? 로지텍이 게이밍 키보드 G110을 일찌감치 출시한 것은 훌륭한 선견지명이었다. 입맛대로 색을 고를 수 있는 백라이팅 기능은 밤눈이 어두운 게이머의 등대가 되어 주고, 각각 단축키로 지정할 수 있는 12개의 별도 키 덕분에 초보 게이머도 천수관음이 되어 고수들을 하나 둘 처발처발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플레이어를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든 '멀티미디어 컨트롤/음소거 키'는 진정한 신의 한 수다. 갑자기 어머니가 방에 들이닥쳐도 남은 한 손으로 바지를 올릴 수 있거든.(그러라고 만든 키 맞지?)

SPEC CHECK

PC 인터페이스 USB 2.0
방식 멤브레인, 유선
단축키 12개 x 3세트, 총 36개
크기 510mm(L) x 245mm(W) x 23mm(H)
백라이트 파랑/보라/빨강(세부 조정 가능)
가격 11만 원대
문의 로지텍(00798-601-8207)



Logitech G9x Laser Gaming Mouse

다른 게이밍 마우스에 비해 조금 심심하게 생겼지만, 애플 제품처럼 직관적인 게 나쁘지 않다. 현재 마우스 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이지로 보여주는 LED가 달려있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dpi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아래에 있는 +/- 버튼으로는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다른 마우스보다 훨씬 넓다. 예컨대 감도를 최소로 줄이면 마우스로 책상을 쪽 가로질러 훑어도 포인터가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반면, 감도를 최대로 높이면 손목만 까딱해도 포인터가 모니터를 뚫고 탈출한다. 그래서인지 녀석은 특히 FPS 게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다. 덕분에 고도의 컨트롤을 요하는 스나이퍼부터 방향을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소총수까지, 상황에 맞게 감도를 조절해가며 효율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었거든.(그래서 마감이 늦어졌어, 영영)

*DPI(Dots Per Inches)

가로/세로 각각 1인치의 사각형 안에 얼마나 많은 점이 들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치다. dpi가 높은 마우스일수록 사용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인식해 조금만 움직여도 포인터가 멀리 움직인다. dpi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포토샵처럼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엔 오히려 dpi가 낮은 쪽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고가 마우스는 dpi를 낮은 수준부터 매우 높은 수준까지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점 따윈 없다. 시중에는 400dpi로 작동하는 일반 저가형 모델부터 최고 감도가 8,000dpi에 육박하는 비싼 모델까지 다양한 마우스가 출시되어 있다.

SPEC CHECK

해상도 200~5,700dpi
크기 80mm(W) x 110mm(L) x 40mm(H)
무게 120g(+최대 28g)
방식 USB 전원 케이블
가격 11만 원대
문의 로지텍(00798-601-8207)



Razer Ouroboros

'오로보로스'는 게이머를 위한 제품만을 철저히 고집하는 레이저사의 야심작이다. 게임용 마우스치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인 제품은 드물다. 그 덕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모두 별다른 설정 변화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휠 아래에 있는 2개의 버튼으로 감도를 조절하며, 양쪽에 각각 2개씩 달린 버튼은 사용자 입맛대로 기능을 지정할 수 있다. 손목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몸체의 길이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물론 이런저런 장점을 떠나서, 이렇게 간지 나는 마우스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지.

Razer Black Widow Ultimate 2013

기계식 키보드 마니아들은 키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인간들이다. 즉, 자판을 누를 때 '손끝에 전달되는 기감이 얼마나 잘치냐'는 기계식 키보드 유저가 키보드를 살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구매자가 미리 키를 눌러볼 수 있도록 몇몇 제품들이 좋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계식 키보드인 레이저 블랙 위드우는 기존의 게임용 키보드를 압도하는 훌륭한 기감을 선사한다.

과장 좀 보태면, 키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방아쇠를 당기는 착각이 들 정도니까, 타이핑 소리는 상대적으로 날카롭고 큰 편이라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를 거대이걸로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키를 누를 때마다 누군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몹시 눈치가 보인다. 게임용 키보드답게 본체 옆면에 별도의 USB 커넥터와 마이크, 이어폰잭을 뚫어 놓았다. 제조사의 작지만 따뜻한 배려가 돋보인다.



SPEC CHECK

해상도 100~8,200dpi
 최소 크기 70mm(W) x 122mm(L) x 40mm(H)
 무게 115g
 방식 유·무선 연동
 가격 16만 원대
 문의 웨이코스(02-712-2630)



SPEC CHECK

PC 인터페이스 USB 2.0
 방식 기계식, 유선
 크기 475mm(L) x 171mm(W) x 30mm(H)
 백라이트 녹색
 가격 15만 원대
 문의 웨이코스(02-712-2630)

KEYWORDS for KEYBOARD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키워드!

멤브레인(Membrane)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무난한 키보드. 지판을 누르면 아래에 깔린 고무 패드가 전자회로에 입력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 단가가 싸서 많이들 쓴다.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만큼 키감이 부드럽진 않아 손가락이 금방 피곤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싸니까 막 쓰기 좋아야?

기계식(Mechanical)

지판 하나하나가 스위치처럼 별도의 입력 신호를 보내는 방식. 가볍게 눌러도 타이핑이 되므로 멤브레인보다 손이 덜 피곤하다. 키감이 찰진 대신 비싼 게 흠. 참고로 기계식 키보드 중 딸깍딸깍 '타자기 치는 소리'가 유난스런 제품을 사용하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 후후...)

펜타그래프(Pentagraph)

노트북에 주로 쓰이는 '얇은' 키보드류. 엄밀히는 키캡 밑에 X자형 스프링을 넣은 것을 펜타그래프라 한다. 키를 누르는 느낌이 희미하고(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눌린 키가 올라오며 손가락을 되이는 반동도 약해서 찰진 느낌이 없다. 게다가 키 소리 역시 엄청나게 고지없다(좋게 말하면 정숙하다). 토토토톡...



동계몽게
 피어나는
 연기의 비밀



MAXIM 뽐뿌질

얼리어답터로 곧추서라!

LG전자의 두번째 G 시리즈, 옵티머스 G pro 국내 출시

LG전자가 옵티머스 G pro를 국내 출시했다. 기존 HD 화질보다 2배 높은 생생한 화질과 5.5인치 대화면은 사용자에게 입체적인 뷰를 선사한다. 국내 스마트폰 중 최고 사양인 210만 화소로 고해상도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터리도 동급 최대 용량으로 탑재했다. 특히 하나의 화면에 최대 3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 태스킹 기능을 넣어 편리함을 더했다. 카톡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고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스마트폰 진화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옵티머스 G pro. 다음 모델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까?

LG전자(www.lge.co.kr)



거실에서 즐기는 뽐뿌한 사운드, Bowers & Wilkins Panorama 2

평면TV의 내장 사운드가 아쉽다고 느낀 사람을 위해 로이코에서 준비했다. 생생한 사운드를 전달할 TV의 완벽한 파트너 B&W Panorama 2 사운드바를 소개한다. 이 스피커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사운드를 녹음할 때 사용한 B&W의 800시리즈 스피커와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또 멀티 서라운드 시스템은 어느 각도에서도 뽐뿌한 고품격 음향을 제공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음향은 영화를 감상할 때 내 집 거실이 영화관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제 그녀에게 자신 있게 말해보자. 영화관 말고 우리집에서 영화 보고 (내일) 갈래?

ROYCO(02-335-0006, www.royco.co.kr)

소니코리아, 미러리스 알파 NEX-3N 출시!

휴대가 용이한 미러리스 DSLR 성능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소니 미러리스 알파 NEX-3N은 어떨까? 파워 줌 렌즈를 장착하고도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게 자랑인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소지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히 줌 기능은 사중 DSLR 카메라가 부럽지 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또 피사체의 원근감, 동작까지 파악하는 똑똑한 기능이 있어 사진을 찍고 나면 전문가가 찍는 느낌이 난다. 소프트 스킨 기능은 인물 사진에 최적화되어 셔터만 눌러도 실물보다 더 나은 모습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미러리스 알파 NEX-3N을 사용할수록 이제 당신도 사진찍는 매력에 점차 빠져들걸?

소니코리아(1588-0911, www.sony.co.kr)



에이수스 안드로이드 태블릿, 미모패드 ME172V

에이수스에서 안드로이드 젤리빈을 탑재한 스마트 패드를 선보인다. 미모패드 ME172V는 1024x600 해상도에 멀티터치를 지원하며 최대 32GB의 저장 용량을 자랑한다. 사용자가 한 손으로 태블릿을 사용하기 좋게 미니멀하게 제작하였다. 또 다이아몬드 패턴과 다양한 컬러의 외관으로 제품의 스타일리시함을 더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호환되는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이 함께 제공되니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시크한 당신에게는 티타늄 그레이, 단디한 당신이라면 슈가 화이트, 스타일리시한 당신이라면 체리핑크의 태블릿이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픽업!

네오노트(02-715-5890, www.neonote.co.kr)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끝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TV의 16개 시리즈 70여 개 모델을 새로 출시했다. 2013년 삼성형 스마트 TV에서 선보인 스마트 허브는 멀티 태스킹 기능이 탑재되어 최대 다섯 가지의 콘텐츠를 한눈에 즐길 수 있다. 사진을 보면서 TV 채널을 검색하고, 영화 보면서 음악 듣고 페이스북 업데이트까지! 또 음성 및 모션 인식도

가능해 TV를 켜고 "뭐 볼 거 없을까?"라고 말만 해도 자동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채널을 추천해준다. 게다가 터치 리모컨에 원하는 채널을 입력하면 빠르게 인식하고 채널을 전환하기도. 진화하는 TV가 진정한 스마트 TV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와 함께 하자.

삼성전자

(www.samsung.com/sec)



Game



CHARACTER OF THE MONTH

플랫폼	PS3
등급	15세 이용가
개발사	KOEI
유통사	DIGITAL TOUCH
가격	63,800원

이모님
힘이 참
좋네요.



진 삼국무쌍7: 장춘화

너무 많이 우려먹어서 더 할 게 있나 싶다가도, 홀린 듯 <진 삼국무쌍> 시리즈를 또 하게 되는 이유.



장춘화

진나라 시마의 아내로, 시마의가 실은 엄청난 공처가였다는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슈퍼우먼 캐릭터. 외유내강형 캐릭터인 그녀는 풍부한 숨가로 모성애를, 보라색의 드레스로 신비함을 드러낸다. 고혹적인 유부녀는 백만 여고딩 대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듯, 그녀는 새로 추가된 캐릭터를 가운데서도 탁월한 색시함을 자랑한다. 아이! 시마의 부러운 자식!

진 삼국무쌍7

<삼국지>라는 소재 하나로 액션, 전략, RPG 등 별의별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 먹고 사는 KOEI사의 효자 타이틀 <진 삼국무쌍> 시리즈. 그 일곱 번째 작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유저들의 원성이 무색하게도 다양한 캐릭터와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진 삼국무쌍7>은, '역대 시리즈의 집대성'이라는 자신만만한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올 봄 콘솔 게임계를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 궁극의 미모를 지닌 여자 캐릭터들과 함께 말이다.

진 삼국무쌍 7의 새로운 시스템

→ 스톱 러쉬

공격을 계속해 적의 시기를 나타내는 '기백 게이지'를 0까지 떨어뜨리면, 추가 공격을 넣을 수 있는 '스톱 러쉬'가 발동된다. 이로써 한 번의 연속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 배리어블 카운터

상대의 차지(강) 공격 흥에 타이밍을 맞춰 공격하면, 배리어블 카운터 모드를 발동한다. 이를 이용해 얻어터지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거나 도망갈 수 있다.



→ 두 가지 성장 요소

레벨에 따라 콤보와 스킬이 늘어나던 진지와 달리, 신작에서는 전투 중에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스킬은 예전처럼 무장 한 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장들도 무기를 바꾸듯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이런저런 스킬을 멋대로 조합해 다채로운 전투를 즐겨 보자.



진 삼국무쌍7 여캐 미모 분석

이 처자들이 전작보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 거다. 관심 있으면 페이지 고정!

Better
전작보다 아름다워진
여성 캐릭터들

절세미녀의 올바른 자세 / 조선

이교 자매와 함께 <삼국지>의 또 다른 절세미녀로 불리는 조선은 원래 직업인 '무희'답게 나뭇가리는 망사 옷을 즐겨입는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노출 수준이 더 심해진 것도 모자라 <아리비안 나이트>의 이국적인 분위기마저 감돈다. 두 갈래로 갈라진 상의가 이슬이슬하게 가슴만 가린 채 양 갈비뼈로 떨어지다가, 배꼽을 중심으로 끼고 어딘가를 향해 격렬히 모이고 있다. 대체 저 옷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벗겨야 할지 헛된 상상력마저 자극한다. 아아, 코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관촬아 / 왕원희

<삼국지> 원작을 본 사람들조차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할 정도로 왕원희는 인지도나 비중이 굉장히 희미하다. 하지만 코에이는 '은발 폰티테일+겨유'라는 탈 동양녀 스펙을 그녀에게 장착했고, 그 결과 현재 유저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원래 예뻐서 지난 작품과 외관상 큰 차이는 없으나, 원피스와 일체형이던 브라 부분이 브라탑과 코르셋 레이어드로 바뀌어 가슴이 한층 강조되었다. 쓰잘데기 없던 목 부분의 밴드도 사라져서 목과 가슴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이 예쁘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합법적 로리 / 소교

전작에서 중국 꼬마와 마법소녀의 하이브리드형 복장으로 유저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로리 소녀 소교, 절세미녀라는 역사적 고증은 어마 팔아치웠는지 어디서 예쁘장한 초딩 두 명을 데려다가 강동 최고의 미녀 자매에 갖다 붙였다. 동생인 소교가 전작의 쓰레기 같은 날개옷을 벗어던지고 한층 어른스러워진 외모로 돌아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원작에서 순채과 주유가 이교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들의 나이가 20 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성인이 맞는데... 이걸 좀 해도 해도 너무나 처사가 아닌가.



처녀보다 아름다운 돌싱 / 견희

농염한 유부녀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그녀는 지난 작품부터 망사를 즐겨입었다. 전작에서는 망사 드레스로 상반신 노출을 감행했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파격적인 망사 스타킹을 착용해 강예빈도 울고 갈 섹시한 매력을 뽐낸다. 혹시 코에이의 새로운 협찬사 중 에블린(여성 랜제리 브랜드)이라도 있는 건가?! 개량형 치파오 사이로 보이는 허벅지 라인이 예술인데, 특히 말을 탈 때 속옷이 이슬이슬하게 보일락 말락 하는 장면은 역대 <삼국무쌍> 시리즈 중에서도 손에 꼽는 명장면이야!





얼굴만 예쁘다고 전부가 아니다 / 채문희

시리즈 외전 격인 <진 삼국무쌍 멀티레이드2>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채문희는 지난 작품부터 정식으로 시리즈에 출전했다. 그녀는 사슴같은 눈망울과 희고 고운 얼굴로 남성 유저들의 보호본능을 자극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속셈인지 복장에서 노출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번에는 쇄골 라인만 살짝 드러낸 네크라인이 묘하게 섹시했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마저 엘비스 프레슬리 무대의상 같은 옷깃으로 덮어 버렸다! 빌어먹을, 제작사는 1년 동안 뭘 한거야?



Worse
전작보다 실망스러운
처자들



언니만한 동생 없다는 건 거짓말 / 대교

점점 몸집만한 부채를 들고 출랑대던 어린 '무희'로 되돌아가고 있다. 분명 전작에서는 '소녀 티'를 벗은 느낌이 들던 풍겼는데 말이다. 일자 앞머리에 트윈테일이라니 어려 보이려고 작정을 하셨네. 유치하다 못해 조잡한 가슴 언저리의 푸른 보석은 비상시 뺄뚱뺄뚱하고 울릴 것 같아 불안하다. 울트라맨?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전작보다 볼륨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실마 뿜어냈!



몸매가 되니까 옷이 촌스러워도 봐주자 / 연사

연사는 지난 작품에서 새로 추가된 캐릭터로, <진 삼국무쌍>의 역대 캐릭터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몸매를 자랑한다. 상반신에 탑재한 수박 두 덩어리 덕에 무슨 옷을 입어도 섹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번 작품의 캐릭터 디자이너가 유난히 치파오형 원피스를 좋아하는 탓에 떡대가 넓어보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게다가 확실히 전작보다 몸이 부었다. 가늘픈 허리에서부터 크고 아름다운 골반으로 이어지는 섹시한 라인을 자랑하던 전작에 비해 골반이 줄고 허리가 두꺼워졌다. 통이좁다 다 됐네?

**주말 드라마
<삼국의 딸들>**

...은 거짓말이고 캐릭터 별
달은 꿀 연예인 찾기!



채문희 - 강민경

선한 인상과 청순하게 흰 피부가
도드라지는 그녀는 청순 섹시의
대표 주자인 강민경을 닮았다.



대교 - 아이유

상큼발랄한 그녀의 귀여운
이목구비를 소화할 사람은 역시
귀요미 아이유뿐!



포삼랑 - 전효성

오밀조밀한 얼굴과 크고 아름다운
그것까지... 왠지 모르게 전효성을
썩 빼다 닮았네!



간병 - 김남진

날카로운 코, 찢어진 눈매, 그리고
건방진 표정까지! 김남진한테
캐릭터 초상권을 산 걸까?



맹획 - 이원중

술을 향아리째 들이킬 것 같은
장수의 모습은 영락없는 주당
이원중!

이거면 태워준다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유리와 함께 하는 똥굴똥굴 모바일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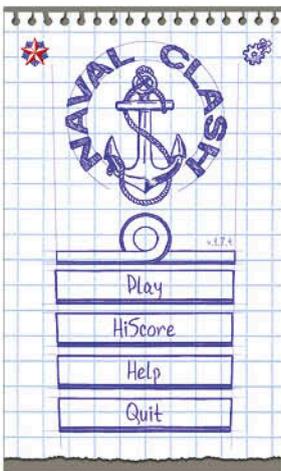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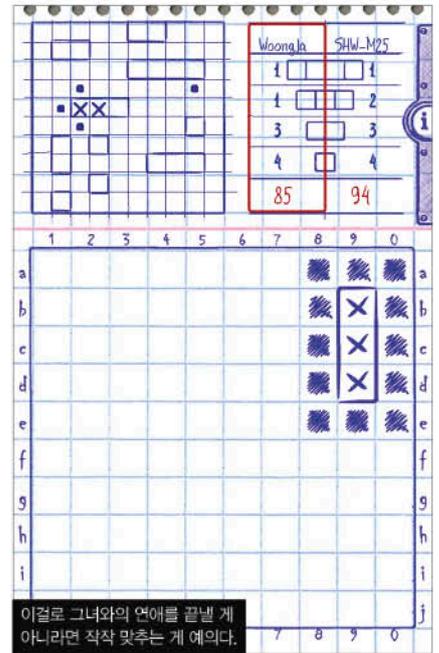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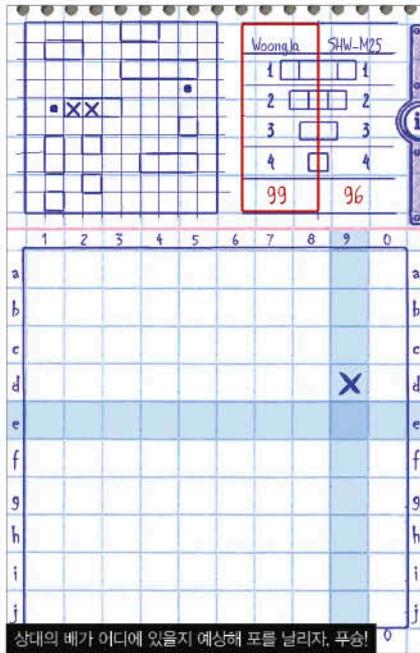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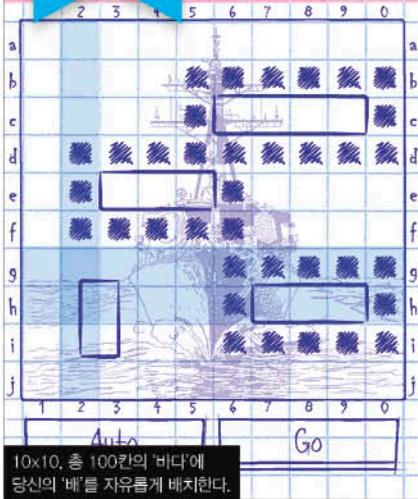
그녀와 단둘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을 소개한다. 물론 니 마음은 딴 데 있겠지만.

설명만으로 부족하다면!



전반전

각자 폰으로
함께 즐기기



NAVAL CLASH

제작사: NORTHERN CAPTAIN

가격: 무료

플랫폼: 안드로이드

당신의 욕감을 한껏 발휘할 기회!

각자 수첩에 게임판을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의 <빙고> 혹은 <숫자 야구>류의 게임. 블루투스를 이용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해 눈앞의 상대와 대결할 수 있다. 아무리 감이 좋아도 그녀와 겨룰 땐 욕감을 죽이며 그냥 저저자, 그녀는 분명 패배의 쓴맛을 보고 풀이 죽은(척 하는) 당신을 욕감적으로 위로해줄 테니까.



터치파이터 for Kakao

제작사: 위메이드

가격: 무료

플랫폼: 안드로이드

당신의 포용력을 한껏 발휘할 기회!

2012년 지스타에서 처음 선보일 당시, 부스걸의 각선미만큼 강렬하게 에디터의 뇌리를 파고든 대전 액션 게임. 그래픽은 최신 게임기 뽐낼 정도로 아름답고, 움직임은 디즈니 만화만큼 부드럽다. 피터지게 싸우는 게임이므로 그녀와 대전할 때만큼은 실령실령 하자. 당신을 쥐어패드라 잔뜩 신이 난 그녀가 상가된 얼굴을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 화면 속의 현란한 액션에 매료된 그녀에게 현란한 침대 액션을 제안할 타이밍이다.





마인크래프트
 제작사: MOJANG
 가격: 6,420원
 플랫폼: iOS/안드로이드

당신의 손재주를 한껏 발휘할 기회!

네모난 블록을 부수고 모으고 붙이고 떼면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하자. <마인크래프트>는 레고를 갖고 놀던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게임이다. <창조 모드>를 선택하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블록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미리 블록을 쌓아 보금자리를 만든 뒤, 멀티플레이어를 이용해 그녀를 불러오자. 10분 만에 이룬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수줍게 속삭여라. "우리 집이야." 아아!! 눈물이...!



이렇게 열심히 핑크빛 블록을 차곡차곡 쌓으면,



이런 집을 만들 수 있다. 표지판에 감동의 메시지도 적어 두자.



위에서 바라보면 감동 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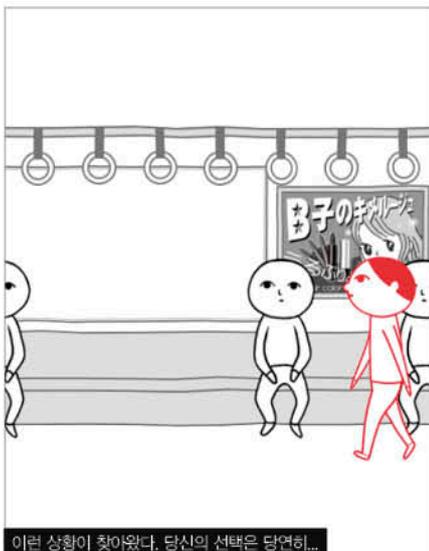


후반전
 폰 한 대로
 함께 즐기는
 밀착 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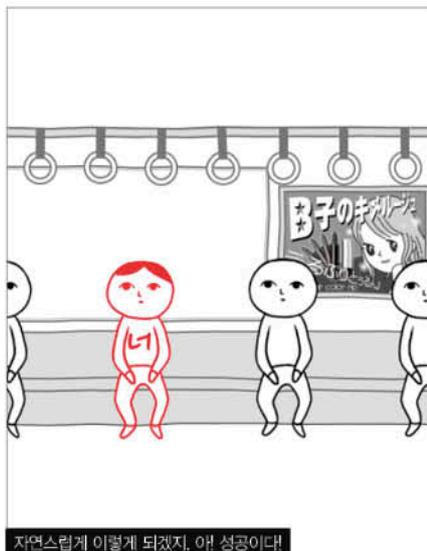
쿠키요미
 제작사: EMBEDDED ARTS
 가격: 1,084원
 플랫폼: iOS/안드로이드

당신의 센스를 한껏 발휘할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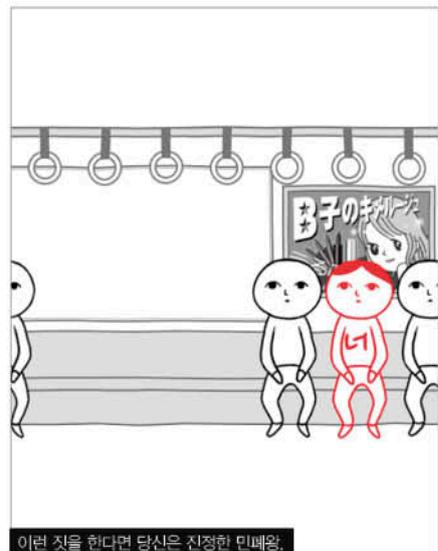
주어진 상황에서 캐릭터를 적절히 움직여 곤란한 순간을 헤쳐나가는 게임이다. 문자 그대로 '눈치 게임'이라고나 할까? 지리 양보하기, 여자와 걸을 때 차도 쪽으로 걷기 등 생활 속 매너를 얼마나 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레일 '센스 측정' 게임.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 완전 센스 짱이네?" 라고 감탄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당신이 진정한 센(세)스 짱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진짜 게임 끝.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 당신의 선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 아, 성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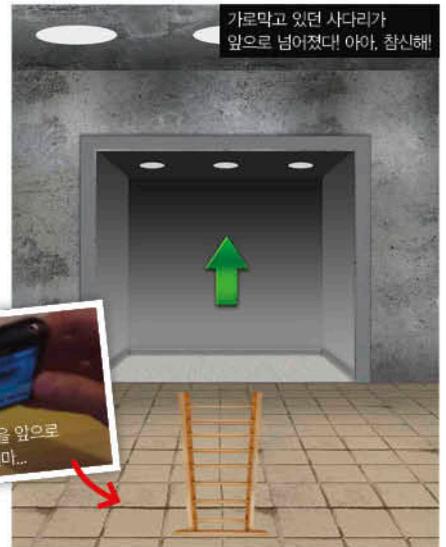
이런 짓을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만배왕!



올라가는 동안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높다.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니 싶었다. 뭐, 배째라고?



가로막고 있던 사다리가 앞으로 넘어졌다! 아아, 참신해



요렇게 휴대폰을 앞으로 기울여봤다. 실마...



100 Floors

제작사: Tobi Apps

가격: 무료

플랫폼: iOS/안드로이드

당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어필할 기회!

모든 층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또 열어 100층까지 도달해야 하는 본격 두뇌 게임. 추리력을 동원하여 실 새 없이 층을 오르다보면, 당신의 명석한 두뇌에 반한 그녀가 감탄하며 동경의 시선을 보낼 거다. 이제 지겨운 엘리베이터 문은 그만 열고 그녀의 몸과 마음을 열 차례다. 힘들게 올라왔으니, 이제 천~천히 내려가볼까?



과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수수 튀어 오른다.



단번에 빨리빨리 썰는 것이 중요하다! 뽀나씩!



빈걸이 플레이하면서 점수 경쟁을 벌이자.



후르츠 닌자

제작사: HALFBRICK STUDIOS

가격: 1,39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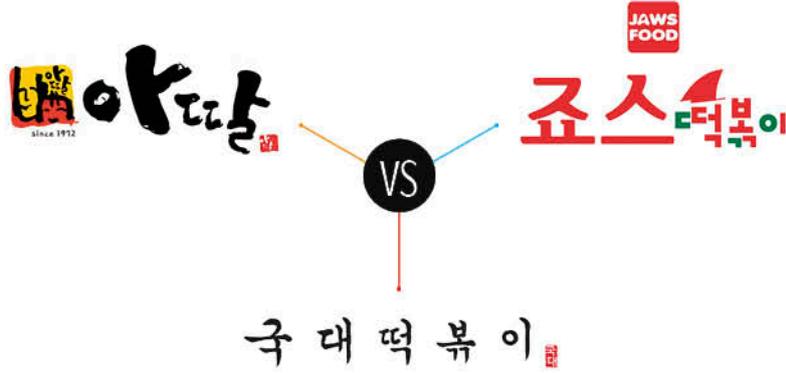
플랫폼: iOS/안드로이드

당신의 현란한 손놀림을 자랑할 기회!

출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미있는 '과일 썰기' 게임. 매번 아슬아슬하게 높아지는 점수가 묘하게 경쟁심을 자극한다. 공중부양하는 여러 개의 과일을 단칼에 얼마나 많이 썰느냐가 득점을 좌우한다. 현란한 당신의 '손가락'으로 예로틱함의 상징, 속이 팍 찬 '과육'을 베면, '과즙'이 사방으로 튀고 철철철 넘쳐흐른다. 오오, 이 얼마나 관능적인 은유인가! 제작사 변태!!!

떡튀순 三國志

떡은 치거나 먹어야 맛이제!



아말

조스 떡볶이



국대 떡볶이



국대

아말

조스

떡볶이

조스 떡볶이

캡타이신의 향연. 매운 맛이 구강 세포를 자극해 느껴지는 타는 듯한 감각이 몸속 모세혈관 곳곳까지 전해져 콧잔등의 땀구멍을 개방했다. 다음날 혈변을 유도할 정도는 아니지만, 타사 제품보다 너무 매워서 태양초와 닭키스를 나눈 것처럼 입술 주변이 화끈거리며 흥분되었다. 떡은 적당히 쫄득했다. 떡이 식도에 입장할 때 너무 딱딱하지도 무르지도 않아 마음에 든다. 아이돌이란 틀에 가려져 평가절하된 아티스트 지드래곤처럼, 매운 맛에 가려져 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솔직히 맵다는 생각 말고는 뭘 느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말 떡볶이

입안에서 풍선감을 씹는 것처럼 떡의 탄력이 강하다. 계속 씹다 보면 떡이 딱딱해져 마른 오징어를 씹는 것처럼 턱이 아프다. 하지만 떡이 한입에 들어가기 가장 좋다는 가로 3cm, 세로 2cm의 비율을 살려 빗겨썰기를 한 점이 마음에 든다. 3:2 비율은 유투브(720x480)에서 인용될만큼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이즈니, '아말'은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물과 양념의 비율이 레인보우 김재경 몸매처럼 환상적이다. 적절한 소스 배합이 맛의 비결인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준다. 우리 동네 아말 주인 아주머니의 인심이겠지만 오뎅이 많이 들어가서 더 푸짐해 보였다.

국대 떡볶이

다른 떡볶이 집에 비해 떡이 가늘고 길어 "와"를 발음할 때처럼 입을 귀엽게 벌리고 먹어야 한다. 떡을 절구통에서 수십 번 내리친 듯 떡의 말랑말랑함이 극에 달했다. 게다가 박찬영이 강조했던 공기 반, 떡 반이 그대로 실현되어 떡볶이에 담겼다. 떡이 입안에서 부서지며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그 오묘한 끈적임 덕에 다시 입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느낌이다. 국물이 많아서 떡과 소스가 H.O.T의 이재원처럼 같이 있지만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다. 떡에 간이 적절히 베어들었다기보다는 어린 아이 온탕 들어가듯, 떡이 뜨거운 고추장에 살짝 발안 담그고 나온 느낌이다. 약간 싱겁다.



순대

조스 떡볶이의 순대

에디터가 천안 출신인지라 어려서부터 병천 순대로 단련된 고급 순대 입맛을 가져서인지, 그동안 어지간한 순대는 에디터의 미각을 자극하지 못했다. 순대 안에 당면 말고 이것저것 많이 보이길래, 병천 순대의 '아류작' 정도 되겠거니 하고 맛을 봤는데, 병천 순대의 '이복동생' 정도 되는 느낌이 들어 눈이 번쩍 뜨였다. 당면 외에 추가한 야채와 견과류 등 잡다한 재료가 다채로운 식감과 맛을 선사했다. 깊은 맛은 아니지만 돼지 내장의 은은한 향이 입속에서 퍼졌다. 간, 허파 등 기타 내장의 상태도 매우 건강해서 입맛에 꼭 맞았다. 살아있을 적에 술, 담배를 멀리하고 매일 아침 허벌라이프를 챙겨먹는 웰빙돼지를 잡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아딸의 순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톰 브라운 슈트를 빼입은 닥 우스터처럼 돼지창자가 빈틈없이 당면을 감싸고 있다. 피트감이 완벽한 순대일까? 깔끔한 '순디자인'을 위해 당면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은 대신, 맛에서 큰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타사의 순대에 비해 간이 제대로 뽀뽀하다는 것에 큰 점수를 준다. 간의 절단면은, 마치 달걀 노른자 30개를 압축시킨 것처럼 숨구멍 하나 없이 뽀뽀하다. 그덕에 사이타 한 병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기뻐찬 마케팅인가.

국대 떡볶이의 순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당면인지 당우동인지 헷갈리는 면발의 굵기가 흑형의 공휴털처럼 두껍고 불규칙하다. 희한하게도 불규칙한 당면이 흩어지지 않고 모양이 탱탱하게 유지되는데, 그 비밀은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돼지 창자에 있었다. 입안에서 리버럴하게 당면이 흩어지는데, 규칙적으로 퍼져나가기 보다는 당면이 입안에서 사방으로 튀어다녔다. 마치 입안에서 교통사고 현상이 펼쳐지는 듯 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창자가 물오른 오징어처럼 쫄깃쫄깃해서 흡사 씹을 씹는 것처럼 오랫동안 입속에서 질경질경 씹혔다. 서브메뉴인 간의 크기는 새끼 손가락만큼 가늘고 색깔이 짙었는데, 딱딱한 것이 입에 넣자마자 부서지더니 몇 번 씹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순대는 매력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장에 소홀하면 분식커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튀김

아딸의 튀김

튀김 옷이 두껍다. 여러 번 튀겨졌는지 제시카 알바 피부톤처럼 색이 진하다. 하지만 제시카 알바의 꿀벅지처럼 관능적인 단맛이 나지는 않았다. 튀김의 크기가 큼직큼직한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특히 대왕 오징어를 튀겼는지 오징어 튀김이 아주 튼실하다. 따뜻한 아빠의 마음이 좌심실 우심방까지 전해졌다. 떡볶이 국물에 찍었을 때 약간 짠맛이 돌지만 튀김을 풍덩 빠뜨릴 게 아니라면 그럭저럭 먹을 만하다. 아딸의 오징어 튀김은 '와, 시발 존나 신의 한수다' 라고 느낄 정도로 꼭 먹어볼 것.

조스 떡볶이의 튀김

튀김 색은 셋 중 가장 무난하다. 어둡지도, 너무 하얗지도 않은 노릇한 색이 구미를 당긴다.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매워 튀김을 풍덩 담가먹었다간 다음날 엉덩이에서 비둘기가 푸드득거릴 수 있으니, 결다리로 준 간장에 찍어먹는 것을 권한다. 간장에 특별한 소스를 첨가했는지 짠맛에 이어 단맛까지 이끌어 낸다. 김말이에 초록색, 주황색, 뽀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지만 김치볶음밥에는 김치만 들어가야 그 맛이 깊듯, 김말이에는 김과 당면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투머치해서 아쉬움이 남는 김말이었다.

국대 떡볶이의 튀김

튀김 빛깔이 아시아 유마 속살처럼 뽀얗다. "매일 새 기름을 쓴다" 는 게 알바의 설명이다. 튀김옷이 두껍지 않고, 그 바삭함은 벌집피자를 능가한다. 떡볶이 국물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수준급이다. 국대 떡볶이 국물이 최수종이면 튀김은 하희라로 느껴질 만큼 가장 궁합이 잘 맞았다. 떡볶이 국물이 조금 묽지만, 튀김과 만났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우주전쟁> 결말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김말이에 여러 가지 재료를 추가하기보다는 오로지 당면으로 정면승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아딸



조스



국대

	아딸	조스	국대
떡볶이	떡이 탄력있고 오징어 많다. win (가격 3,500원)	맵다. 아나, 시발 졸라 매움. (가격 2,500원)	떡이 말랑말랑하지만 싱겁다. (가격 2,500원)
튀김	튀김옷이 두껍고 큼. 오징어가 맛있어! (가격 3,000원)	떡볶이 국물보다는 간장에 찍어먹을 것. 김말이에 야채가 많음. 투머치함. (가격 2,500원)	떡볶이 국물과 궁합이 잘 맞음. 튀김옷 빛깔이 좋다. win (가격 2,500원)
순대	순대에 당면만 들어있음. 간이 맛있다. (가격 3,000원)	순대에 야채와 견과류가 들어있음. 내장 상태 깔끔함. win (가격 3,000원)	당면을 감싸는 창자가 탄력있음. 간이 딱딱함. 어디 아픈 건? (가격 3,000원)

Love Recipe:
1 Tasty
1.5 Juicy
2 Funny
3 Fantastic

메이드로
변신한
사유리





and the whole Sayuri

전국의 식당을 초토화하고 있는 '맛집의 저승사자'
사유리가 당신을 위해 직접 레시피를 제조한다!
개그 한 스푼, 매력 두 스푼, 애교 다섯 스푼...
그런데 반말 존댓말은 왜 섞었어?
수정 하나 거치지 않은 약빤 인터뷰 대 공개!

국밥런더 쿠킹아트
구두 슈즈원



오늘 촬영 어땠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보통 재미있고 웃긴 거 하고 싶다고 하면 엄격적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좋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실물이 너무 예뻐요. 이상형이 궁금해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사린 남자가 못생겼대요.

그럼 한국 남자가 잘생겼어요. 일본 남자가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어느 나라에나 있듯이 못생긴 사람도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저는 생각이 깊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사장님에게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좋아요. 리쌍의 개리 오빠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행동해요. 전 개리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요.

<사유리의 식탐여행>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먹어 본 음식 중 정말 못 먹겠다 싶었던 음식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먹은 지네튀김! 근데 웃긴 게 제가 PD한테도 먹으라고 했는데, PD는 죽어도 안 먹어...

방송 보면 자주 '맛이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맛없는데 맛있다고 해준 적은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드신 음식은 맛있다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이 맛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이유가 순대를 좋아해서라는 소리가 있어요. 순대 좋아하는데 여자 마음은 4월 날씨처럼 항상 흔들려요. 지금은 곰창이 제일 좋아요. 교대 앞에 있는 곰창!

<미수다>에서 사오리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친해요? 예바 결혼식 때 한 번만 봤어요. 사오리 씨가 인기 많아서 좋은 게 사오리가 우월에 나오고 가수 데뷔한 걸 사람들은 제가 했다고 착각해요. 제가 인기가 엄청 많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고 감사해요.

지금은 사유리 씨가 더 인기 많잖아요. 예휴, 그렇지도 않아요. 어려워!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어.



필피 스트라디바리우스



66

먹어본 음식 중에 강원도에서 먹은
말린 고기가 가장 맛있었다

99





원피스 버쉬카
구두 스웨디시 헤즈빈스

<미수다> 출연자들 중 '이건 내가 짱이다'하는 건 뭐예요? 겁나 많이 먹고 겁나 많이 싸.

살 안찌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 맞아. 다 나와.

사유리 씨는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친구는 누구예요?
비둘기예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대학생 때 취미가 공원에 가서 비둘기한테 밥 주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소속사 없죠? 소속사에 들어오라는 제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소속사에서

제의 많이 오는데 거절했다'고 구라치고 다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유리 씨 트위터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길거리에 있는 작은 돌에게 귀엽다고 말하는 남자가 좋다" 멋진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든, 비싼 차를 갖고 있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전 정신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트위터를 많이 하시던데, 맨유의 유명한 감독이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그랬대요. 먹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설거지 하는 게 인생의 낭비예요. 세상에서 설거지가 제일 싫어.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런데 5분도 설거지에 투자하기 싫어. 그래서 밖에서 먹어요.

아, 근데 그거 뭐예요? 전에 누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춤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웃음)
그 동영상 보면 나도 내가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뻘 왜 한거예요?
그때 식탐여행 뮤직비디오 찍고 있었는데 오니가 그 옆에서 춤을 췄죠.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였어요?
영문학이요. 셰익스피어 같은 거. 지인짜 재미없어.

나도 영문과... 재미없어. 사유리 씨 장난 많이 치잖아요. 지금까지 친 장난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거 있어요?
제가 4월 1일에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내가 사실 일본에서 포르노 배우였는데 기자가 알게 됐어. 그걸 기사로 쓰겠다고 전화가 왔어. 어떡하지?'라고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짜증나.

I'M USUALLY
BEAUTIFUL AND
CLEAN CUT
...but it's
my day
off today!



“
자밀라보다 내 가슴이
더 크다. 내 가슴은 지방이라
질이 다르다
”

펼쳐 스트라디바리우스
팬츠 비쉬가
구두 슈즈원

4월 1일에 하나까 안 믿죠. 아오이 소라보다 유명했다고 구라 썼는데 안됐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강아지들과는 다른 특별한 게 있나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잘해요. 근데 <동물농장>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들켰어요.

스테프들한테 힘내라고 아동 보내준 적도 있었다면서요? 항상 귀신 나오는 무서운 동영상 보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봐. 하지만 아한 가는 남자들이 봐. 그래서 보냈어요. 편집은 밤에 잠을 못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식탐여행을 진짜 좋아하니까 편집이 잘돼야 해요. 그래서 자지 말고 집중하라고 흥분시켜서 잠 못 자게 해서 편집 열심히 하라고 보냈어요.

사유리 씨는 가슴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자밀라 씨보다도 크다고 했어요. 누가봐도 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자밀라는 뽕브라고 나는 지방이라 질이 달라. 자밀라는 공기밖에 안 들었어.

근데 방송에서 의사선생님한테 가슴 수술하고 싶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뎨 머리가 잠깐 돌았었어요.

트위터에는 'D컵 가슴 만들기'라는 책을 올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D컵 가슴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작고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잠깐 본거지.

MAXIM 본 적 있어요? 잘 모르죠?

본 적은 없는데 여기 나온다고 하나까 남자들이 난리 났어. 그리고 내가 MAXIM 나온다고 하나까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속은 거 아니냐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널 어디다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난 MAXIM에 나올 수가 없대.

섭외전화했을 때 MAXIM이라고 하나까 “<레옹> 같은 거예요?” 하고 물어봤었잖아요. <레옹>은 어떻게 알아요? 여자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레옹> 표지모델이었어요. 이탈리아 모델 지롤라모. 이탈리아어 교수님이었는데 항상 한 시간 늦게 와. 페라리 타고 와. 그리고 자기가 TV 나온 얘기밖에 안했어.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탈리아어 공부했는데 ‘피아첼’이란 단어 하나밖에 몰라요. ‘피아첼’은 ‘처음 뵙겠습니다’. 2년 동안 공부 했는데. 지롤라모 때문에!



후지타 사유리

신체: 164cm

혈액형: O형

가족: 1남 1녀 중 막내

데뷔: 2006년 KBS

2TV <미녀들의 수다>

그녀의 실시간 어록 감상은?

<https://twitter.com/sayuripokopon>



신기하다.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지롤라모는 학생들이랑 눈 마주치면
 링크를 했어요.

느끼하네요? 섹시 보이. 착해. 재미있어.

**부모님이랑 오빠도 사유리 씨처럼
 재미있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재미있어요. 아빠랑 오빠는 재미없어요.
 끼가 없어.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구라타초'
 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이름이 '다초'인데
 구라를 많이 쳐서 별명이 구라타초. 죽을
 때까지 구라를 많이 쳤어.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죽어서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헷갈려. 자기가 중국에서 배
 타고 왔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 DNA
 검사해야 하나봐. 나 일본 사람일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어.

**아까 맛집 탐방 스태프들한테 보내줬다는
 아동 저희한테도 보내주면 안돼요?**
 돼. 근데 야한 게 없어.

**그렇구나. 사유리 씨는 아동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치. 내가 변태
 같아서. 변태 좋아.**

근데 노출은 잘 안하지 않아요?
 응. 안해.

**노출은 안하면서 엉덩이는 복숭아 같고
 가슴이 수박 같다는 발언은 왜 한 거예요?**
 노출을 하면 구라치는 게 들켜잖아.

**사유리 씨는 항상 밝아요. 슬프고 외로운
 모습을 우리한테 안보여 줘요. 솔직히
 20대에는 슬픈 게 많이 있었지만 30대
 되니까 모두에게 감사하게 되고 슬픈 건
 없어요. 나쁜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왜
 왔을까? 이걸 다 좋게 되려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사유리 씨 부모님이 옛날에는 사유리 씨
 되게 어두웠다고 하셨어요.**
 맞아맞아. 20대 때는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30대 되니까 뭘 일이 없어.
 40대 되면 더 미친 듯이 밝아지고 50대
 되면 완전 머리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



민소매 티셔츠 스트라디바리우스
 필피 스트라디바리우스
 팬츠 버쉬카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PHOTOGRAPH ARC STUDIO FILM 이준길 HAIR 보람 MAKEUP 김지현(약은차이 02-545-9228) ASSISTANTS 김소윤, 김세형, 장혜민
 COOPERATIONS 버쉬카, 스트라디바리우스(02-343-9800), 슈조원(02-3443-1703) 스펙다시 헤어비즈(070-7525-0319), 푸진아트(02-2631-8390~2)





그리핀의
지리는
링크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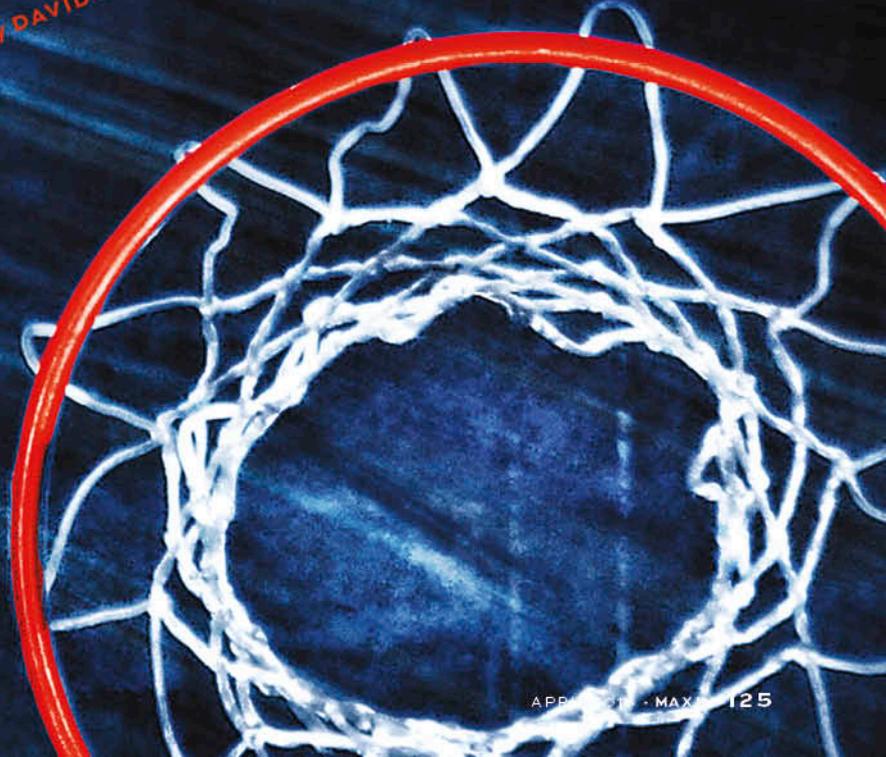




POSTERIZED!

수십 년의 NBA 역사상, 가장 거칠고 화려한 덩크가 난무하는 올 시즌, 이번 2012/13 시즌이
역대 최강일 수밖에 없는 23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

by DAVID SWANSON illustrations by TYSON BECK





POSTERIZED!



"기저귀 좀 사놔. 경기 보면서 지릴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LA 클리퍼스의 포워드 블레이크 그리핀이 끊임없이 덩크슛을 후려 박고 있다.

5 이른바 스맥다운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의 경쟁 관계에 대한 코미디언 애덤 캐롤라의 말:



“재작년엔 LA에서 팬질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었다. 클리퍼스가 마침내 잘하기 시작했다 때문이다. 근데 클리퍼스 선수들 중에 ‘Clipper(쾌속 범선)’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할까? 다들 옆머리 깎는 데 쓰는 도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레이커스는 최소한 자기네 이름이 호수(Lake)랑 관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아무튼, 레이커스 팬으로서 스티브 내쉬를 영입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도 요즘 레이커스에서 날아다니는 건 신나는 일이긴 한데, 레이커스가 너무 스타급 선수들만 쓰는 것 같다. 아니 우승 트로피를 그렇게 챙기고도 아직 모자라나?”



6 그리고 이제... 눈썹맨!

올해의 대학 농구 선수, 내셔널리그 챔피언, 토너먼트 MVP, No.1 지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앤서니 데이비스의 한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럼 데이비스가 NBA에 입성해서 목표로 하는 바가 뭔지 들어볼까? “보스턴 셀틱스의 케빈 가넷과 맞붙고 싶다. 그는 몇 안 되는 내 이상 중 하나다.” 외계인 케빈 가넷이러니! 자네, 목표 세울 땐 생각 좀 하라구.

7 저베일 맥기의 바보짓은 언제 멈출까?

NBA에서 저베일 맥기는 ‘무뇌왕’으로 통한다. 상대팀에 패스를 주질 않나, 본인보다 작은 선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노마크 상황에서 골을 못 넣는 건 이제 놀라지도 않다. 그러나 이 재능 있는 센터는 베스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2 평생의 라이벌

훈훈한 댄스 파티 같던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드림팀의 르브론, 듀란트, 카멜로, 코비는 이제 코트 위에서 필사적인 대결을 펼쳐야한다. 올림픽에서 생겨난 그 모든 끈끈한 우정이 명치에 박 꽃히는 팔꿈치 공격 한 방에 소멸하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3 로즈의 귀환

마이애미 히트와 오클라호마 시티 사이의 치열한 경쟁에만 신경 쓰다 보니, 우리는 시카고 볼스의 데릭 로즈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잊고 있었다. 그의 십자인대도 많이 나왔다. 그의 복귀로 올해 결승전 매치업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4 바클리도 귀환

해설자로 돌아온 찰스 바클리는 우리가 음소거 버튼을 누르거나 화가 나서 TV에 던져버릴 신발짝을 찾지 않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특별하다. 찰스 바클리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맘에 든다. 딱 한 가지 불만은, 그가 살을 너무 많이 뺐다는 것 정도?





11 마이클 조던의 노년 감상

심보가 꼬여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나 위대했다가 다른 일에는 형편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래, 우리가 나쁜 놈이야). 하지만 MJ, 그 속웃 광고는 좀 아닌 것 같아.



12 포틀랜드에 내린 저주

빌 월튼의 발 부상, 그렉 오든과 브랜든 로이의 무릎 부상. 운명은 포틀랜드에 가혹했다. 얼마 전까지 NBA에서 날고 기던 브랜든 로이가 은퇴를 반복하고 다시 클러치를 시전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13 남의 마누라 훑쳐 보기

이 때 아니면 언제 *아드리아나 리마 같은 슈퍼모델을 실물로 보겠어?

*비토리아 시크릿 강판 모델이자 농구 선수 마르코 아리치의 마누라



8 멜로의 시대

<해피 엔딩>의 출연 배우이자 뉴욕 닉스의 공팬인 애덤 켈리가 닉스에 대해 말한다.



“오랫동안 닉스 팬으로 지나기 괴로웠다.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부상입은 카멜로 앤서니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에게 ‘너네 때문에 졌다’며 쌍욕을 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닉스의 선수층은 두텁다. 제레미 린이 그렇게 활약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근데 솔직히 나는 그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는 완전 예수 광신도다. 누군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응원하거란 쉽지 않잖아!”

9 그럼 제레미 린의 다음번 신들림은 뭘까?

농담 아니고, 진짜 모르겠다. 그가 뿔 받으면 코트를 뒤집어 놓으시니까.



10 선수들의 트위터 사랑

@TheRealJRSmith
(뉴욕 닉스의 JR 스미스)

난 도저히 그 자세로 경기를 못 보겠는데, 너 존나 편대!

@TheRealTahiry

@MettaWorldPeace
(LA 레이커스의 *메타 월드피스)

내 애완핑겐 즐라 귀엽깁.



*이름은 아레스라는 학하게 살겠다며 이목을 메타 월드피스로 바꿨다.



14 포인트 가드의 르네상스

NBA TV의 그렉 앤서니가 포인트 가드의 황금기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지금 포인트 가드의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 있다. NBA 역사상 최강의 육체적 조건을 가진 선수들이 우글우글하거든.”
NBA에서 10년 이상 선수들을 지켜봐온 앤서니에게 물었다. 그래서 리그 최고는 누구요?

데릭 로즈, 시카고 불스

“모든 각도에서 게임을 분석한다면, 그가 최고다. 단, 그의 컨디션이 좋을 때만.”

크리스 폴, LA 클리퍼스

“게임 전체를 관장하는 쿼터백 같은 남자다.”

데론 윌리엄스,

브루클린 네츠

“감독과 불화를 일으키고 가끔은 정신줄을 놓기도 하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

라존 론도,

보스턴 셀틱스

“순수하게 패스로 경기를 이끄는 포인트 가드가 코트에서 먹히는 한,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경쟁한 실력자다.”

러셀 웨스트브룩,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패스를 안 해서 욕을 좀 많이 먹는데, 어쨌거나 득점을 하잖아? 그게 그의 역할이고.”

토니 파커,

샌안토니오 스퍼스

“토니 파커의 플로터를 막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스티브 내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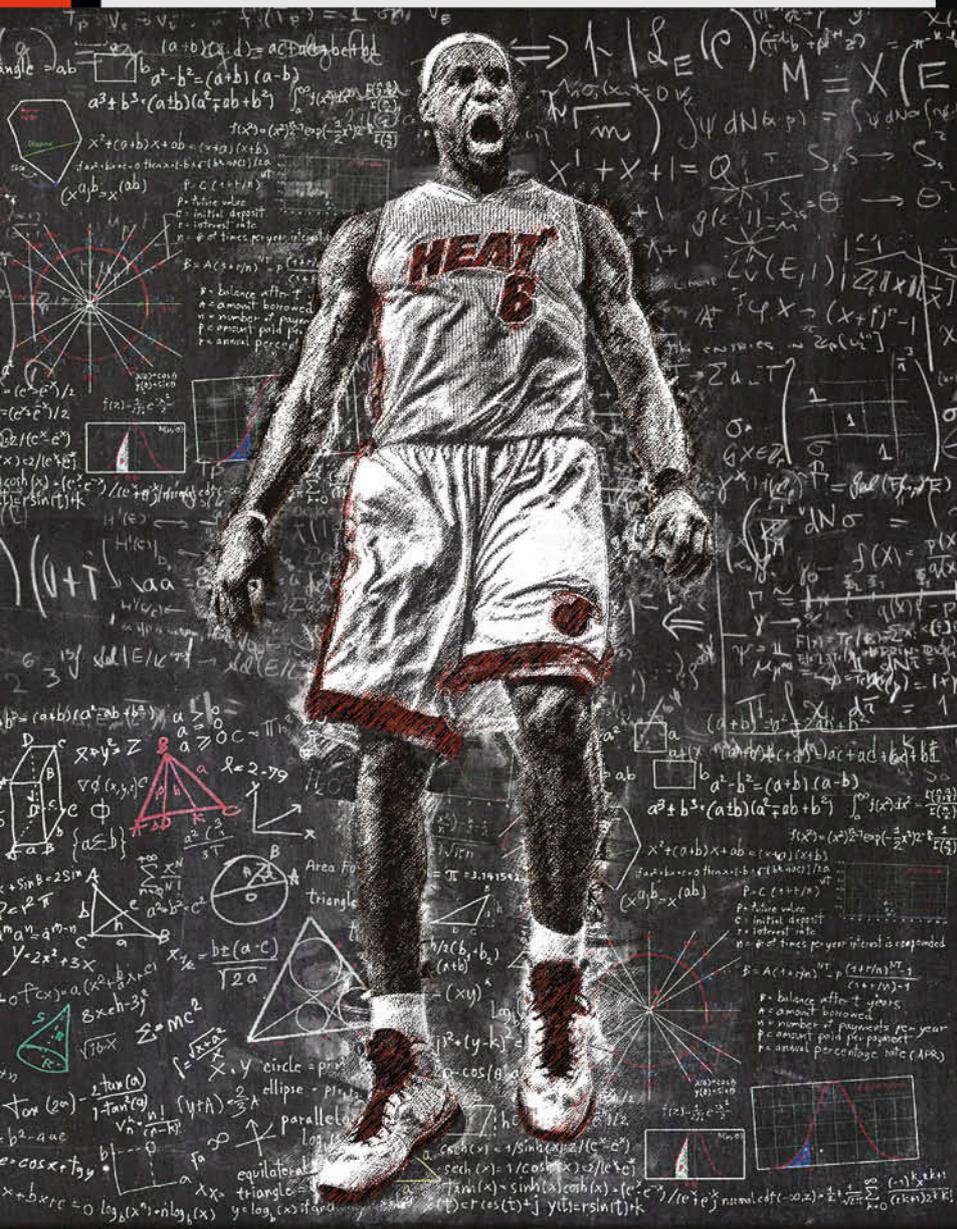
LA 레이커스

“코트 위의 그를 보는 일은 언제나 짜릿하다.”

르브른 제임스,

마이애미 히트

“엄청난, 게다가 영리하기까지 한 포인트 가드다.”



16 히트는 재기할 수 있을까?

마이애미 히트의 드웨인 웨이드가 보는 마이애미의 이번 시즌 전망:

“그동안 많은 팀의 실력이 향상됐다. 경쟁한 챔피언 후보들도 많다. 오를라호마처럼 말이다. 레이커스는 언제나 최고 구단 중의 하나고, 클리퍼스는 최약에서 최고로 거듭나는 중이다. 셀틱스는 우승 반지를 거머쥐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브루클린과 닉스도 대단하다. 하지만 마이애미 히트도 성장했다. 우리가 늘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걸 잊지 마라. 히트가 연습하는 걸 보면서 ‘재기’라는 단어를 쓰다니.”



17 슈퍼 팀들의 역습

ESPN 해설자인 제임런 로즈가 리그를 전망한다.



“레이커스의 드와이트

하워드는 정말 죽이는 선수다. 이런 슈퍼 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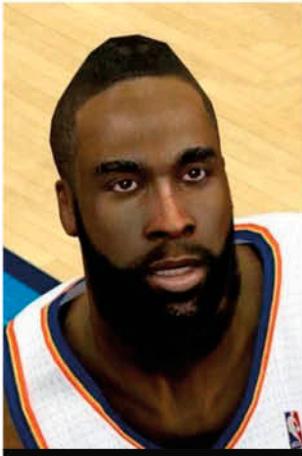
덕분에 NBA는 더

재미있어진다. 셀틱스와 레이커스가 80년대를 지배하던 시절, 매직에겐 커림이 있었고, 버드에는 케빈 맥헤일과 로버트 패리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히트, 셀틱스 그리고 닉스가 선수들에게 돈을 점점 더 많이 투자하는 걸 보면 흐뭇하다. 지난해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한 마이애미 히트가 드웨인 웨이드를 앞세워 19연승을 달리고 있다. 히트 이 자식, 살아있고매!”

15 제왕 르브론의 장기 집권

르브론이 그렇게 대단하냐? 일단 그는 스포츠 역사상 최강의 남성벽 신체를 가졌다. 근육의 탄성 자체가 일반인이랑은 다른 종족이다.

르브론 제임스의 지난해는 진짜 끝내줬다. 2012년 그는 정규 시즌 MVP, 첫 NBA 타이틀, 결승전 MVP, 올림픽 금메달을 달성했으니. 이런 금자탑은 조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조던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고, 혹은 넘어서다고 해도 조던만큼의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르브론과 조던의 가장 큰 차이는 르브론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조던 형, 똥줄 좀 타겠는데?



18 최강 팀워크

〈SNL〉의 케스트 빌 헤이더가 오클라호마 시티의 상승세에 대하여 말한다.



“오클라호마에서 자란 나한테서 대학 스포츠를 빼면 시체나 다음 없다. 솔직히, 내가 팀을 만든다면, 르브론을 영입하느니 케빈 듀란트를 데려올 것이다. 그가 러셀 웨스트브룩과 죽이 잘 맞는 모습이 좋았으니까. 특히 스킵 배일리스가 그를 까달 때, 듀란트가 “어이, 배일리스, 개는 나랑 같은 팀이야. 꺼제!” 라고 말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리고 듀란트,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이 코트 위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듯이 자백하는 것도 엄청 재미있다. 코트 근처 자리에서 하트를 봤는데, 진짜 배꼽 잡았다. 결승전인데 코트에서 개드립을 치고 난리도 아니던걸? 그가 SNL을 진행하면 존나 웃길 것 같다.”

19 OB의 마지막 저항?

2년 전, 더크 노비츠키는 마약을 끊고 델러스 매버릭스를 르브론이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10개월 전, 팀 단컨은 스퍼스의 말도 안 되는 20연승을 달성시켰고, 마치 스퍼스가 원래 우승 후보로 늘 꼽히던 팀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워 포워드고, 최고의 선수다.



20 뉴욕주 쟁탈전

2012년에는 뉴욕을 연고지로 하는 NBA 팀이 뉴욕 닉스 하나에서 브루클린 네츠까지 둘로 늘어났다.

뉴저지 네츠가 브루클린 네츠로 변했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가드 데론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브루클린은 상당히 들떠있다. 오래간만의 첫 프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1957년 이후로 브루클린에는 프로 팀이 없었다. 구단주 라트너는 네츠를 브루클린으로 옮기면서 팬들을 확보하고자 브루클린 출신 흑인 가수 Jay-z를

공동 소유주로 영입했다. 이것이 불꽃튀는 경쟁의 시작이었다. 현재까지는 동부 애크랜틱의 1, 2위를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가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닉스는 카멜로 앤서니가 결장한 상태에서도 홈 경기 10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동네 짱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과연 브루클린 네츠가 계속 2위에 머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21 짜질이 패션

ESPN 해설자인 제임런 로즈가 NBA의 유행에 대해 말한다.

“2004년, 메타 월드피스 등이 연루된 인디애나 페이스서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츠의 난투 사건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NBA는 05-06시즌부터 선수들의 인터뷰 혹은 각종 행사 참석 시 힙합 스타일, 블링블링한 악세서리, 팀버랜드 부츠 착용을 금지했다. 마침 2005년 이후, 힙합 스타일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따라 선수들의 차림새도 변해갔는데, 요즘은 렌즈 없는 뿔테 안경을 끼고 백팩을 매는 패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아니, 대체 니들은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웃을 못 입니?”

22 보스턴이 회복할 수 있을까?

코미디언이자 보스턴 사람인 빌 버가 셀틱스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작년의 셀틱스는 최고의 팀이었다. 몇 년 전, 그들이 첫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 너무 오버하는 면이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나는 케빈 가넷이 마음에 든다. 그는 나보다 욕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남자인 것 같아서다. 레이 일렌이 히트로 가버린 점은 아쉽지만, 론도와 피어스가 있으니 우리에게 아직 빅3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닉 리버스는 NBA의 최고의 코치 중 하나기 때문에, 히트는 긴장 바짝하고 있어야 할거다. 그나저나 앞으로 레이커스는 계속 젊음 좋겠다. 왜 이렇게 주는 것도 없이 끝보기 싫지?”



23 그리고 광팬

지미 골드스타인이라는 NBA 광팬을 알아본다면 당신을 NBA 덕후로 인정한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 할배는 악어 슈트, 카우보이 모자, 가슴 큰 미녀를 끼고 다니며, 엄청난 대저택에서 산다. 골드스타인은 (관전 알바들을 빼면) 게임을 가장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는 작년에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경기를 홈 경기뿐만 아니라 원정까지 합쳐서, 전체 경기의 95%를 직관했다. 농구 경기에 환장한 지미 할배가 올 시즌 NBA 전망을 다른 이 기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없긴 한데, 부러워서 그냥 넣어 봤다. 찬장, 존나 멋지지 않나?



수아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뭐해요?

그래요
같이 해요!

남자는 자고로 심는 걸 잘해야 사랑받는 법.
평생 수십 번의 식목일을 보냈지만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당신을 위해 MAXIM이 묘목 심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물론 아름다운 미녀와 함께.

Let's Plant A Tree!



좋은 묘목 고르는 방법

소개팅에 나온 암컷의 얼굴, 가슴, 다리를 차근차근 살펴 보듯, 묘목 역시 잎, 줄기, 뿌리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들여보며 고른다. 우선 한눈에 봤을 때, 밸런스가 좋은 묘목을 가진 여자처럼 전체적으로 선이 곧고 튼실한 묘목을 선별해야 한다. 눈이 뜨고 잎이 난 묘목은 심는 시기를 놓친 녀석이라 고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조심스럽게 여자장에서 진주라도 발견한 듯 기뻐하지 말자. 가지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방으로 고르게 뻗어 있어야 하며, 잔뿌리가 많은 녀석일수록 영양분과 수분 흡수를 잘한다.

묘목은 역시 뿌리가...

암~ 그렇지

170,000 km²

연간 파괴되고 있는 아마존 열대림의 면적. 거의 한반도 전체 영역에 육박하는 산림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묘목 안전 운반하기

묘목을 구입한 자리에서 바로 심을 게 아니라 멀리 이동해야 한다면, 깨진 유리 디루듯 조심스럽게 운반해야 한다. 작은 묘목을 구입하면 뿌리에 흙이 어느 정도 붙어 오는데, 지저분하다며 털어내면 되려 뿌리가 쉽게 건조해지며, 직사광선이라도 쬐었다간 뿌리가 마를 수 있다. 반대로 비를 맞았거나 뿌리가 젖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한 묘목은 뿌리가 썩어 죽기 쉽다. 따라서 땅 속에서 뿌리째 뽑아 낸 묘목은 빠르게 옮겨 심도록 하자.

적절한 시기와 날씨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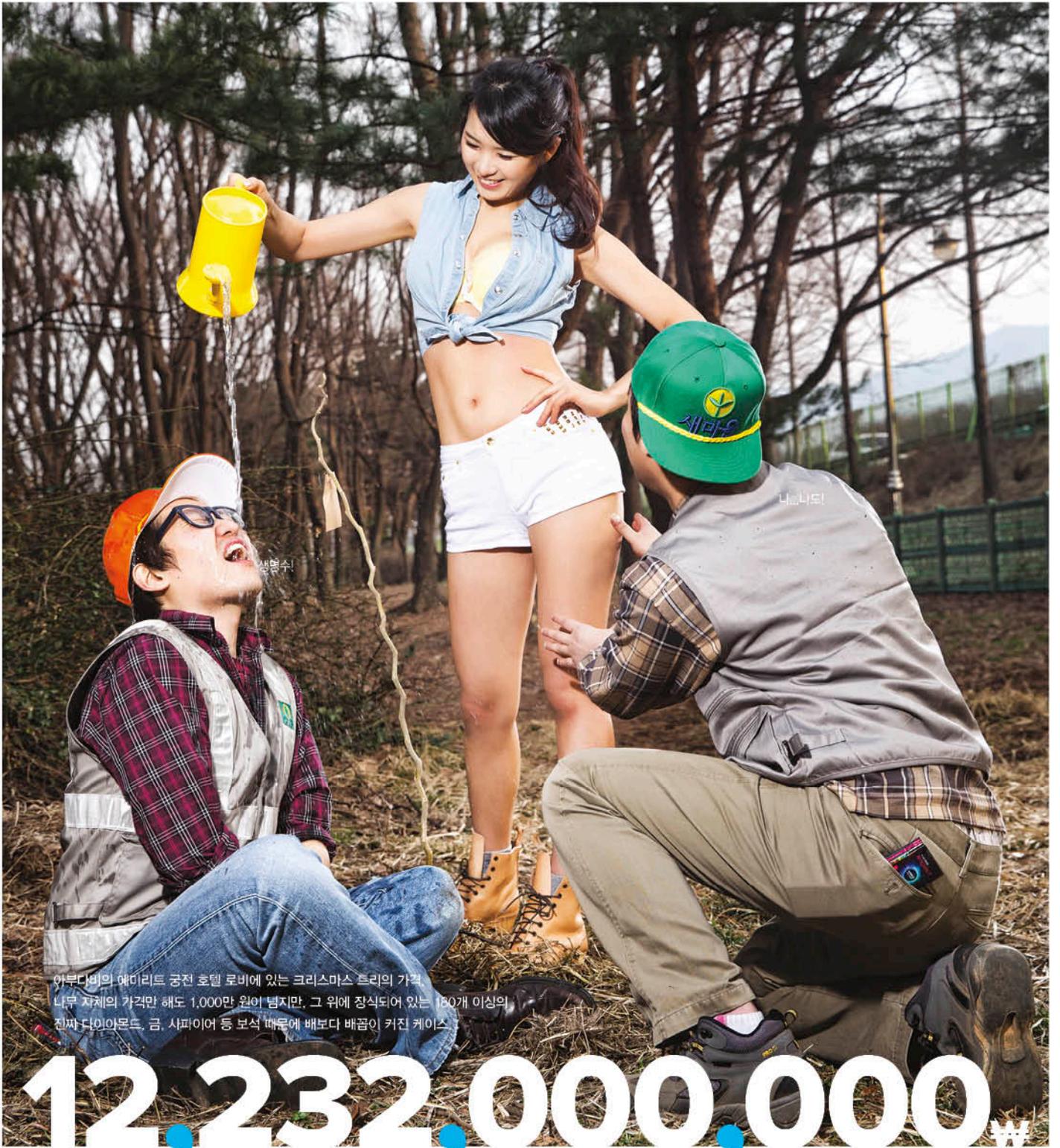
너무 따뜻한 봄날보다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스르르 녹아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3~4월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물론 지역별로 어느 정도 기온 차이가 있을테니 당신이 사는 동네의 온도를 고려해 심는 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3월의 시베리아 동토에다 나무를 심는 멍청이는 없겠지? 앞서 언급했듯이 묘목이 눈을 뜨고 입을 보이기 전에 미리 심는 것이 중요하다. 날씨는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 혹은 저녁에 심는 것이 좋다.



4,842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
'메두셀라'의 나이. 참고로 5,000년 이상을 산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나무가 있었으나, 1964년 어느 지리학자 대학생이
원목 샘플을 채취한답시고 잘라버리는 바람에 사망했다.

숙곳 미상도로서
신발 스웨디시, 해즈빈스
모자, 올트라이션



안부다비의 애미리조트 궁전 호텔 로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격 나무 자체의 가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지만, 그 위에 장식되어 있는 180개 이상의 진짜 다이아몬드, 금, 사파이어 등 보석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진 케이스

12,232,000,000 ₩

올바르게 삼질하기

만나는 여자에 따라 체위가 달라지듯, 토양에 따라 삼질도 달라야 한다. 마른 땅은 습한 땅보다 깊게 파서 수분을 확보해야 하며, 반대로 습한 땅은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땅을 파면 안쪽의 속흙과 바깥쪽의 겉흙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따로 모아서 돌, 낙엽 등 커다란 덩어리를 솟아낸다. 그래야 나중에 묘목을 심었을 때 해충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살균을 위해 미리 땅을 파서 흙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도 좋다.

효과적으로 물 주기

물은 뿌리와 흙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축축히 젖은 정도로 주어야 좋다. 만약 땅이 척박하다면 미리 비료용 토양을 섞어 넣는다. 습하고 배수가 좋지 않은 땅이라면 뿌리 아래쪽 흙에 모래와 자갈을 넣어 물이 쉽게 흘러 내려가도록 배수로를 확보해야 뿌리가 썩지 않는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죽는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물을 주는 멍청이일 가능성이 높다.

사후 관리

큰 나무를 심었다면 지라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주목을 설치해 줄기를 잡아준다. 작은 묘목의 경우 지상에서 30~50cm 정도를 남기고 잔가지를 잘라 햇볕을 골고루 충분히 받도록 한다. 비료는 나무를 심은 해 가을에 주는 것이 가장 좋는데, 한 포당 15,000원 상당의 산림용 고품 복합 비료를 구입해 묘목 주변 땅 속에 부어주면 된다. 이 비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땅 속으로 녹아내려 나무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453 그루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나무의 수.
빛으로 환산해 볼 때 죽기 전까지 다 감으려면 한 사람 당
1년에 5~6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무이자 할부!

BY 조동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2012 MISS MAXIM CONTEST TOP 4 김수아, 이준길, 조동재 ASSISTANTS 김세형 HAIR/MAKEUP 정혜민 LAYOUT 서윤정
COOPERATIONS 미상도로서(1544-6101), 해즈빈스(02-511-7355), 울트라베이션(070-8712-0313), 번8(02-423-8809)

홍석천, 리마리오

형들이 알려주는,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줄

27 LIFE TIPS

형들이 무대에서 웃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우습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거든?
40년 인생 헛산 거 아니니까 새겨들어.

1 재미있는 남자 되는 법

홍: 애먼 상황에서 재밌는 얘기랍시고
드립 치는 남자는 마이너스다.
웃기려면 잘 들어주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다가 거기서 하나를
틱 잡아서 툭 쳐줘라. 센스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2 어린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법

홍: 질난 체하지 마라. 형 노릇하거나
가진 척할 때를 가려서 해라. 동생들이
잘못 판단했을 때는 형 노릇하며
충고해주고, 있는 척하지 말고 가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린
친구들도 마음을 열더라.

3 SNS에서 친구 많이 만드는 법

홍: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낭만적인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저급한
욕지거리를 쓰기도 해봐라. 가식 없는
사람이 SNS에서 친구를 많이 사귈다.

4 여행 즐기는 법

리: 그 도시의 메인 거리가 아니라
뒷골목, 그다음 골목을 들어가 봐라. 그
뒷골목에 모든 문화가 다 있다. 어차피
어느 나라나 메인 거리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밖에 없다. 그런 건 서울에도
있잖아?



홍석천
 슈트 지이크
 구두 호킨스
 선글라스 폴리스
 시계 GC워치
 팬티 게스 언더웨어

리마리오
 슈트 개인 소장
 구두 호킨스
 선글라스 리치몬드
 시계 GC워치
 팬티 게스 언더웨어

촬영장 돈이 진짜야? 가짜야?



5 여행에서 사업 아이템을 얻는 법

홍: 여행지 뒷골목에서 먹던 커피, 빵, 특이한 음식, 인테리어를 기억하라. 내가 좋았던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알바비를 좀 더 주더라도 외모는 준수한 사람으로 고용해야겠다.

6 키가 커 보이는 코디법

리: 외투 말고 이너와 바지, 구두를 같은 컬러로 매치하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키 작은 사람은 가로 줄무늬를 피하자. 땅딸막해 보인다.

7 얼굴 작아 보이는 코디법

홍: 얼굴 큰 사람은 모자를 쓰지 마라. 더 커 보이니까. V넥 상의를 입어 목을 많이 드러내면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

8 인생무상을 떨쳐버리는 법

홍: 이태원으로 오라. 외국인이 많으니, 당신의 과거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외모가 특이해도 상관없다.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특이하게 생겼다.

9 장미 예쁘게 무는 법

리: 꽃봉오리와 잎 사이를 물어주는 것이 포인트다. 하지만 꽃봉오리 쪽으로 갈수록 가시가 굵어지니 입술 쥐뜯기고 싶지 않으면 지국이 즈려 물어줄 것.

10 여자 훅 가게 하는 술 제조법

리: 애플루트 바닐라에 커피 가루 조금 넣고 토닉 워터를 약간 첨가하라. 보드카는 도수가 높긴 하지만 바닐라 향이라 냄새도 좋고, 은은한 커피 맛에 여자들이 좋다고 훌쩍훌쩍 마시다가 훅 간다. 여건이 안 된다면 '오르기슴'이란 칵테일을 시켜라. 이걸 워낙 유명하잖아?

11 연인 사이의 권태기 극복하는 법

리: 눈감아주는 법을 배워라. 어제 누구랑 술을 마셨고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집착보다는 알면서 넘어가는 법을 익히자.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우고 하는 거지 뭐.

12 선물보다 더 잘 먹히는

연애 비법

홍: 아무리 돈 많은 남자라도 짐자리가 별로면 아웃이다. 섹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자. 한국 남자는 그걸 공부하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리드하니까 여자들이 남자 뺨을 갈기고 싶어 한다. 밤 기술이 화려하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쓴다니까?

13 잘 돼가는 이성과 정점 찍는 법

홍: 이태원에 있는 홍석천의 바 '마이 엑스' 꼭대기 테라스로 그녀를 초대하라. 날씨 풀리는 4월에는 천장을 오픈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한다. 어두운 조명 덕에 키스나 스킨십 나누기에도 최고! 요즘 불경기니까 와서 비싼 술도 좀 먹어줘!

14 요식 사업으로 평타 치는 법

홍: 남들이 안 하는 독특한 콘셉트 한두 가지를 꼭 영두에 뒤라. 그것이 매뉴, 분위기, 가격. 아니면 서빙하는 종업원의 외모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제발 커피숍, 삼겹살집 좀 하지 마!



15 MAXIM 독자에게만

알려주는 사업 팁

홍: 뒤편이 좋은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2부 장사를 하라. 밤부터 새벽까지만 자리를 빌려서 해물짬뽕, 동치미 국수 같은 해상용 요리를 파는 거다. 클럽 옆 건물이면 금상첨화다. 거기서 부킹시켜줘도 대박날걸? 어차피 가게 주인은 자기 영업시간 외에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말만 잘하면 선뜻 허락해줄 거다.

16 죽이는 가게 분위기 내는 법

홍: 스크린을 설치해서 뮤직비디오를 틀어라. 평일에는 <레미제라블> 콘서트처럼 있어 보이는 영상, 주말에는 비운세 뮤직비디오처럼 색시함 터지는 영상을 보여줘라. 아주 그냥 비운세 허벅지 무빙에 손님 코피 팍팍 터지던걸?

17 직원 잘 부리는 법

홍: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라. 혼낼 때는 정확하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며 따끔하게 화를 내고 돌아서면 다시 좋은 형으로 돌아가라. 그 대신 한번 혼낼 때는 눈물 쏙 빠지게 혼낼 것.

18 인생 아름답게 즐기는 법

홍: 단 1년 만이라도 네가 거울을 보고 '아, 씨발 내 몸 존나 죽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1년을 즐겨라. 인간이 100년을 사는데 1년만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딱 1년을 그렇게 살아보면 30, 40대가 돼도 그 즐거움을 일기 때문에 관리하게 된다. 몸이 변하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니까?



19 우는 아기 달래는 법

리: 그딴 거 없다. 남자는 우는 아기를 달랠 수 없다. 도망가라. 그냥 놔두면 울다 지쳐 잠든다.

20 외국어 쉽게 마스터하는 법

홍: 외국인을 사귀어라. 말도 섞고 몸도 섞다 보면 어느새 원어민이 돼 있다.

21 외국인과 소통하는 법

홍: 네가 아는 단어를 크게 외쳐라. 정확한 단어 몇 개만 전달해도 거의 다 알아듣는다. 문법이 틀릴까 봐 걱정된다? 어차피 개네도 너희가 완벽한 문장을 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22 수염을 멋지게 다듬는 법

리: 처음부터 가위로 다듬으면서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실패한다. 어떤 모양으로 면도할지 얼굴에 연필로 그린 다음 다듬어라. 익숙해지면 연필이 필요 없어진다.



23

배정남st 간지 수염 면도법



1. 셰이빙 크림을 바른 뒤, 턱(어금니 쪽)에 있는 수염을 밀어준다.



2. 입을 원숭이처럼 벌리고 콧수염의 모양을 잡으며 밀어준다.



3. 정교한 수염 손질은 면도기가 아닌 코털 가위로 마무리한다.

시계 패턴론

BY 홍석천, 리마리오 WORDS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FILM 김슬기 ASSISTANTS 손안나, 박정욱, 이효선 LAYOUT 서윤정

24 탈모를 해결하는 법

홍: 모발 이식이 최고다.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한 실이라도 어릴 때 해야 착상 효과가 좋다더라. 20대에 탈모 신호가 온다면 약보다 모발 이식이 무이라는 게! 양피증, 일로에 다 필요 없어.

25 탈모를 예방하는 법

홍: 검정색 음식을 많이 먹자. 담배와 스트레스는 탈모의 주범이니 멀리하자. 자기 전에 샤워하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자면, 주변의 먼지를 머리카락이 죄다 빨아들이니 자연 바람에 다 말리고 잘 것.

26 이미 탈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홍: 하루 빨리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자. 더 빠지기 전에 결혼해야지. 도장 찍었는데 머리 빠졌다고 이혼하겠어?

27 멋있는 민머리 되는 법

홍: 민머리에 패션이 평범하면 “병 있냐?”, “조폭인가?” 하고 오해한다. 패션에 포인트를 주자. 선글라스는 필수. 귀를 찡는 것도 방법이다. 민머리는 곧 죽여도 아티스트 같아야 간지다.



홍석천 슈트 지이크
시계 모두 GC



〈코미디빅리그〉에서 ‘마초맨’으로 쿼어 개그를 선보이고 있다. 방통위에서

경고도 받았던데...

리마리오: 방송국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부모라고 들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국이나 호주로 유학도 보내고 할 텐데, 정작 거기서는 동성연애자들이 결혼까지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럼 왜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지?

홍석천: 예전에 〈애마부인〉, 〈산딸기〉도 처음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성인들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잖나?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개그도 별것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때가 올 거다. 개그는 그냥 개그다. 우리가 애들을 교육하려고

무대에 서는 것도 아닌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둘 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리마리오 씨는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기사를 봤다. 많이 회복했나?

리마리오: 다 헛소문이다. 난 사업을 한 적이 없다. 경기도 쪽에 내가 스포츠댄스 학원을 개설했다고 해서 봤는데, 전단지에도 아주 희미하게 리마리오 분장을 한 사람을 멀리서 찍어놓고 ‘이 사람이 리마리오’라고 화살표를 해놨더라. 알고 보니 댄스 학원이 아니라, 마룻바닥 시공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거야 전단지였다.

홍석천 씨는 이태원에서 요식 사업으로 대박을 쳤다.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닌데,

대체 어느 가게에 몇 시쯤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나?

홍석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마이치치스’나 ‘마이홍’에 있다. 저녁 7시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본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 얼마든지 놀러 와도 좋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요식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

홍석천: 먹는 것에 한이 맺혀서 그랬다. 대학교 때 주식이 김밥이었다. 좀 잘 먹으면 냉면, 돈가스 정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부담 없이 두 명에서 3만 원에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을 차렸다.

리마리오 씨는 미모의 외국인파 국제결혼을 했다. 외국 여자 포시는

비법을 전수해달라.

리마리오: 딱히 그런 거 없다. 동성애 불문하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화내고,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면 “여자랑 있었지!”라고 의심하는 것까지 똑같더라. 남자라면 진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최고다.

악물 수집이라면 둘 다 연예인 중에 거의 톱클래스다. 대처 방법이 있나?

리마리오: 그냥 무시한다. 어차피 구설에 오르는 직업이고, 이것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깐.

홍석천: 난 그러지 못해서 밤에 잠도 못 잘 때가 많다. 어느 순간부터 살짝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근데 제발 부모님 욕은 하지 마! 그건 너무 심하잖아. ☹

Hot Rising Star

지주연

“저 리포터는 대체 누구야?”
그녀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모든 남성의 시선은 그녀를 향했다.
지적이고 섹시한 이 매력녀의 정체는 바로 ‘서울대 얼짱’ 출신 배우 지주연이었다.
드라마 <구가의 서>의 조연을 맡아 활동에 박차를 가한 그녀.
오늘은 MAXIM 화보의 ‘주연’이 되어 매력을 맘껏 발산한다.

주연씨,
여기 좀
봐주세요!





By: 손원나 WORDS: 박현빈/누리 PHOTOGRAPH: ARC STUDIO

구두 슈즈원
의자 가죽공방 펠리즈



2009년 KBS 21기 공채 탤런트라고?

그땐 아무 준비 없이 탤런트가 된 것 같았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독립영화, 단편영화에 출연하면서 연기 공부를 했다. 아마 KBS 관계자들은 내가 연기를 접은 줄 알 거다. 내가 로스를 간 줄 아는 사람도 있다.

그 동기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는 <내 딸 서영이>에 나오는 최윤영(최호정 역)이다. 영화 <코리아>에서도 꽤 비중있게 나왔다.

데뷔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웬지 남자친구도 사귀면 안될 것 같고, 사귀어도 비밀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제일 좋은 건 미용실을 내 돈 주고 가지 않는다는 것(웃음).

그래서 사귀면 안 될 것 같고, 사귀어도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은 남자친구가 있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남자 아닌가? 뭘 그런 걸 물어보나.

없으면치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이상형은?

바다같이 잔잔할 때는 끝도 없이 넓은 남자지만, 가끔 파도처럼 날 몰아칠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성다움과 야생미가 섞여야 하더라.

필살 사주면 공략법이 있다면?

친구들이 "주연이는 맛있는 거 백 번만 사주면 결혼할 걸?"하고 말하곤 한다.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요리사를 만난 적도 있다.

가장 자신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엉덩이. 솔직히 너무 탱탱하다. 동생이 "언니, 왜 언니 엉덩이를 치면 손이 튕겨져 나가? 그거 병 아니야?"라고 놀린다. 그래서 핏되는 원피스나 청바지를 입으면 참 질어울...(웃음)

블랙 뷔스티에 아장 프로보카퇴르
팬티 저스트마이사이즈
구두 슈즈원
빈지 이메지네이션



“
가장 자신있는 신체
부위는 엉덩이다
”

전신거울 핸드팩토리

Who's that Girl? #6

반지 이메지네이션

“
오늘 촬영으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

'제2의 김태희'라는 수식어는 솔직히 욕 먹기 참 좋은 말이다. 아마 한가인도 '제2의 김태희'로 데뷔했으면 욕 먹었을 거다.

말도 마라. "네가 제2의 김태희고 서울대 일찍이면 서울대는 다 오코냐?" 같은 악플은 셀 수도 없다. 가장 상처받은 악플은 "어따 대고" 딱 이 네 글자다. 참 자존심 상하더라. 김태희 선배님이란 같은 건 학교 밖에 없는데, 그걸로 연관시키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 전공도 다르고, 키도, 얼굴도 너무 다른데...

미모의 서울대 출신 배우로도 모자라 지금 박사학위까지 준비하고 있다지? 외모, 두뇌, 연기력, 이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두뇌 기억력이 좋아서 가끔 사는 게 힘들다. 양각을 질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다.

명칭해져서 대본을 못 외우게 돼도 괜찮나?
대본은 암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니까.(웃음)

노출 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나?
예전엔 무조건 거절했다. 사실 오는 화보에도 파격적인 의상이 꽤 있다. 처음엔 "이걸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입어보니까 완전 내 옷인데? 지금도 노출은 부담스럽지만 차후 한계를 두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겠지.

어떤 광고 모델을 하면 가장 잘할까?
대일밴드. 워낙 잘 넘어지니까 대일밴드나 소독약은 정말 수도 없이 써봤다.

마지막으로 지주연에게 MAXIM이란?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고마운 친구. 



지주연

생년월일: 1986년 2월 8일
학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데뷔: 2009년 KBS 21기
공채 탤런트
데뷔작: KBS
〈전설의 고향-가면귀관〉
가면귀 역
주요 서식지:
압구정 카페 오아시스, 남산
주량: 청하 한 병
청하에 가장 어울리는 술인주:
삼겹살과 특살의 클라보레이션

FILM 김승기 ASSISTANTIS 박성욱, 이홍선, 강미려
COOPERATIONS, 기죽공방, 블리드스(artelz.com) 엔드레토리(www.andt.co.kr) 아정 프로덕토리(02-512-3040) 저스트 미디어사이즈(1544-6101) 이메지네이션(www.imaginealco.com) 슈즈원(02-3443-1703) 게스워터(02-551-7045)

귀걸이 이메지네이션

Military



Real Survival!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스멀스멀 감돌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에 실시한 핵실험에 이어 3월에는 정전 협정마저 파기했다. 김정일은 서해 5도 인근의 북한군 부대를 시찰하며 우리에게 대한 도발을 감행했고, 최후 명령만 떨어지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군 역시 이에 질세라 북한군의 도발에 철저히 맞대응할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전면전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당신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파란 하늘 위로
윙윙 날아가겠조~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공동으로 감시하는 정보감시체제를 수행하고 있다.



1 눈과 귀를 열고 전쟁을 예측하라!

와치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군사용어 몇 가지만 알아 놓으면 당신도 쉽게 전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군사용어가 바로 와치콘과 데프콘이다. 와치콘이란 'Watch Condition'의 약자로 우리 공과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정보 감시 태세를 의미한다. 평시부터 전쟁 발발 직전까지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 발령하는데,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단계의 숫자를 4에서 1로 낮춘다. 워치콘 1단계는 최고 위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만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데프콘

그 다음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데프콘이다. 데프콘이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약자로 '전투준비태세' 혹은 '방어준비태세'라고도 부른다. 군대를 갔다 온 MAXIM 독자라면 군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 본 단어겠지만, 이에 앞서 '형돈이와 대준이'를 먼저 떠올리는 독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데프콘은 와치콘과 마찬가지로 총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단계가 낮아진다. 부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데프콘 2단계가 떨어지면 우리 군이 사실상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만약 뉴스에서 와치콘 1단계나 데프콘 2단계가 나온다면, 전쟁 발발이 머지 않다는 얘기를 서둘러 외장하드를 구매해 아껴둔 아동부터 백업하도록 하자.

DEFCON



데프콘 2단계가 떨어지면 우리 군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



북한군은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다.



여보, 방귀졌어?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사용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2 일단 그냥 튀어라!

힘이 장사인 장사정포

북한군이 위험한 이유는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재래식 무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소유한 재래식 무기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장사정포'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휴전선 일대에만 500여 문 이상의 장사정포가 깔려 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은 이 장사정포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군사시설이 밀집된 광화문, 용산 등은 포격 타격 1순위가 되어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직접적인 포격 피해 외에도 건물 붕괴, 가스관 및 주요소 폭발과 같은 2차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장사정포를 피하는 방법

이러한 포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빨리 근처에 있는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이다.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건물의 지하실은 포탄의 폭발과 2차 피해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 만약 건물 안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라면 건물 밖으로 도망치지 말고 일단 책상 아래로 숨는 것이 하나의 생존법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안전한 대피 장소를 찾으려면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에 들어가,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주거지 혹은 회사 인근의 비상시설을 확인해 두자. 참고로 전쟁 중에 MAXIM 직원들을 굳이 구경하고 싶다면 식량을 진폭 확보해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 15에 위치한 서교동 주민센터로 달려가면 된다. 어서 와, 흐흐.

Military



혼노니 오오키이데스네~



유난히 실한 너는 미국에서 왔니?



풍고에서 왔단다.



니 취팔러마?

3 물과 식량을 반드시 준비하라!

수분 섭취는 필수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다. 물론 전쟁이 일어났다면 가장 구하기 힘든 물건 1순위가 될 테지만 말이다. 사람이 하루 평균 마시는 물의 양은 약 2리터다. 전시가 아니라면야 수도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 먹으면 되지만, 전시에는 전기와 수도시설이 파괴되고 슈퍼마켓도 이용할 수 없다. 북한군의 불바다 드림이 터질 때마다 마트의 생수가 동이 나는 이유도 다 이런 맥락에서다. 일단 유사시 마실 수 있는 생수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집안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소변을 처리할 땐, 물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변기보다는 야외에서 불일을 해결하자. 민방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거지 인근 급수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식수 확보에 도움이 될 거다.

먹고는 살아야지

일반적인 가정집의 경우 냉장고와 주방을 잘 찾아 보면 쌀을 제외한 부식은 겨우 2~3일 분량으로 한정되어 있다. 평소라면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지만, 전시에는 마트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 군경에 의해 통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장기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같은 음식을 평소에도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지난 1월호 MAXIM에서 소개한 '전투식량 편'을 참조해 자신만의 DIY 전투식량을 일주일 치 준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물과 식량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조리할 수 있는 버너와 연료도 반드시 준비할 것. 부탄가스는 28개들이 1박스를 사서 아껴 쓰려면 최대 한 달 동안 물을 끓이거나 각종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전쟁이 만만해지는 건 아니다.



신사임당보다 내가 더 신사임당!

안타깝지만 전시에는 원화보다 달러를 챙기자.



예니 지금이나 금값은 금값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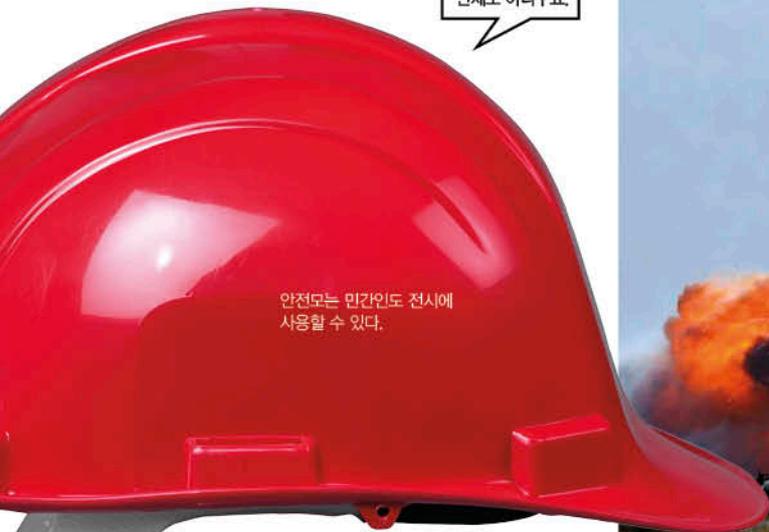
4 현찰과 보석 확보에 힘을올려라!

신용카드로는 뚝도 못 댈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카드다. 현찰보다 카드가 일상화된지 오래고, 이제는 현찰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집이 드물 정도니까.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주요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지갑 속 플라스틱 카드도 100원짜리 (드래곤볼) 카드만도 못한 쓰레기로 전락한다. 전시에는 현찰을 가진 자가 승리자다. 현금이 있으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엄마, 패를 어따 뒀어?

전쟁 발발의 김새를 느꼈다면 자체 없이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자.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원화보다는 달러를 준비해라. 전쟁이 발발하면 국내 경제는 휘청거릴 것이고, 원화보다는 달러가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의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찰이 없다면 집에서 보관 중인 귀금속류를 챙기는 것도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전쟁의 사례를 살펴 볼 때, 금은 현찰보다 가치가 높았다.



안전모는 민간인도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모 아니구요.



아, 따뜻해.

5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라!

굳이 전사가 아니더라도 재난 상황에서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다.



위기 상황의 필수 아이템: 안전모
전쟁이 터지면 현역 혹은 동원 예비군들은 총기와 함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모, 방탄복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민방위 대원이나 민간인의 경우엔 총기는 그렇다 쳐도 방탄모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물론 포격이나 공습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구 정도는 구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는 필수다. 가격 또한 비싸지 않아 싼 제품의 경우 개당 5,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순대국밥 한 그릇 값으로 목숨 건졌다 생각하고 하나 정도는 구매해 두자.

화생방전의 생존 아이템: 방독면
방독면은 화생방전에서 필수다. 화생방전이란 독가스를 사용한 화학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물학전, 핵무기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방사능전을 총칭하는 단어다. 방독면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방독면'이라 부르는 제품군은 민간인도 전시에 쉽게 쓸 수 있는 방독면으로 개당 5~7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방독면에서 실질적으로 공기 정화 기능을 하는 정화통의 유효기간은 기준 제조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정화통을 갈아주자. ☹

화려한 제대는 물건너 가고... 전쟁이 터지면 너넨 어쩌냐?



이병 최동욱(세븐)
입대 일주일 전에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통보받은 세븐의 마음은 어땠을까. 박한별의 "제대를 해야 결혼을 하지" 발언처럼 니가 노래를 못 해도 그녀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기를 빌어 줄게.



일병 이상철(상추)
한창 선임을 눈치보며 내무반 분위기 타고 있을 상추는 지금쯤 한창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쇼리에게 신기(神氣)라도 있는 걸까? 상추 입대 날 쇼리가 그렇게 울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상병 민경훈
입대 당시 머리맡이 들통나는 바람에 국민 아저씨로 전략한 '쌈자신'에게 남은 희망은 버즈 재결합 뿐. 갓 상병을 달아 한창 신나 있을 그에게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마.



병장 정지훈
우리 월드스타님은 요즘 쓰리스타가 손수 '모시고' 다니며 잘 나가고 계시더라. 하지만 연에 사병 역시 전사에는 그저 소총수에 불과하다. 태화한테 인사는 잘 해 두고, 응?

Grand Salami!

프로야구 2K Play Ball!!!

그토록 고대하던 WBC에서 용큐가 커트 실력을 뽐내고, 승장이 안타 치고, 돌부처가 뒷문을 막았지만 결과는 1라운드 조기 탈락. 야구팬 마음에 큰 스크래치가 생겼다. 이 허탈한 마음에 빨간약 발라줄 신나는 야구 게임 <프로야구 2K>가 왔다. 그것도 섹시한 여자 조교와 함께 말이다. 엄휘, 벌써 다 나왔다고?



공과 가슴은 등글다!

"Baseball was, is and always will be to me the best game in the world." - Babe Ruth



Hustle up!



Giants

<프로야구 2K>, 이게 달라!

- 넥슨과 미국의 콘솔 스포츠 게임의 명가 2K 스포츠가 공동 개발했다
- MLB2K의 2012년도 최신 엔진을 장착해 혁신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 KBO 공식 기록과 선수 데이터, 그래픽 적용은 기본!
- 액션과 시뮬레이션을 겸비한 토털 야구 게임
- 좋은 선수 수집에만 머무른 기존 야구 게임과 달리 각기 다른 능력과 컨디션을 지닌 선수를 육성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The Greatest Diamond
in the World is Baseball Park!



지금 날 보고 잠이 와?
내 말 새겨 듣는 게 좋을 걸~?



"Baseball is the only place
where a sacrifice is real."



Oh! Oh!

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개막이다! 먹고 즐기고,
일하다 즐기고, 데이트하다 조는 이 나쁜
봄날, 남자의 심장을 팔딱거리게 만들
그라운드 위 치열한 전쟁, 감독, 구단, 선수들
육하면서 눈으로 보지만 말고 직접 야구를
해보는 건 어떤가? 프로야구 선수들을
육성하고 대전도 할 수 있는 토털 야구 게임
(프로야구 2K)가 야구의 참맛을 선사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럴 줄 알고 눈이
번쩍 뜨이는 섹시한 여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차렷! 경례!

Hit it!!

"You gotta be a man to play baseball for a living,
but you gotta have a lot of little boy in you, too." -Roy Campanella



ace in life
lly appreciated."

Hot Rookie!

Run, run, run!



Home run!



이거 도핑에
안 걸려. 오빠!

Nice Play

ㄱ나니, 4번 타자의 꿈?

낮은 야구공 하나로 온 동네를 주름잡으며 '야구 신동' 소리 좀 들어본 동네 4번 타자라면 여전히 방망이질에는 자신 있겠죠? <프로야구 2K>에서도 쌍쌍 타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요? 힘보다는 스피드! 중요한 건 타이밍! 생각보다 투수의 공이 빠르거든요. 날아오는 공을 향해 정확한 타이밍에 Space! 테이크백을 위해 F키로 당겼다가 다시 공을 향해 Space! 와우, 제법인데요? 이제 다른 방망이질 습씨도 좀 볼까요?

야구 꿈나무의 꿈! 직접 구단을 꾸러보자!

'부자가 되어 좋아하는 구단을 사고 맘대로 할 거야!' 당신과 같은 모든 야구 꿈나무들의 최종 꿈이죠? 이제 게임 속에서 그 꿈을 이루세요 먼저 <프로야구 2K>의 선수 드래프트부터 해볼까요? 현재 자산과 보완해야 할 취약한 포지션 그리고 영입 대상 선수들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경기에 출전할 선수들의 로스터를 구성할 차례예요. 선수의 능력뿐 아니라 컨디션도 고려해서 1군을 꾸리는 게 포인트죠. 이때 연봉 상한선은 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연봉 상한선은 리그가 진행될수록, 상위 리그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1군에 올린 선수들은 점점 성장하므로 딱딱 키우고 싶은 애들은 로스터에 포함하면 쑥쑥 자랄 거예요. 당신 물건처럼 쑥쑥!



HOT TIP!

<프로야구 2K>엔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려주는 마법의 주사가 있어요! 요거 한 방이면 선수의 컨디션 자수가 한 단계 상승합니다.

Perfect Game!

**<프로야구 2K>의
3가지 게임 모드**

- 1. 페넌트 레이스 모드:** 시뮬레이션 기반의 리그 모드. 일주일간 10개 팀이 총 120 경기를 치른다. 관전 게임(작전 지시, 액션 게임)을 통해 승부를 가르며 리그별 연봉 제한이 있다.
- 2. 멀티플레이 모드:** 던지고 치는 일대일 대전 모드로, 순수 액션 모드와 Super SIM 모드를 모두 즐길 수 있다.
- 3. 싱글 플레이 모드:** 타격, 투구, 주루, 수비 등 액션 요소를 익히는 튜토리얼과 오픈 직후 이벤트인 '퍼펙트게임 챌린지 코리아'로 구성. 퍼펙트게임은 총 1억 원 규모로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Nice Play

Power Hitter

퍼펙트 피칭을 위해 Go! Go!

하룻밤에 홍콩을 69번이나 갔다 오는 것만큼 어려운 퍼펙트게임. 포수의 사인에 따라 구종을 정했다면 이제 공을 던질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변화구의 경우 포구 지점까지 예측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자, Space로 게이지를 맞췄나요? 바깥 원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제구가 가능합니다. 섹스도, 투구도 컨트롤이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구종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요? 이건 타석에 선 타자가 많이 봐온 공이라는 뜻이에요. 한 방 얻어맞기 딱 좋겠죠? 어머, 마치 오르가슴을 느끼는 당신 여자친구처럼 갑자기 바들바들 투구 위치가 떨린다고요? 투수가 몹시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주자들이 주렁주렁 득점권에 나가 있거나 점수를 많이 내준 상태겠죠. 선수 정보에서 '평정심'을 보면 투수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야구, 몰라요~! 9회 말 2아웃까지도 몰라요!

From MAXIM Portugal 

Perfect Body **Lorenza Zorer**

MAXIM 포르투갈 편집부가 보내온
로렌자 조레르의 화보를 보고
우린 흥분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 숨 막히는 보디 라인으로
우리를 질식시킬 속셈인가!



오늘 촬영 어땠나?

평범한 자연 배경을
섹시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뿌듯하다. 그리고 내 평소
모습보다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 마음에 든다.

보디라인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남몰래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건가?
특별히 챙겨 먹는 건 없고 주로 채식을
한다. 타이 요리도 엄청 좋아한다!

**MAXIM과의 촬영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 게다가 MAXIM 화보라니
모델로서도 굉장한 경력이다!

최근 본 영화 중 가장 좋았던 작품은?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정말 좋았다.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지적인 여자라고

들었다. 뭘 읽고 있나?

요즘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있다. 당신도
읽어봤나?

하하. 뭘 책 이야기는 이정도로 하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인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아, 나도 부루마블에서 봤다. 어떤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뛰나?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때로는 단순한

사람이 좋다.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아는 남자라면 더 좋고.

**그런 이상형의 남자와 함께하고 싶은
이상적인 데이트 코스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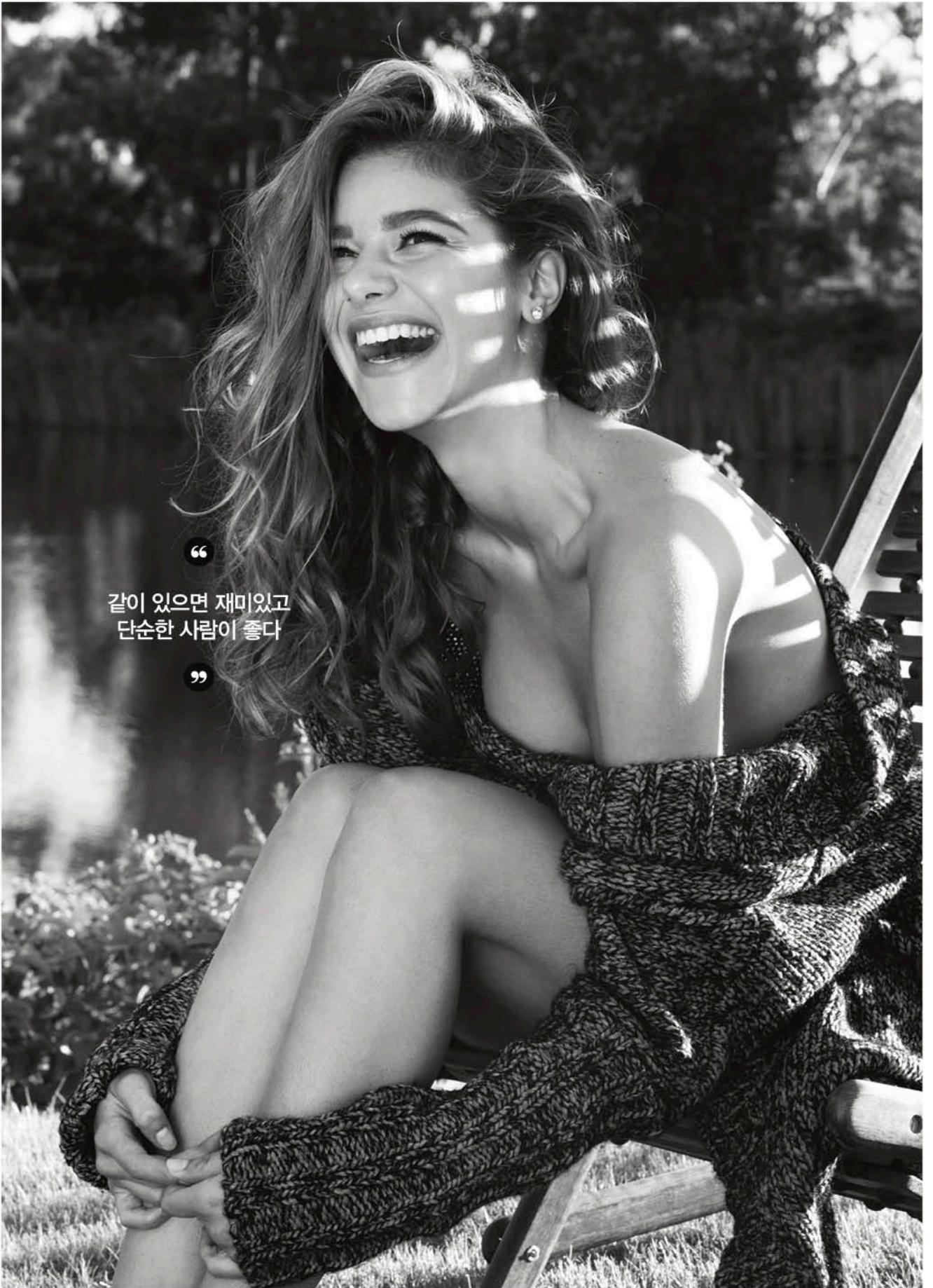
그걸 어떻게 미리 정하나? 이상형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데이트 코스를 정하라니.(웃음) 





From MAXIM Portugal 





“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단순한 사람이 좋다
”

From MAXIM Portugal 

“

평소의 나보다 더
예쁘게 나온 것 같다

”



PHOTOGRAPH: MARIA VASCONCELOS STYLING: ANA FONTINHA

Party



스캔만 해도
이끼가 들썩



Red bull THRE3STYLE SHOWCASE PARTY :in CLUB ANSWER

세계적으로 먹여주는 DJ들이 틀어주는 음악이 다르긴 다르더라.



이날의 파티 장소: 클럽 앤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 사랑에 퍼붓는 돈 지랄 따위는 개나 쥐버리라는 듯 음악에 몰입하는 클럽버들이 있었다. 이날 그들의 골반을 뒤틀어 놓은 화끈한 레드불 쓰리스타일 쇼케이스 파티가 클럽 앤서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DJ 시프티와 포컬라색이 들려준 영혼이 담긴 음악은 마치 귀에 달려먹이는 보약 한 첩 같았다. 한 마디로 '음악 공부신 파티'였다.





쇼케이스가 시작되자 DJ 포컬러잭과 DJ 시프티가 테이블에 올라 각자 100분씩 디제잉 실력을 선보였다. 그들은 사이의 '챔피언',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등의 K-POP을 선곡해, 한국 관객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나는 음악에 스텝 댄스라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파티가 끝나고 질뚱거리며 집에 가는 클러버도 눈에 띄었다.



레드불 쓰리스타일이란?

레드불 쓰리스타일은 DJ들이 15분 동안 최소 3개의 다른 장르 음악을 믹싱하여 디제잉 실력을 겨루는 세계적인 DJ 대회다. 200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해, 2010년부터 국제적인 대회로 형식과 규모를 갖추고 매년 개최하게 되었다. 선곡 기술력 창의력 관객을 열광시키는 능력 등의 총 4가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월드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하는 DJ는 '세계 최고의 Party Rocker'의 명예를 얻게 된다.



Party



DJ 시프티(Shiftee)
 "DMC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 DJ다.
 하버드대 수학과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현재
 뉴욕대학교에서 부교수로 DJ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DMC 월드 챔피언십: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DJ 대회,
 턴테이블 제조사인 Technics가 후원한다.



DJ 포컬라젝(Four Color Zack)
 '2012년 레드불 프리스트ایل 월드 파이널'을 우승하면서
 세계 정상급 DJ 반열에 올랐다.
 같은 해 MTV가 선정한 '2012년 최고의 믹서'에 이름을 올렸다.



DJ 시프티(왼), 포컬러잭(오)

DJs of the Night

들은 오늘 처음 만난 걸로 아는데, 꽤 친해 보인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던가?

포컬러잭(이하 잭): 난 옛날부터 시프티 팬이었다. 아냐, 시프티가 진짜 너무 좋다. DJ들끼리는 쉽게 친해지는데 다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해서 그런 거 같다.

시프티: 전에 잭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존나 쿨하고 멋있었다. 내가 콜가이러서 쿨한 사람이랑은 쉽게 친해진다.

세계를 돌며 수많은 공연을 할 텐데, 어느 나라 파티가 가장 좋아인가?

시프티: 지난해에 베를린에서 디제잉을 했다. 함께 디제잉한 여자 래퍼가 전직 유력녀에 마약

중독자였다. 독일의 모든 미디어가 그 여자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 그날이 그녀의 첫 라이브 공연이었는데, 완전 카오스, 색시 그 자체였다.
잭: 난 오늘일 것 같은데? 씨발, 오늘 무슨 기념일 이잖아!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국경일로 알고 있는 듯)

세계적인 DJ는 어떤 헤드폰을 쓰나?

시프티: AIAIAI의 TMA-1. 날렵한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하다. 물론 음질은 말할 것도 없다.
잭: 나도 AIAIAI 제품을 쓰다가 2주 만에 고장 나서 다시 사지는 않았고, 협찬받은 URBAN EARS 제품을 쓰고 있다. 화려한 스타일은 아닌데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서 마음에 든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가?

시프티: 풍부하게 먹고살 정도?(웃음)

파티에서 먹여주는 제스처를 알려달라. 실력 있는 DJ가 알려주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통하겠지.

시프티: 어깨 쪽으로 손등이 향하도록 양팔을 올린 뒤, 팔꿈치를 허리춤으로 당기면서 주먹을 회전시키며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라. 음악에 맞춰서 원투! 원투! 힙합이나 일렉에 다 어울린다.

틀기엔 좀 병신같은데, 하여튼 고맙다. 한국에 아는

뮤지션이 있나?

시프티: 아내가 한국인이라 아기가 생겼을 때,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친정사구들과 지냈다. 그때 미국 채널이 안 나와서 한국 프로그램만 보고 지냈다. 그래서 K-POP에 대해 한 달짜리 지식이 생겼다. 지금은 "오, 이 노래구냐!"하고 맞출 수 있을 정도?
잭: 솔직히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까봐 걱정했다.

디제잉을 할 때 무었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막상하는가?

시프티: 어떤 음악을 틀건 그 음악은 시프티가 디제잉한 음악이란 걸 알려주려고 한다. 스크래치를 넣기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많이 손을 대는 편이다.

잭: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 파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듣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넣으려고 노력한다.

공연 중에 음주를 즐기나?

시프티: 맥주 한두 병 정도? 예전엔 마약도 잠깐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집중하려면 약은 하면 안 되겠다.

잭: 존나 마신다. 관중과 함께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함께 즐기는 만큼 나도 즐겨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존나 마실 거다.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가기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공공자금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블랙다이스'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4월 20일까지)

전역자랑깬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봉석호 평생 30%

애들이, 안 올 것 같은 너의 전역일도 와버렸다. 이제 너희 차례가 올 것 같지? 안 와. 군 생활의 지름길이란 없다. 티끌 모아 전역하는 거다. 너희 사회에서 술 먹고 여자랑 놀 때 나는 여기서 짬밥 먹고 있었잖나. 그리고 말쑥 전이라고 좋아하는 아랫동기들, 군생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욕바래!



김형찬 평생 30%

애들이, 어제 전역해서 그런가... 전역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 이 자식들이 군인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야 임마.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라면 주고 결정적으로 시간 지나면 무능해도 진급하고... 그래서 말뚝 박는 게 진리인 거 같다. 애들이 흑한가캠프 얼마 안 남았잖아. 열심히 하고.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하잖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밖에 안 되지 않나? 캠프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해~^^



심경진 평생 30%

힘겹게 오늘도 군생활 하는 후임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이것 뿐이다. 즐겁게 보고 다들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이 딱 전역 3개월째인데 이거 당침되는지 모르겠다. 안 되면 니들이 복이 더럽게 있는 거고, ㅋㅋ



김현성 평생 30%

진짜 입대하고 훈련병 때는 상상도 못했던 나의 전역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MAXIM을 군대에서 알게 되었지만 진짜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전역하면 꼭 정기구독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진짜로 정기구독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후임들이, 이제 교육 들어갈텐데 과월호 가지고 굿밤 보내라. 난 볼타는 주말을 즐길테니... 6월 군번 후임들이, 얼른얼른 전역해라. 전역하고 만나서 제대로 놀아보자! 앞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아껴겠다. 억울하면 군대 일찍오던가ㅋㅋㅋ



정재원 평생 30%

애들이~ 잘지내지? 너희들도 힘든 군생활 잘 참고 지낼 거라고 믿어. 형은 2학기 복학이라 지금은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하루종일 일만 하다가 가끔씩 군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때가 그림기도 하고 근무 끝나고 먹었던 뽕이도 먹고 싶어지네. 너희들은 내무실에서 간부 눈치보면서 MAXIM 볼 텐데 난 따뜻한 방에서 즐기고 있지. 아무튼 전역하면 좋긴 좋은데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 수도 있을 거야. 군대 안에서 시간날 때마다 책 읽고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하길 바라다!!!



김승재 평생 30%

너희들의 김대장, 20사단의 유일무이한 폭풍대장, 이 몸이 드디어 전역했다. 모두들 눈물이 흘러 강물이 되다 못해 폭포가 되어 흐르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듯 하다. 내 자랑질은 한 명만 노린다. 본부 호식이형 보고 있나? 그렇게 휴가는 아껴야!



이대승 평생 30%

안녕, 애들이! 식상하지만 한 마디 먼저 할게. 전역해라! 그게 답이다. 그래도 거기 안에 있을 때 나갈 생각하던 때가 좋은 거야. 너희들에게 끝까지 좋은 형으로 남고 싶다. 내 마지막 선물을 받기래! 남은 생활 열심히 하고, 399 파이팅!



황운한 평생 30%

예비역으로 처음 맞는 하루가 거의 휴가만큼 빨리 지나간다. 내 성격 때문에 모두 나랑 따로 노는 기분 많이 느꼈을 텐데...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정말 좋은 후임들 뒤서 군생활 겁나 편하게 하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연력이 닿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왕십리나 일산 근처라도 지나가게 되면 꼭 얼굴 한 번씩 마주쳤으면 좋겠다. 근데 워 사줄 돈은 없으니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갔으면 더욱 좋겠다. 모두 남은 군생활 초심 잊지 말고 깨끗하게 버텨내기를 바람!



최광 평생 30%

본부대 놀음, 잘 지내고 있나? 저번 주에 흑한기 훈련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지휘소를 잘 구축했는지 모르겠다. 형이 전역하고서 한 번은 꼭 찾아간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못가서 미안하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본부대 인원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할 수 없었을 거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형이 전역하는 날 했던 얘기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올거야. 그 때까지 파이팅 하고 다들 예비역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



홍만수 평생 30%

전역하고 집에 오자마자 군복도 안 벗고 전역증 스캔 뜨고 맥스에 전역인증한다. 군생활에서 MAXIMO야말로 넥타르코 엘리서 아니냐!!! 과월호 보면서 내 생각은 하지만, 남정네들이 내 생각한다는 건 좀 그래. 그리고 승현아, 딴 애들은 몰라도 우리 포본 애들을 최우선적으로 과월호 보여줘야 한다! ㅇㅋ?

마지막으로 추천곡: 3-way (The Golden Rule) - THE LONELY ISLAND (feat. Lady GaGa)

맨날 자겅게 아이들 노래만 듣지 말고 가끔 이런 노래도 듣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다.



김용근 평생 30%

잘들 지내나. 이것들이. 요새 참 흥흥한 세상. 위에서 난리도 아니지? 난 아무런 상관 없는데 너희는 참 힘들 거야. 우리 1생활관 아이들! 내가 맨날 그랬잖아. 너희는 아마 패배자인 거 같다고. 점점 그게 맞는 말이지? 막 현실로 다가오지?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너희가 물어보지? 밖은 어때? 그럴 때마다 정말 난 환희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주잖아. 완전 좋아!!! 거기보단 100배!! 진짜 여기가 좋다. 자유로워! 물론 그 안이 재미도 있었지. 그렇지만. 절대 결코 다시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다. 아직도 많이들 남았는데 열심히 뺑이 쳐라. 놀림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한두류 평생 30%

형이 드디어 전역을 했다. 사실 전역한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아껴졌다. 너희도 알다시피 밖은 별천지잖아. 매일 술 여자 술 여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달이 훌쩍 갔다. 야, 밖에선 한 달 벌거 아니네 안에서는 고생이지만. 그리고 이제 내가 없으니 내 역할이 뭘지 알겠지? 최선임은 바람막이여. 위에서 간부들이 병사한테 뽕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여.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은 아젠 눈이 와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 너넨 눈 쓸면서 쉬는 시간에 맥심 보면서 행복하게, 건강히 잘 지내거라.

위 122명들 비롯하여 총 14명의 용사들이 MAXIMO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IP가 되었다!

MAXIM BUYER'S EDGE



환절기, 민감성 피부를 위한 듀크레이 케라크닐 젤 무상

프랑스 약국 화장품 브랜드 듀크레이에서는 봄의 불청객 황사를 대비하여 자극없이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줄 클렌징 제품 케라크닐 젤 무상을 제안한다. 트러블 피부용 세안제 케라크닐 젤 무상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쓰기 좋고, 세안 시 미르타신이 트러블의 원인을 제거하며, 세정 후 피부를 더 보송하게 유지해준다. 피부 청결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환절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듀크레이 케라크닐 젤 무상으로 똑똑하게 트러블 관리하자.

25,000원, 듀크레이(02-515-1251)



윈스톤(WINSTON) XS 라인 출시

제이티인티내셔널코리아주는 세계적 명성의 윈스톤 XS 라인을 2월 13일 국내에 출시했다. 이번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담배 XS 마이크로 수퍼라이트, 품질과 스타일의 조화가 돋보이는 XS라이트, 공간필터 시스템을 도입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엑스타일 라이트의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맛에 만족을 못 느끼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입맛에 맞게 골라 피울 수 있는 것이 특징. 글로벌 브랜드 담배로는 유일하게 2,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여 가격 부담까지 덜었다.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2

2,300원(XS 라인 3종 모두)

세계적인 사진 작가와 맥캘란의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이 세계적인 사진작가 '애니 레보비츠'와 함께 만든 '마스터 오브 포토그래피 3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 국내에 출시된다. 애니 레보비츠는 1970년 음악 잡지 <롤링 스톤스>의 포토 저널리스트로 처음 사진에 발을 들인 후 현재 유명 잡지에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사진작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출시되는 한정판은 2009년 랜킨, 2011년 알버츠 왓슨에 이어 세 번째 제품으로, 전 세계에 출시된 1천 병 중 10병만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 소장 가치가 높다.

3백만 원



전 세계 1위 콘돔 브랜드 듀렉스 국내 론칭

8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듀렉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콘돔으로 우수한 착용감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론칭하는 듀렉스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LOVE, 3가지 색과 향을 즐길 수 있는 SELECT, 돌기형 콘돔인 SENSATION, 깃털처럼 얇은 초박형 콘돔 FETHERLITE ULTRA 등, 총 4종을 출시한다. 소비자의 기분과 취향에 맞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된 듀렉스 콘돔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제품을 쓰는 걸로~

듀렉스(www.durex.com)



HOLLYS COFFEE

할리스커피, 직접 우린 홍차에 씹는 재미까지 더한 리얼 브루드 아이스티 2종 출시

할리스커피는 직접 우린 홍차에 베리 과육과 워터젤리를 각각 더한 리얼 브루드 아이스티 2종을 전국 할리스커피 매장을 통해 출시한다. 리얼 브루드 아이스티란 가루 파우더 홍차가 아닌 홍차 잎에서 직접 우려낸 추출액을 사용해, 달지 않고 차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스티는 홍차 추출액과 함께 과육, 젤리 등을 넣어 씹는 재미까지 더했다. 깔끔하고 청량한 리얼 브루드 아이스티로 상큼한 봄을 맞자!

4,800원(R), 5,300원(L), 할리스커피(www.hollys.co.kr)



일본 관광청이 추천합니다

일본에서 즐기는 벚꽃 여행 기획전

저렴한 가격에 원조 벚꽃을 즐기고 싶다면 티켓몬스터와 일본관광청이 함께 추진하는 일본 벚꽃 여행 기획전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후쿠오카, 도쿄, 홋카이도 등 다양한 일본 지역이 망라된 벚꽃 기획전 외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테마여행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테마여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JNTO 한국어 사이트(www.welcometojapan.or.kr)와 J-ROUTE 사이트(www.jroute.or.kr)를 참조하면 된다. J-ROUTE 페이스북(www.facebook.com/joinjroute)에서도 매일 신선한 정보를 발산하고 있으니, '좋아요!' 구다사이~! **일본정부관광국(www.welcometojapan.or.kr)**



소드걸스 TCG, 제3탄 인조흡혈신 발매 및 챔피언십 개최

국산 미소녀 트레이딩 카드 게임 소드걸스 TCG에서 선보이는 제3탄 인조흡혈신을 소개한다. 총 103종의 카드가 발매되며,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게임 전략 능력을 갖춘 카드들도 등장한다. 오는 5월 26일에는 (주)코리아보드게임즈가 주최하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걸린 소드걸스 TCG 챔피언십이 벌어질 예정. 예선전은 인조흡혈신 발매 후 각 공식 매장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본선 참가비가 무료로 한정 프로모션 카드와 소드걸스 캐릭터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 소드걸스 마니아라면 TCG 챔피언십 소식을 빼먹을 수 없겠지? 챔피언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제3탄 인조흡혈신에 대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소드걸스 TCG(www.sg-tcg.com)



나도 데이트 할수있다!

서울밝은안과에서 라식하고 연애해요!

이 따뜻한 봄날, 꽃같은 여자와의 데이트를 꿈꾼다면 먼저 그녀에게 어울리는 멋진 남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전국에 있는 모든 안경남의 연애를 돕고자 MAXIM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이 있다. 바로 서울밝은안과에서 진행되는 '멋진 남자 되기 프로젝트' 이벤트!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기회를 이용하여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당신 인생의 진짜 봄날을 꿈꾸고 있다면 서울밝은안과를 통해 지금 당장 안경남에서 탈출하라.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밝은안과 홈페이지 및 상담 전화를 이용하도록.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



예한의원 방문하면

여드름 흉터 고민 싹~!

여드름 흉터로 고생하는 MAXIM 독자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예한의원의 독자적인 흉터재생술인 SL흉터재생술이 바로 그것이다. 1회 시술만으로도 여드름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회를 거듭할수록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예한의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친절한 피부 상담은 물론이고 아로마 족욕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시업장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여러 번 진행하는 것보다 예한의원 SL흉터재생술 한 방이 더 큰 효과를 제공할 테니, 피부 고민남에게 꼭 방문 상담을 권하는 바다. **예한의원(02-564-2060, www.ye2060.co.kr)**



벤틀리 모터스, 신형 플라잉스퍼 공개

벤틀리 모터스가 고성능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종인 신형 플라잉스퍼를 선보인다. 신형 플라잉스퍼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장인들의 손길로 완성된 럭셔리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벤틀리의 대표 4도어 모델이다. 신형 플라잉스퍼는 6.0L 트윈 터보 W12 엔진과 ZF 8단 변속기를 탑재했다. 625마력의 엄청난 힘과 1-100km 도달 시간이 4.6초로 믿을 수 없는 스피드를 자랑한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아직 미정으로, 선택 사양에 따라 달라진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너무 빠르다고 날기까지 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벤틀리(www.bentleyseoul.com)



BMW 코리아 NEW M6 쿠페 출시

BMW 코리아가 고성능 M 부문의 NEW M6 쿠페를 공식 출시했다. NEW M6 쿠페는 V8 4,395cc M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 560마력에 최대토크 69.4kg.m의 초특급 파워를 자랑한다. 게다가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를 장착해 기어를 빠르게 변속할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서 최고 안전 속도까지 부드럽고 거침 없게 가속한다. 또한 M 브랜드의 상징이자 고유 드라이브 컨트를 기능인 M 드라이브를 장착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스포티함과 안락함을 골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성능만이 아니다.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한 내·외부와 각종 편의기능은 그대들의 눈을 사로잡는데 부족함이 없다. M은 남자들의 로망이자 드림카니까.

1억 8,890만 원, BMW(www.bmw.co.kr)



ROAD FC 011, '감성 파이터' 서두원 '헬보이' 요아킴 한센 상대로 5연승 도전

〈남자의 자각〉 합창단을 통해 거친 외모와 대비되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주며 감성 파이터로 이름을 알린 서두원 선수가 오는 4월 13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ROAD FC 011 대회에서 요아킴 한센을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한다. '헬보이' 한센은 PRIDE 시절 경량급 강자로 군림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대회에는 남의철과 쿠에 타카스케의 라이트급 결승전과 위승배와 '아프리카의 검은 암살자' 라모 티에리 소쿠주의 라이트 헤비급 수퍼파이트 등의 매치업이 예정돼 있다. 4월 13일 저녁 8시부터 수퍼액션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 수퍼액션(080-080-0780)

집에서 하는 스킨케어로 피부 트러블 걱정은 뚝!

실론에서겨우내 방치되어 손상된 피부 치료를 위해서 피부 관리기 실론 블루를 출시한다. 실론 블루는 피부 속의 여드름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블루 라이트 테라피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맞추는 프락셔널 열 에너지의 콤비네이션 효과를 통해 피부를 개선해주는 가정용 기구다. 게다가 실론 블루는 세계적으로 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별도의 카트리지 교환이 필요 없는 반영구제품이라 경제적이다. 매일 3~4분씩 사용하면 6~8주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 끝까지 미남이 되고 싶은 사람은 참고하도록. 34만 원, 실론 블루(www.silkn.co.kr)



새로운 보틀 디자인으로 발렌타인 17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기념하여 발렌타인 챔피언십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GC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상금이나 선수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상급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 이를 기념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 발렌타인 17년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블렌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패키지를 새로운 스타일로 차별화하여 소장가치를 높였다. 우아한 품격이 담긴 한정판 발렌타인으로 럭셔리함에 취해보자. 145,000원, 발렌타인(02-3466-5700)



Unpicked

선착순 1명에게 그녀가 애장품을!

퀴즈 응모:
이 다리
누구 것?



이 달의 몸쓸 사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녀들의 가치없는 B컷!

지주연



못 쓴 이유: 보고 있으면 내 관자놀이가 다 아파서, 그래도 예쁘대!



못 쓴 이유: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들짝 놀라서, 혹시 노예계약서?!



못 쓴 이유: 에디터는 아직 인형탈도 안 썼는데 사유리가 너무 일찍 울입해서.



못 쓴 이유: 너무 힘겹게 끼어 있어서, 근데 웃고 있어서 좀 무서운 기분이 든다.

Unpicked

이 달의 몸쓸 사진

멋지고 유행 넘치는 수컷 모델들의 B컷



못 쓴 이유: 옷깃이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못 쓴 이유: 뒤로 날린 돈뭉치가 머리를 강타해서. 고약는 아니었음... 미안해요 형.



방귀대장인가?

못 쓴 이유: 방귀를 뀌렀더니 손동작을 너무 오바해서. 차라리 멍크슌이 어울리겠다.

리마리오



못 쓴 이유: 얼굴이 만화 같아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011

FEATHERWEIGHT SUPER FIGHT

SEO DOO WON VS. JOACHIM HANSEN

LIGHT HEAVYWEIGHT SUPER FIGHT

WI SEUNG BAE VS RAMEAU THIERRY SOKOUJOU

WORLD LIGHTWEIGHT TOURNAMENT FINAL BOUT

NAM YUI CHUL VS RUME TAKASURE



WELTERWEIGHT SUPER FIGHT

LUIS RAMOS vs CHA JUNG HWAN

MIDDLEWEIGHT SUPER FIGHT

MINOWA IYUHISA vs SON HYAE SEOH

LIGHTWEIGHT SUPER FIGHT

LEE HYEONG SEOH vs MURAT HAZGAN

·예매: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메인협찬사: Goobne mall **굽네마켓** ·주관연론사: SPORTS WORLD ·문의: (주)로드 TEL.033)766-7666



4월 13일 토요일 밤 8시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MAXIM



KOREA

ICON MUZIE

아직도 뮤지를 UV의 멤버로만 알고 있다고?
대중을 읽는 천재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뮤지를 MAXIM이 만났다. 좀 까칠해보여서
선글라스를 벗기니 인상이 더 나빠졌다

GIRLS SUPER GLAMOUR!

역대급 글래머가 한꺼번에 들어나!
접입가경 2013 MISS MAXIM CONTEST

Olga Kurylenko

양대 첩보물 <007>과 <미션임파서블>에
양다리 걸친 유일한 여자, MAXIM 컴백

Perfect Lorenza

맥심 포르투갈 편집부의 도전장!
마성의 청순녀라던데 한번 볼까?

<진 삼국무쌍7>의
신비의 글래머 장춘화

지 꽃 지 기
知花知己면

백 색 무 패
百色無敗라

꽃뱀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무패

식木일 특별 화보
나무를 심자

숙련된 조교: 미스맥심 김수아

DEVIL ACTOR

악마를 연기하는 배우

황정민

홍석천+리마리오

27
SKILLS

APRIL 2013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